

특별전
< 한국의 청동기문화 2020 >
연계 학술대회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분기

2020.5.22.(금)
10:10 ~ 18:00
국립청주박물관 대강당

국립청주박물관
한국청동기학회

국립청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대회

| 주제 _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분기

| 일시 _ 2020. 05. 22(금) 10:20~18:00

| 장소 _ 국립청주박물관 대강당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1부 사회: 박진일(국립청주박물관)		
개회식	10:20 ~ 10:40	개회사_ 신영호(국립청주박물관장)
		환영사_ 김권구(한국청동기학회장)
		축사_ 한국고고학회장 혹은 청주시장
단상 정리		
기조강연	10:40 ~ 11:10	韓半島 靑銅器時代 設定의 발자취와 研究課題 발표: 이건무(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제1발표	11:10 ~ 11:50	작물유체로 본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사회 발표: 김민구(전남대학교)
제2발표	11:50 ~ 12:20	사회경제적 변화로 본 청동기시대 전기와 중기의 분기 발표: 김범철(충북대학교)
점심식사 및 특별전 관람		
2부 사회: 박영구(한국청동기학회)		
제3발표	14:00 ~ 14:30	금속유물로 본 한국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의 시기 구분 발표: 조진선(전남대학교)
제4발표	14:30 ~ 15:00	‘초기철기시대’ 폐기 제안 발표: 박진일(국립청주박물관)
제5발표	15:00 ~ 15:30	일본 야요이시대의 분기 발표: 武末純一(日本 福岡大學校) (대독) 이동관(국립경주박물관)
장내 정리 및 휴식		
종합토론	15:50 ~ 17:50	좌장: 박양진(충남대학교) 윤호필(상주박물관), 황재훈(충남대학교), 김미경(국립중앙박물관), 이창희(부산대학교)
만찬	18:00	

개회사

국립청주박물관은 ‘한국의 청동기문화 2020’ 기획특별전을 지난 5월 19일을 시작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992년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했던 “한국의 청동기문화” 전시 이후 한 세대 만에 열리는 ‘청동기’ 특별전으로, 199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주요 청동기들을 소개하는 전시회입니다. 이에 국립청주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의 개막을 기념하고, 동시에 한국 청동기문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자 한국청동기학회와 함께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분기’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이후, 한국 청동기문화에 대한 연구자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 대상은 청동기뿐만 아니라 동 시기의 토기, 석기, 무덤, 취락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청동기시대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현재 한국 청동기시대의 개시연대와 계보에 대한 중대한 논의는 그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청동기 시기에 대한 구분 역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기시대 전체의 폭과 구분 시기에 대한 명칭들은 아직도 통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기에 대한 설정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으며, ‘초기철기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령식동검문화를 대표하는 송국리 유형을 청동기시대 중기로, 한국식동검문화를 대표하는 괴정동 유형을 청동기시대 후기로 설정하는 연구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견들도 있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과 한국청동기학회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초로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각각의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시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현재 세대의 연구성과가 후속 세대를 위한 연구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표의식도 분명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견무 전 국립중앙박물관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의 주제발표와 충남대학교 박양진 선생님을 비롯한 네 분의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국립청주박물관이 한국청동기학회와 함께 준비한 이번 학술대회가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분기’에 대한 그간의 학계 성과를 정리하여 새로운 세대로 전달하는 디딤돌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과 협조를 주신 김권구 회장님, 조진선 전 회장님, 박영구 총무님을 비롯한 모든 한국청동기학회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국립청주박물관장 신영호

환영사

청동기시대의 설정 자체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독립 후 남북한에서 발굴과 연구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금석병용기시대를 탈피하여 토크의 삼분기법에 의한 청동기시대의 시대설정 후 청동기시대의 시작과 끝 그리고 전이과정, 시기 구분, 사회상과 문화상을 밝히는 것은 독립 후 고고학적 발굴과 학술적 논의를 통하여 남북한의 학계에서 이룩한 새로운 시대의 틀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 속에 지역적 내용을 채우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그동안 우리 학계와 국립박물관이 해온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무문토기시대와의 관계와 같은 청동기시대 명칭문제, 청동기시대 속의 시기 구분방법의 문제, 절대연대의 폭 설정문제, 용어통일 미비 등에서 극복하고 심화연구해야 할 과제들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청주박물관과 한국청동기학회가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분기’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92년 <한국의 청동기 문화>특별전을 개최한 후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후 새롭게 발굴된 청동유물을 집대성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논의하지 못했는데 국립청주박물관이 아주 귀하고 중요한 <한국의 청동기문화 2020>을 개최하고 그와 연계된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이 축적된 새로운 청동기자료의 집적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자료공유와 비교연구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이렇게 훌륭한 전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시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해준 데 대해서 국립청주박물관 신영호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말로 좋은 행사를 해서 청주지역의 문화적 능력이 큼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면서 한편으로는 학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큰 대중적·학술적 관심을 모으면서 집적된 학술자료가 국가사회의 큰 학술자산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데 국립청주박물관 관계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한반도에서 청동기시대의 설정의 발자취와 성찰, 작물유체로 본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분기, 사회경제적 변화로 본 청동기시대 전기와 중기의 분기, 금속유물로 본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의 시기 구분, ‘초기철기시대’ 폐기제안, 일본 야요이시대 분기와 같은 청동기시대 연구의 핵심적 주제이나 아직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주제가 발표되고 토론된다는 점에서 정말로 뜻깊은 학술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표주제와 연구과제의 발표와 논의가 하루에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문제를 공유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동학술대회에 오셔서 귀한 메시지를 주시며 청동기시대 설정의 발자취와 향후과제를 다루는 기조강연을 해주신 이근무 전 국립중앙박물관장님, 한반도의 청동기시대의 분기와 일본열도의 야요이시대의 분기를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게 귀한 연구내용을 발표해주신 후쿠오카대학 다케스에(武末純一) 선생님, 한국청동기시대의 중요 연구 과제들을 발표해주신 김범철 충북대학교 교수님, 조진선 전남대학교 교수님, 김민구 전남대학교 교수님, 박진일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님, 토론좌장을 해주신 박양진 충남대학교 교수님,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황재훈 충남대학교 교수님,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김미경 선생님, 이창희 부산대학교 교수님, 번역과 대독을 맡아 주신 이동관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선생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청중의 관심과 성원도 잊을 수 없는 감동임을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그동안 주목할 만한 특별전과 학술행사를 학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해온 데 대해 한국청동기학회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학계인사들이 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국립청주박물관과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년 5월

한국청동기학회 회장 김 권 구

학술논문

韓半島 青銅器時代 設定의 발자취와 研究課題	013
작물유체로 본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사회	035
사회경제적 변화로 본 청동기시대 전기와 중기의 분기	053
금속유물로 본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시기 구분	071
‘초기철기시대’ 폐기 제안	105
일본 야요이시대의 분기	129

토론문

「사회경제적 변화로 본 청동기시대 전·중기 분기」에 대한 토론문	163
「작물유체로 본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사회」에 대한 토론문	165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분기」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167
「‘초기철기시대’ 폐기 제안」에 대한 토론문	169

주제 발표

기조강연 | 韓半島 靑銅器時代 設定의 발자취와 研究課題
李健茂 前 國立中央博物館長

제1발표 | 作物유체로 본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사회
김민구 전남대학교

제2발표 | 社會經濟的 變化로 본 청동기시대 前·中期 分期
金範哲 충북대학교

제3발표 | 금속유물로 본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시기 구분
조진선 전남대학교

제4발표 | '초기철기시대' 폐기 제안
박진일 국립청주박물관

제5발표 | 일본 야요이시대의 분기
다케스에 준이치[武末 純一] 후쿠오카[福岡]대학



기조강연

韓半島 青銅器時代 設定의 발자취와 研究課題

李健茂

前 國立中央博物館長



韓半島 青銅器時代 設定의 발자취와 研究課題

李健茂 前 國立中央博物館長

1.

필자에게 주어진 강의 主題는 ‘韓半島 青銅器時代 設定’에 관한 것이다. 이미 學界에서 청동기시대라는 用語를 사용해온 지가 오래되었고, 國定教科書(국사)에도 청동기시대에 대한 內容이 실려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청동기시대의 설정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다소 어색한 이야기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 設定문제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 만족할만한 結果에 이르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는 청동기시대 설정에 대한 발자취라고 할까 또는 先學들의 기존 청동기시대 설정에 대한 見解를 살펴보고, 向後 研究課題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략하게 披瀝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손으로 考古學 調査와 研究가 시작된 것은 日帝로부터 光復이 된 以後라고 할 수 있으니 오늘날까지 그 歷史가 만 75년이 되었다. 그동안 韓國考古學의 각 부문에서 많은 調査가 進行되어 왔지만, 특히 刮目할만한 成果가 이루어진 것은 青銅器時代 分野가 아닌가 한다. 初期에는 과거 日本 研究者들이 主張한 金屬器와 石器가 함께 사용된 시기로서의 金石竝用期 存在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후에도 1960년대 북한 研究者들이 청동기시대를 설정할 때까지는 청동기시대라는 用語는 學界에서 거의 使用되지 않았다. 이후 많은 유적이 조사되고 청동기시대 遺物들이 整理되면서 청동기시대라는 用語가 定着이 되고, 그 文化內容들도 많이 밝혀지게 되었다. 청동기시대 文化에 대한 先學들의 研究는 調査도 극히 적었고, 考古學 人口도 몇 안 되는 劣惡한 環境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척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研究에 있어 必須資料인 北韓과 中國 調査報告書도 직접 접하기가 어려워 日本 研究者들의 論文을 보고 間接的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開發에 따른 大單位·大規模 유적 發掘調査의 횟수가 많아지고, 특히 그중에서도 낮은 野山이 調査對象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청동기시대의 住居址뿐만 아니라 聚落의 全貌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발견되었다. 때문에 청동기시대 文化에 대한 研究가 多樣해지고 發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더욱 크게 늘어 研究者들이 미처 資料를 消化하기 힘들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遺蹟과 遺物이 發掘되었다. 분석 對象의 유적과 유물이 늘면서 자연히 靑銅器時代 關聯 연구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또 先史時代 研究者들이 청동기시대가 新石器時代와 鐵器時代 사이에 위치한 關係로 상호 文化的으로 連結되어 있는 청동기시대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의 始作이 어느 시점부터인지, 또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의 轉換時點이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이 論點으로 浮刻되는 경우가 많았다. 石器나 靑銅器 등의 유물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연구가 점차 발굴된 住居址와 墓制의 構造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이어 조사범위가 커지면서 聚落과 社會 構造 등 小文化 중심으로 進行되었다. 그러나 한 시대 문화의 방대한 全體를 연구하고 또 그것의 核心을 說明하는 작업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文化는 살아있는 生物과 같은 것이고, 한 地域이나 한 民族에만 固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生成, 發展, 衰退, 消滅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外的 要因(衝擊, 刺戟, 模倣)과 內的 要因(發見, 發明)에 의해 變遷을 이루기 때문이다. 청동기시대의 문화 역시 마찬가지로 타 문화와의 接觸에 의한 變遷, 同化, 排除, 交流, 傳播 등에 의해 많은 可變性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變하지 않고 持續되어 내려온 要素도 없지는 않다. 이러한 각 문화요소를 잘 구분하여 그 實體를 把握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設定이나 時期區分과 關聯하여서도 새로운 資料에 의해 多樣한 의견들이 持續적으로 나오고 있다. 고고학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現象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多樣한 學界의 意見이 어느 시점에서 한 번쯤 論議를 거쳐 整理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學問上의 主張이나 理論體系인 學說은 研究者의 生命과 같은 것이라, 學界에서 整理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合理的 論理와 背馳되는 경우에는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學問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무리 하찮은 내용같이 보이더라도 이러한 研究들을 바탕으로 發展해 온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設定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청동기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청동기시대라는 용어가 定着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過程을 거쳐 왔다. 먼저 그동안 청동기시대 設定에 대한 先學들의 見解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고고학연구에서 時代設定이 지니는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이다. 日帝強占期에는 우리나라의 史前時代에 청동기시대는 없고 대신 石器와 銅·鐵器를 함께 사용하던 시기인 金石併用期(金石併用時代)가 있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石器時代 다음에 바로 金石併用期로 넘어갔다고 본 것이다.

일본인 연구자 藤田亮策은 그의 글「朝鮮古代文化」(藤田亮策, 1934, 1948)에서 ‘석기시대 조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점, 전 국토에 대한 종합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등의 但書を 두었지만 ‘朝鮮의 대부분은 西曆紀元後에 이르러도 아직은 石器時代의 末期狀態를 계속, 적어도 제2世紀 시작 무렵까지는 金石併用期 狀態에 있었다.’고 논하고, 이어서「朝鮮の石器時代」(藤田亮策, 1942, 1948)에서는 朝鮮考古學의 시대를 石器時代, 金石併用時代, 樂浪帶方時代, 三國時代의 四期로 나누고 있다. 調査 不充分이라는 理由를 달았지만, 이러한 視覺은 다분히 內鮮一體라는 日帝의 政策에 따라 한국古代文化를 日本의 그것과 同一視¹⁾하려고 하는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본의 彌生時代에 靑銅器와 鐵器, 石器가 동시에 出現하는 狀況과 같다고 보려 했던 생각이 더해진 것일 수도 있다.

다음에는 光復 以後의 時代設定에 대하여 北韓과 南韓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北韓

광복 후 청동기시대 설정에 대해 처음 論議가 이루어진 것은 1956년에 북한학계에서 가진 學術討論會(학계소식, 1957)에서였다. 여기에서는 정백운 연구사가 자신이 쓴 論文을 報告하고 도유호 원사를 비롯한 8명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토론을 벌였다. 討論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① 초기 금속사용기가 종래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올라가 기원전 수 세기를 내려오지 않는다. ② 청동원료의 희귀함이 기본적인 제약성으로 되었지만 교역에 의한 靑銅原料의 獲得이 청동사용기의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③ 청동사용을 청동기시대로 보고 청동기시대 하한을 기원전 3-2세기까지로 보는 견해와 기원후 5세기경까지로 보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④ 청동기가 생산도구로서 지배적 역할을 하지 못해 청동기시대 설정을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⑤ 원류문제는 조선독자설과 서북계통 청동문화 영향을 토대로 한 독자적 발전설, 중국계통과 서북계통 양자 영향을 받았다는 중국계-서북계 양자 영향설 등이 제기되었다.

광복 후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이 흘렀을 뿐인데, 대단한 學術的 成果를 거두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동기시대를 설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 걸 보면 問題提起와 討論이 아주 眞摯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진다.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청동기시대 설정에 대한 本格的인 試圖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이어서 1958년에는 정백운이 「강남 원암리 원시유적 발굴 보고서」(정백운, 1958)에서 ‘이 각형토기 문화층의 웃(위)층에는 기와와 벽돌을 쓴 철기시대층이 있는 만큼 이 문화의 특징을 석기시대와 철기시대의 사이, 정확히는 청동기시대로 단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 大和民族의 骨肉에 多量의 半島사람들의 피가 混淆.. 운운

1958년에는 1956년의 토론회 관련 자료집이 발간되고, 이어 이에 관한 몇 사람의 글이 나오게 된다(김용간, 황기덕, 김재효, 1958).

김용간은 「금석 병용기와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일인 학자의 金石併用期라는 술어(용어)가 청동기 시대 以前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用語의 잘못된 사용을 批判하였다. 또 磨製石器들의 발달한 형태를 지닌 것들 중에는 **청동제품을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많고 실제로 석상분, 집 자리 등에서 청동단추나 끌 등의 靑銅製品이 磨製石器들과 반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황기덕은 「조선 청동기 사용기의 존부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역시 일인 학자들이 <金石併用期>의 概念을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指摘하였다. 또 우리와 隣接한 大陸에 철기문화에 앞서 청동기시대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지배하였다는 사실과 우리나라 출토 청동기의 종류와 수량이 빈약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支石墓나 石箱墳에서 鐵器가 나온 예가 없음을 들어 靑銅器 使用期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특히 인접지역의 緩遠靑銅器文化의 영향과 중국 <管子>에 나타나는 交易 기록으로 보아, 우리의 청동기문화가 늦어도 기원전 7세기경부터 시작하였으며 철기문화는 龍淵洞유적의 예를 들어 戰國末(기원전4-3세기)에 나타나 기원1세기경(金海貝塚)에는 韓半島 南端에까지 普及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原料의 制約性과 鐵器文化의 급속한 到來 등이 청동기문화 발전에 特殊 條件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당히 合理的인 推論으로 청동기시대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努力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재효는 「우리나라 초기 금속 문화의 원류에 대한 몇 가지 문제」라는 글에서 **‘세형동검과 협봉동모와 같은 것은 돌렌, 석상분과 함께 그것이 조선에서 전형적인 발전을 보았다는 점에서 철기문화 전래 이전 석기시대 말기에 청동 문화의 한 시기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우리의 초기 금속문화가 北方系 文化와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어 샤머니즘, 토tem 숭배의 物質的 傍證 資料를 提供하여 주는 점에서 重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原料의 制約性으로 말미암아 生産 道具로서 주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 청동기 시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社會經濟的 構成을 가져올 만한 生産力의 變革을 일으킨 것은 鐵器라고 본 것이다. 또 明刀錢遺蹟출토 鐵器와 明刀錢은 분묘유적의 부장품이 아니고 隱匿遺物로 보았고, 청동유물에 대한 化學分析의 必要性을 강조하였다. 北方系 유물과의 關聯性을 強調하고 청동기의 獨自의 發展을 認定하였지만, 原料의 제약성 등을 들어 청동기시대를 설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당시의 社會 霧圍氣 속에서 이러한 主張을 펼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이어서 도유호는 「조선 원시 문화의 년대 추정을 위한 시도」(도유호, 1958)에서 ‘조선에 청동기시대가 없었다는 말은 황당한 말이다. 금탄리 출토의 청동제 <끌>은 노동도구로서의 청동기로서 일제

어용학자들의 부당한 말을 반박하는 하나의 예다.’라고 논하면서 청동기시대는 巨石文化 時代와 대체로 符合하는 것으로서 서기전 7-3세기라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였다. 또 鐵器時代는 北中國 계통의 인간의 來住와 관련된 것으로 서기전 3세기경에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청동기시대의 年代와 鐵器時代의 始作을 논한 첫 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이후 도유호는 우리나라 最初의 考古學概說書인 『조선 원시 고고학』(도유호, 1960)에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區分하여 설명하면서, **‘고고학에서는 그 다루는 자료가 유물인 만큼 일반적으로 일하는 연장(도구)을 만든 자료 여하에 따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크게 구분한다. 조선고고학 상의 시대 구분도 조선의 실정에 맞는 방향에서 할 것임은 물론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김용간의 「美松里遺跡의 考古學上의 位置-年代論を中心として」(김용간, 1963), 김용간·황기덕의 「조선의 청동기시대」(김용간·황기덕, 1967), 황기덕의 「두만강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황기덕, 1973a), 「최근 새로 알려진 비파형단검과 세형동검 관계의 유적 유물」(황기덕, 1973b) 등 여러 연구자에 의해 修正을 가해오면서 靑銅器時代 設定과 時代區分 問題를 整理해 왔다. 1984년 황기덕은 『조선의 청동기시대』(황기덕, 1984)를 통해 청동기시대문화의 特徵과 時期區分에 대해 論하면서 청동기시대는 原始共同體가 崩壞되고 階級社會에로 移行하던 시기로 보았다. 또한 **‘청동기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청동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있고, 청동기시대는 청동기를 쓰기 시작한 때로부터 철기를 쓰기 시작한 때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고 定義하였다. 또 기원전 2000년기에 들어서면서 청동기시대문화가 創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합리적인 主張만은 아니지만 北韓의 靑銅器時代에 全般에 대해 정리한 最初의 概說書로서 그 意味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1959년에는 ‘우리나라 고대종족과 국가발생’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갖게 되면서 古朝鮮에 대한 本格的인 研究에 들어가게 되었다. 文獻資料와 考古學資料를 有機的으로 關聯시켜 奴隸制社會 存在有無를 把握하려고 한 첫 試圖로서 評價된다. 전주농은 토광묘 출토유물에서 階級分化 過程이 明確하게 觀察된다고 하였고, 土壙墓는 支石墓가 사라지면서 盛行한 서기전 3-2세기의 유적이라고 보았다(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0a). 1960년에는 ‘고고학상으로 본 고조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古朝鮮의 國家的 性格에 대해 論議가 이루어졌다. 전주농은 철기시대의 **토광묘사회가 노예소유자적 국가인 고조선**이라고 주장(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0b)하였고, 이어서 정찬영도 **‘…유물상으로 볼 때 고조선은 호전적 지배 계급과 농촌공동체의 피착취 계급이 존재했던 노예소유자 사회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정찬영, 1960). 討論을 통해 考古學 分野의 解析도 社會經濟 構造와 관련된 쪽으로 方向을 틀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여러 차례의 修訂을 거쳐 지금은 民族史 再構成 작업에 있어 원시사회(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노예사회(고조선·부여·진국), 봉건사회(삼국시대)로 체계화하고 있다. 古朝鮮 社

會는 고조선 전기(서기전 1000년대 전반기)와 고조선 후기(서기전 1000년대 후반기)로 구분하였으며, 고조선 전기는 發展된 靑銅器文化로 고조선 후기를 鐵器文化로 보고 있다. 『조선유적유물도감 1』(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에서는 원시무리시기(구석기시대 전기) - 모계씨족공동체(구석기시대 후기) - 발전된 모계씨족공동체(신석기시대) - **부계씨족공동체시기(청동기시대)** - 고조선과 그 소국들(**청동기시대 후기, 철기시대**)로 나누고 있다. 즉 靑銅器時代의 始作은 기원전 2천년기 전반기로 보고 있으며,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가 무문토기로 바뀌어 가는 시기부터 鐵器文化가 始作되는 때까지를 청동기시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청동기시대는 前期와 後期(고조선시대로 들어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앞선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문화를 繼承하고 發展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하나의 視覺은 **‘대동강문화’**(李淳鎭外, 2001)라는 概念을 세워 대동강유역이 조선청동기문화의 發祥地이고 中心地로 보는 점이다. 또 遼東, 吉林 등 현재는 中國領土에 包含된 관련 유적들을 모두 우리의 청동기시대 空間範圍로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視覺들은 다분히 歷史的 正統性과 主體性을 強調하려는데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現 領土的 概念을 넘어서 넓게 살펴보려는 努力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이들의 주장 특히 時代區分, 年代, 古朝鮮과의 連結 問題 역시 모두 合理的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現 段階에서는 考古學的으로 考察에 限界가 있다.

2) 南韓

光復 後 南韓학계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靑銅器時代를 設定하지 못하였다. 1959년에 간행된 「韓國史 古代篇」에도 ‘史前文化’ 時代區分에 石器時代와 金石併用期라는 용어를 사용해 藤田亮策의 編年과 文化觀을 踏襲할 정도로 考古學分野는 微弱한 狀態에 놓여 있었다.

1966년에 南韓에서는 처음 刊行된 『韓國考古學概論』(金元龍, 1966)에서 金元龍은 **‘과거 일본인 학자들은 이 특수한 동철시기를 金屬併用期라고 불렀는데, ... 우리의 경우에는 정확한 사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여 金屬併用期를 否定하였다. 또한 **‘이 시대에 청동시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南韓지역에도 존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北韓지역에서만 鐵器盛期에 앞서 일시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南韓지역의 청동기시대는 認定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1972년 金廷鶴은 『韓國의 考古學』(金廷鶴, 1972)에서 舊石器時代, 新石器時代, 靑銅器時代, 三國時代로 區分하였으며, 新石器時代는 幾何文土器文化로 靑銅器時代는 無文土器文化로 說明하였다. 靑銅器時代의 上限은 新岩里遺蹟 出土 청동단추 등을 근거로 서기전 1000년경으로 보고, 下限은 鐵器가 나오지만 靑銅器가 아직도 主流를 이루고 있는 西紀前 1세기경으로 보았다. 청동기유물과 무문토

기로 대표되는 文化樣相으로 把握하여 設定한 것이다.

1973년 金元龍은 『韓國考古學概論』을 改稿한 『韓國考古學概說』(金元龍, 1973)을 통해 청동기시대에 대한 내용을 一部 修正하게 된다. **‘북한지역에서 철기시대에 앞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발견·보고 되고, 청동기시대의 존재가 주장되게 되었다.’**라고 하여 北韓地域의 細形銅劍이 아닌 銅製品(銅刀子, 단추, 扇形銅斧, 銅鑿 등)을 내는 일련의 유적과 유물들이 **‘철기단계보다 시간적으로 앞서고 있었음은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여 여전히 南韓地域에서의 청동기시대에 대해서는 確信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기전 4-3세기경에 鐵器文化가 靑銅文化와 混合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고 보고 韓國式銅劍文化 內容을 **‘初期鐵器文化’**속에 넣었다.

1975년 尹武炳은 「無文土器 型式分類試攷」(尹武炳, 1975)에서 **‘무문토기문화를 간단하게 청동기시대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靑銅器의 存在가 제대로 確認되지 않은, 또한 相對的으로 連結이 不可能한 無文土器 遺蹟들까지 靑銅器時代로 看做하는 연구자들의 安易한 態度를 批判한 것이다. 그의 主張이 맞든 틀리든 간에, 성급하게 발표하고 또 修正하는 것보다는 慎重하고 學究的인 態度를 強調한 점에서 크게 評價할 만하다고 하겠다.

1976년 中央日報의 『우리의 歷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金元龍, 1976) 토론회에서 金元龍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즉 技術史的인 개념인 ‘툼센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一般史的인 분류의 社會, 經濟, 宗教 등에 관한 內容(큰 聚落의 존재, 栽稻를 포함한 발달된 農耕의 존재, 豐饒神 信仰을 시사하는 母神像의 존재, 分業과 交易의 존재, 靑銅鑄造工場의 遍在 등)이 다소 未洽하더라도 鑄造開始로서 劃線하기로 하지만, 적어도 技術面에서 청동기의 自家 生産은 確認되어야 청동기시대를 設定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 토론자의 한사람인 尹武炳은 無文土器의 일부(初期)는 新石器時代여서 無文土器를 靑銅器時代라고 一括할 수는 없고 支石墓도 新石器, 즉 靑銅器 以前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金元龍은 **‘그것은 學說이고 그것이 현재의 일반적 定說을 變更·訂正할만한 積極的이고 完璧한 資料的 基盤으로 支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現在의 定說도 完璧 無缺한 根據가 있는 것은 아니나 現 段階로서는 優越的 存在로 認定하기로 하였다.’**고 結論을 내렸다. 아마도 1974년에 松菊里 石棺墓유적과 傳 尙州 出土 遼寧式銅劍이 確認되는 등 靑銅器資料가 늘어나고 北韓의 永興 유적에서 出土된 도끼 거푸집과 靈岩 出土 거푸집 등으로 보아 現地 製作의 根據로 삼을 수 있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어서 1977년 「韓國 考古學의 現實」(金元龍·韓炳三, 1977)이라는 주제를 놓고 韓炳三과의 대담에서 金元龍은 **‘청동기시대는 기본적인 관념부터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청동기를 주조했을 단계부터가 엄밀히 말하자면 청동기시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 生活道具의 主流가 청동기로 만들어졌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여 靑銅器의 現地 製作을 強調하고 있다.

尹武炳은 같은 책의 「韓國考古學界의 方向」(尹武炳, 1977)이라는 글에서 ‘一般的으로 알기로는 우리나라 靑銅器時代의 開始는 無文土器文化의 傳播와 때를 같이하고 있다고 理解하고 있다. 最近 몇 年 동안에 發表된 主要한 學術 著述과 論文들을 보면 대개가 이러한 見解를 支持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대로 많은 歷史的 著作이나 심지어는 國定教科書의 編纂에까지 反映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無文土器文化의 起源이나 그 成立科程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그 段階가 遙遠하다는 것이 우리 學界의 실정임을 여기에 밝혀 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여전히 批判的인 立場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1986년의 『韓國考古學概說』의 第三版에서 金元龍은 ‘해방 직후 일본에서는 (金石併用期를) 初期鐵器時代라는 이름으로 이를 고치려고 하였고(有光教一, 1965), 그것 역시 청동기시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청동기시대의 존재가 확인되게 되었다.’라고 하여 청동기시대를 인정하였다. 또 신암리유적 II 층 출토 청동도자와 단추를 들어 무문토기와 처음부터 공존하고 있다고 하며 ‘학계 일부에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폐토기(무문토기)시대 곧 청동기시대라고 해도 잘못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라 하였다. 이후 연구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이러한 金元龍의 생각을 좇아서 나아갔다.

2007년에 한국고고학회에서 펴낸 『한국고고학강의』(한국고고학회, 2007)를 보면 선사시대를 舊石器時代, 新石器時代, 靑銅器時代, 初期鐵器時代로 구분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개관에서 韓半島의 靑銅器時代는 ① 농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② 무문토기와 마제석기가 널리 사용되며 ③ 사회복합도가 증가한 시기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청동기시대 유물은 드물게 발견되며, 남한지역에서는 늦게 보급되어 문화단계 설정은 무문토기의 등장과 변화양상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여 金元龍의 時代區分과는 큰 差異를 보이지 않는다. 청동기시대의 시작을 1980년대에는 서기전 10세기, 1990년대는 서기전 13세기, 최근에는 서기전 15세기로 보고자 하는 學說도 提起되었다고 하여 청동기시대의 始作을 점점 이르게 보는 傾向을 이야기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終末에 대해서는 細形銅劍과 粘土帶土器의 登場과 더불어 初期鐵器時代가 始作한다는 設定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였고, 그 시작도 西紀前 300년에서 더 이른 시기로 溯及되었다고 하였다.

이후에는 1980년대에 조사된 미사리유적 突帶文土器에 대한 關心과 잇따른 關聯 遺蹟 調査로 無文土器時代 早期 設定이 提起된 이래, 청동기시대 설정보다는 時期區分과 編年 중심으로 연구가 進行되었다(安在晧, 2010/ 韓國靑銅器學會 編, 2013/ 安在晧, 2018). 한편 2017년에는 靑銅器文化의 새로운 認識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고고학회대회를 통해 민족·종족문제와 함께 古朝鮮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하였다(한국고고학회, 2017).

3.

이상에서 光復 후의 청동기시대 설정과 관련하여 몇몇 關聯 資料를 一瞥하였다. 1950-60년대에는 북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日帝의 金石併用期論의 矛盾에 대한 反撥로 청동기시대 確認 作業과 연구가 활발히 進行되었으며, 1984년 황기덕의 『조선의 청동기시대』를 起點으로 整理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 民族史 再構成事業에서는 소련의 影響으로 發展段階의 時代區分을 채택하여 原始社會(前階級社會)와 奴隸社會(階級社會)로 나누고 古朝鮮 前期를 發展된 靑銅器文化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南韓에서는 考古學이 늦게 出發한 탓에 1970년대에 들어서기까지는 研究者와 調査의 不足으로 큰 進展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金元龍, 尹武炳을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이 靑銅器時代 設定에 關心을 쏟아 몇 차례 論議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여전히 踏步狀態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데에는 자유로운 討論에 따른 正當한 批評과 合理的인 內容을 受容하고 이를 받아들여려고 하는 社會的인 氛圍氣가 造成되지 않은 탓도 있고, 基本的인 問題부터 解決하고 나아가려는 學術討論 보다는 緊急 救濟發掘과 徒弟式 教育에 급급했던 學界의 氛圍氣도 作用하였다고 생각한다.

韓半島 靑銅器時代를 논할 때 가장 먼저 擡頭되는 問題는 時代 概念 및 時期의 區分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의 각 研究者의 時代概念에 관한 見解와 年代觀 그리고 또 時期의 區分에 관한 內容이 相互 差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隣近인 中國은 과거에 舊石器時代, 新石器時代, 靑銅器時代 등으로 구분하였다가 지금은 靑銅器時代가 夏, 商에서 戰國時代까지의 歷史時代로 들어가 있다(郭宝鈞, 1978). 그러나 아직도 中原 이외의 地域文化를 說明할 때는 靑銅器時代라는 용어를 使用하기도 한다. 日本은 先史 時代를 舊石器時代, 繩文時代, 弥生時代, 古墳時代로 나누고 있다. 反面 韓國의 境遇에는 舊石器時代, 新石器時代, 靑銅器時代, 初期鐵器時代로 나누고 있는 것이 一般的이다. 톱센의 技術史的인 分類에 바탕을 둔 時代區分이다. 時代區分은 나라마다 差異를 보이고 있다. 三時代法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은 나라마다 文化發展段階가 다르기 때문에 單線的인 時代區分의 意味가 없다. 또 하나는 꼭 그러한 段階를 거치지 않았거나, 이미 歷史段階와 連結이 되어 있거나, 또는 發展段階的 時代區分(前 階級社會, 階級社會, 社會主義的階級社會), 文化段階的 時代區分 등이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江上波夫監修, 1980).

그러나 우리 學界의 時代區分은 몇 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이는 無文土器時代의 始作과 靑銅器時代의 始作을 同一하게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과 靑銅器時代의 終末과 關聯된 初期鐵器時代의 初期라는 概念이 適合한 것인지, 그리고 鐵器의 出現이 粘土帶土器文化의 流入 또는 始作과 軌를 같이 하는가의 與否 등 過去에 提起되었던 問題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一部 研究者들을 包含해 日本 學者 중에서는 土器로서 明確히 區分되는 時代와 時期를 選好해 ‘靑銅器時代’

대신 ‘無文土器時代’라는用語로 代替해 使用하거나, 混用해서 쓰기도 한다. 靑銅器時代를 無文土器로 代表되는 새로운 文化樣相으로 把握해서 設定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靑銅器의 使用이 最小限의 條件이 되어야 한다고 볼 것인지는 單純한 用語 上의 問題가 아니라 考古學에서 지니는 概念 上의 問題다 매우 重要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先學들은 靑銅器時代를 設定하기 위해 그 概念부터 뚜렷이 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황기덕은 청동기시대의 가장 本質的인 特徵은 청동기를 生産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있고, 청동기시대는 청동기를 쓰기 始作한 때로부터 철기를 쓰기 始作한 때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고 定義하였고, 尹武炳은 無文土器文化를 간단하게 靑銅器時代로 看做하는 것은 너무나 安易한 態度라고 하였으며, 金元龍은 靑銅器의 自家生産은 靑銅器段階 設定의 最小限의 條件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모두 靑銅器의 存在가 청동기시대를 設定하는 데 있어 가장 基本的인 條件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며, 이를 설정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 온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靑銅器보다 無文土器가 代表性이 더 크다는 認識과 無文土器文化를 靑銅器文化를 包含하는 上位의 概念으로 보고 ‘無文土器時代’라는 용어가 ‘靑銅器時代’라는 용어보다 더 適合하다고 보는 見解도 나와 있고, 無文土器時代가 西洋에서의 概念과 符合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資料들을 통해 力動的인 社會를 想定할 수 있기 때문에 靑銅器時代로 부를 수 있다는 見解도 있다. 또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 研究者들은 대부분 無文土器時代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土器가 時代 또는 時期區分의 重要 指標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土器보다는 靑銅器나 鐵器와 같은 利器의 使用을 時代區分의 重要한 基準으로 보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고 常識的인 것이다. 無文土器가 靑銅器보다 더 時代를 잘 反映할 수 있는 重要한 것이라면 굳이 ‘靑銅器’라는 名稱을 붙여 靑銅器時代라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無文土器時代라는用語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櫛文土器時代와 無文土器時代의 區分은 막연하게 繩文時代와 彌生時代に 對應하는 日本 考古學 傳統에 뿌리를 둔 概念이거나 그러한 感覺이 存在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宮本一夫, 2010) 이를 피하기 위해 名目 上, 便宜 上으로만 청동기시대라는 용어로 代替해 사용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겠다. 靑銅器가 사용되는 時期가 存在하는데도 굳이 無文土器時代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靑銅器時代에 대한 筆者의 생각 역시 先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靑銅器가 出現해서 鐵器가 出現하기 까지를 靑銅器時代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靑銅器가 現地 製作되지 않았거나 또는 武器나 工具와 같은 利器가 使用되지 않았으면 靑銅器時代로 認定하기 어렵다고 보는 見解와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설령 그것이 輸入品이고 조그마한 小品이라고 할지라도 당시 靑銅器人의 靑銅에 대한 認知, 즉 刺戟을 받아들이고, 貯藏하고 引出하는 精神過程이 重要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든 차일드의 지적대로 輸入品 역시 定期的인 交易體系 또는 物物交換體系를 통해 다른 地域이나 다른 民族에게서 確保해야 하기 때문이다. 靑銅器의 使用은 勞動의 專門化 또는 正規的

인 對外交易의 始作을 意味하기 때문에 經濟構造에 있어서 急激한 變化의 徵兆를 띠는 것이다(김권구 옮김, 2009). 결국 靑銅器는 科學에 接近하고 눈을 뜨게 한 것이며 交易를 통해 얻었던 採鑛을 통해 얻었던 간에 이를 獲得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이 시스템에 運用되는 食糧生産에 從事하지 않는 專門人力에 대해 供給해야 할 剩餘食糧 확보가 必要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점차 組織化된 社會로 進入하게 되었을 것이므로 靑銅器의 所有와 使用 역시 큰 意味를 지닐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의 靑銅器時代이든 간에 石器가 利器의 主體가 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의 경우도 靑銅器는 초기에 小形 裝身具로 始作해 점차 石劍, 石鏃과 같은 石製 武器를 서서히 代替하였다고 생각한다. 韓國學界에서 靑銅器時代라는用語를 使用한 지가 오래 되었다. 靑銅器 使用과 製作에 관한 證據가 確認된 지 오래며, 鐵器使用과도 뚜렷이 區分되고 있어 技術史的인 分類의 適用에 전혀 무리가 없다. 近者에는 大規模 據點聚落²⁾, 差別化된 巨大한 墓域, 推定神殿, 木柵과 環濠 등의 防禦施設도 確認되었고, 農耕과 관련된 灌溉施設, 儀禮나 靑銅器 製作과 같은 專門分野에 의한 行爲나 分業 등의 要素들이 關聯된 複合的인 社會에 대한 內容이 밝혀져 未洽하기는 하지만 一般史的인 면에서도 靑銅器時代의 設定은 어느 정도 可能하다고 하겠다.

한반도 내에서의 청동기시대의 始作은 靑銅刀子와 銅泡가 출토된 義州 新岩里遺蹟 第4文化層(第3地點 2文化層의 時期)을 標準遺蹟으로 삼아 論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金元龍은 遼寧省 于家村 上層 탄소연대 B.C. 1280과 上馬石 上層 탄소연대 B.C. 1180년을 감안해 B.C. 1000년쯤으로 보았다.(金元龍, 1986) 그러나 출토된 突帶文小壺 등의 유물이 중국 廟后山 文化類型 및 山城子遺蹟 B동 11호묘와 類似한 점과 雙坨子 3기 문화와 관련해서 참고해 보면, 그 유적들의 C14 연대가 B,C, 1500-1400년 사이에 있고, 이와 함께 殷墟 婦好墓 출토의 刀子 및 銅泡와의 비교를 통해 中國 商代 後期前半, 즉 西紀前 13世紀 末에서 西紀前 12世紀 初 사이로 볼 수 있게 되었다(古澤義久, 2013). 잠정적으로 靑銅器時代의 始作을 西紀前 15세기 以後의 2000년기 後半에 두고, AMS年代가 아닌 相對年代를 통한 上限 年代는 ‘年代를 파악하기 좋은 好資料(婦好墓 出土品)’를 통해 적어도 서기전 13세기 말에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下限은 鐵器가 출현하는 서기전 3세기로 볼 수 있겠다.

靑銅器時代의 時期區分은 한국청동기학회에서 學術大會를 통해 論議된 바가 있고(한국청동기학회, 2007), 또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靑銅器時代는 대체로 早期(漠沙里類型), 前期(可樂洞·驛三洞·欣岩里類型), 中期(松菊里·泉田里·檢丹里類型), 後期(水石里類型)로 나누고 있다(韓國靑銅器學會 編, 2013). 또는 粘土帶土器文化類型인 水石里類型을 靑銅器時代에서 除外해서 初期鐵器時代에 包含시키고 早期(漠沙里類型), 前期(可樂洞·驛三洞·欣岩里類型), 後期(松菊里·泉田里·檢丹里類型)로 나누기도 한다. 時期區分은 研究者들 사이에서 자주 바뀌곤 하는데 가장 큰 理由는 土器의 文樣

2) 『梁書』新羅傳에 ‘其俗, 呼城曰健牟羅’라는 글이 있어, 城을 큰 마을(건모라) 즉 大村大邑으로 볼 수 있겠다(李丙燾, 1959, 『韓國史』古代篇). 청동기시대의 중심취락 역시 서양의 城砦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無文土器는 文樣이 多樣하지도 않고 器型의 變遷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突帶文, 短斜線文, 孔列文(突刺文), 口脣部刻目文 등의 文樣屬性에만 主力한 결과이다. 탄소14연대의 歷年編年을 통한 早·前·中·後期의 時期區分도 이루어졌다(李昌熙, 2016). 最近에는 무문토기를 중심으로 한 早期(一周式 刻目突帶文土器), 前期(遼東系二重口緣土器, 節狀式 突帶文土器, 口脣刻目文土器, 角形土器, 美松里式土器), 中期(孔列文土器), 後期(松菊里型土器, 晚期(粘土帶土器)의 時期區分과 文化·社會相 變遷에 따른 南韓의 時期區分을 前·中·後·晩期로 보자는 새로운 試論(安在晧, 2020)이 나오기도 하여 進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時期區分은 유물복합체(assemblage) 概念인 類型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역시 土器의 屬性이 主가 되어 있으며, 대부분 南韓地域 중심으로 이루어져 韓半島 全體를 아우를 수 없다는 限界를 지니고 있다. 또 類型分類에서 그 變化를 설명하는 解釋이 不足하다는 점이 있다. 실제로 北韓地域의 청동기시대에 이러한 類型들을 대입해서 時期區분이 可能한가 하는 점도 疑問이 든다. 주지하다시피 北韓지역의 大同江流域은 팽이형토기문화 중심으로 되어 있고, 鴨綠江流域을 중심으로 한 平北 일대에는 당산-조공가유형과 突帶文土器, 공귀리형토기, 미송리형토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豆滿江流域에는 오동형토기와 서포항유적과 웅기 송평동유적 등에서 보이는 심발형토기, 적색마연토기 등이, 함남 元山灣 일대에는 孔列文土器 등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또 수석리유형의 粘土帶土器는 出土例가 報告되어 있지 않으며 黑色土器長頸壺만 보일 뿐이다. 無文土器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考古學에서도 南北分斷이 있는 셈이다. 특히 팽이형토기문화 傳統이 강한 平南, 黃海 일대는 韓國式銅劍文化期에 들어와서도 팽이형토기(후기형식)와 有莖式石劍이 출토되고 있어(李淳鎭 外, 2001) 더욱 問題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함경도지역의 경우도 土器로는 時期區분이 어려운 實情이다. 地域色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별 編年을 시도한 뒤에 統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청동기시대 早期, 前期에 해당하는 北韓地域의 無文土器에 대해서는 地域別 編年과 相互 並行關係를 통한 編年이 試圖되어(裴眞晟, 2006) 큰 도움이 되었으나, 아직 각 時期의 全般적인 編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共伴 遺物이나 遺構 등 遺物複合體를 통한 分類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全體 文化相을 들여다보고 큰 틀을 짰 다음에 시기를 다시 細分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청동기시대의 3期 區분이 妥當하다면 前·中·後期로 區分하는 것이 좋겠고, 4期の 區분이 必要하다면 早·前·中·後期 보다는 早, 前, 後, 晩期로 구분하는 것이 用語 사용상 좋다고 생각한다. 筆者는 靑銅器時代 早期設定이 可能하다고 보는 立場이라 4기로 區分하였으면 한다(李健茂, 2007). 靑銅器時代를 早·前·後·晩(粘土帶土器文化 內容 중 鐵器가 使用되지 않은 時期)의 4期로 나누고, 初期鐵器時代는 粘土帶土器文化 內容 중 鐵器가 使用된 時期 以後에 限定해서 鐵器時代로 부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³⁾.

3) '해방 직후 일본에서는 初期鐵器時代라는 이름으로 이를 고치려 하였고...'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 第三版 一志社, 有光教一, 1965, 「朝鮮初期金屬器文化に關する新資料の紹介と考察」, 『史林』 48-2
'박사학위 논문에서인가 「초기철기시대」라는 말을 쓴 사람도 그 양반이었지요?(金元龍 韓炳三, 1977, 「韓國 考古學的 現實」, 『敎養으로서의 考古學』,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考古學科, p.192)

鐵器가 아예 없는 槐亭洞, 南城里, 東西里, 船堤里, 九鳳里遺蹟 등의 時期까지도 初期鐵器時代로 부르는 것은 研究者들의 便宜主義적인 發想이라 適切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中期(Middle), 後期·末期(Late) 등의 區分이 없는 狀態에서 初期(Early)라는 用語의 사용도 曖昧하고 無意味하다고 하겠다.

靑銅器時代 早期는 雜穀 위주의 農事, 河岸段丘에 小數가 列狀 配置된(金權九, 2019) 小規模 聚落 및 石床圍石式 爐址, 甕坑의 採擇, 突帶文土器, 팽이형토기(?) 등과 청동기로는 小形 靑銅裝身具(刀子, 銅泡, 管玉, 曲玉形銅器)의 使用을 特點으로 볼 수 있다. 前期는 稻作의 始作, 住居形態의 定型化 및 聚落의 丘陵地域 擴散, 支石墓, 周溝石棺墓와 같은 權威의 무덤의 登場, 口緣部施文土器(팽이형토기, 驛三洞式, 可樂洞式, 欣岩里式 등)의 盛行, 二段柄式石劍과 二段莖式石鏃의 出現 및 擴散, 新 靑銅器文化要素(遼寧式銅劍, 遼寧式銅銼, 銅鏃)의 流入 등을 特點으로 볼 수 있다. 後期는 水稻作의 盛行, 住居規模의 小形化, 松菊里型住居로 대표되는 地域別 新住居型式(北漢江流域의 泉田里式住居, 慶尙道地域의 檢丹里型住居 등)의 登場, 據點聚落 形成, 環濠聚落的 盛行, 石棺墓, 甕棺墓 등의 墓制 採擇, 松菊里型土器를 비롯한 珍정한 무문양토기의 제작, 遼寧式銅劍, 扇形銅斧, 一段柄式石劍·石鏃, 小形磨製石劍, 有溝石斧 등의 盛行을 特點으로 들 수 있다. 晩期는 新文化(粘土帶土器 文化)要素 登場, 高地性 聚落 形成, 積石石棺墓와 木棺墓 등 新墓制의 採擇, 韓國式銅劍文化의 定着과 靑銅器製作의 多樣化, 劍, 鏡, 玉 등 權威의 副葬品 採擇과 靑銅儀器製作, 磨製石劍의 消滅 등을 들 수 있다. 後期의 松菊里型土器文化는 晩期의 粘土帶土器文化와 接觸 내지는 融合過程(江原 固城 松峴洞, 濟州 三陽洞遺蹟 등)을 거치게 된다. 巨石文化로 대표되는 支石墓는 靑銅器時代 前期(早期末?)에 出現해서 晩期까지 使用된 典型的인 청동기시대 墳墓로서 지속해서 造營되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中國 戰國時代 鐵器文化의 流入으로 거의 전국이 鐵器時代로 突入하면서 靑銅器時代가 끝이 나게 된다.

靑銅器時代 設定과 관련해 黎明期라고 할 수 있는 早期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靑銅器時代 早期에 관한 問題는 突帶文土器를 중심으로 展開되어 왔다. 그것은 靑銅器의 使用이 靑銅器時代 設定에 있어 최소한의 前提條件이 된다고 할 때, 韓半島 北端에 있는 新岩里遺蹟 第4文化層(第3地點 2文化層의 時期)출토의 靑銅刀子和 銅泡 이외에는 그 조건을 充足시킬 수 있는 유적이 보이지 않아, 早期 設定을 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研究者들 중에는 新岩里유적의 경우 突帶文을 제외하고는 韓半島 突帶文土器와의 類似性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文化圈을 따로 區分하기도 하고, 前期와 함께 묶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突帶文土器 유적이 全國적인 分布를 보이고 있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形式의 土器形式의 登場(公貴里型土器, 五洞型土器, 孔列文土器, 長頸壺 등), 새로운 石器의 採擇(곰배팽이, 有孔石刀 등 新石器時代 使用 石器의 增加와 棍棒頭, 斜刃石斧, 凹尾石鏃, 舞錐用 環石, 매부리형 石器 등), 새로운 住居의 構造(偏在된 爐址, 石床圍石式 爐址, 甕坑), 石劍과 銅製武器의 不在, 公貴里型漁網錘 등으로 보아 早期의 設定은 充分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기장 등의 雜穀農事를 행하면서 石

刀나 곰배괘이(石鍬) 등의 新石器時代 傳統의 農耕道具가 擴散되고, 棍棒頭와 같은 威儀具나 有孔石器 製作을 위한 舞錐用環石 같은 外來 起源의 發展된 道具의 使用 등으로 보아 社會經濟적으로도 큰 變化를 보인다고 하겠다. 前期와 比較해 보아도 聚落의 立地와 規模, 住居址의 構造 以外에도 墓制, 遺物 등에서 모두 큰 差異點을 찾아볼 수 있어 早期를 따로 設定한다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靑銅器만을 놓고 보면 그동안은 한반도 北端 일부에만 流入된 局地的인 現象으로 置簿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江原道 旌善郡 餘糧里의 아우라지유적에서 靑銅製 裝身具가 出土됨으로 해서 韓國 靑銅器時代 設定에 큰 轉機를 가져오게 되었다. 鍛造의 靑銅器로 小形의 管玉과 指環形 裝身具(동글게 말아서 만든) 등 4점뿐이지만 靑銅器의 使用 또는 製作은 이를 모든 地域의 比較 可能한 早期遺蹟에 適用 할 수 있는 하나의 基準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時期에 韓半島 全體가 진정한 靑銅器時代에 突入하였다는 論據로 삼을 수 있겠다. 이들 청동기에 대한 定性分析이 이루어지지 않아 바탕 成分과는 差異를 보일 수가 있으나, 表面에 대한 非破壞 成分分析 結果 구리와 朱錫의 二元系 合金임이 確認되어 現地 製作의 可能性도 높아졌다(江原文化財研究所, 2019). 이와 더불어 그동안 層位가 不分明하여(生活面 出土) 取扱되지 않았던 卍州 玉房 5地區 遺蹟(鮮文大學校博物館, 2001) 出土 靑銅曲玉形裝飾 또한 早期에 속하는 靑銅器일 可能性이 높아졌다. 옥방 5지구에서는 早期와 관련이 깊은 유적과 유물들이 출토된 바 있고, 이 靑銅器와 類似한 形態와 크기를 가진 靑銅器와 牙製品 등이 馬城子遺蹟을 비롯한 遼東地域에서 출토된 例가 있기 때문이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4). 결국 한반도 北部·中部·南部에서 모두 早期에 속하는 청동기가 發見된 셈이다. 南·北韓地域의 靑銅器時代 早期遺蹟에서 출토된 突帶文土器와 靑銅刀子, 銅泡 그리고 管玉(hollow tubes) 등 일련의 유물은 北方유라시아 後期靑銅器時代 文化內容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 注目되는 것이다. 특히 내몽골 地域을 비롯한 Karasuk계 靑銅遺物에서 特徵적으로 보이는 유물이므로 向後 이들 地域과의 關聯性을 注目해야 할 必要가 있다. 韓國 靑銅器時代 早期의 文化要素 중 상당 部分(곰배괘이·石刀, 棍棒頭 등)이 北方유라시아 靑銅器文化의 影響을 받았거나, 四壩文化 等과의 접촉으로 東進으로 遼東을 거쳐 新岩里地域까지 到達하였을 可能性이 있어 보인다. 여하튼 간에 이제는 이들 地域의 資料들과 比較하여 起源과 年代問題에 대해 다시 考究할 必要가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最近 調査된 江原道 旌善郡 南面 樂同里 梅屯 洞窟墓遺蹟(연세대학교博物館, 2019)의 發掘 또한 注目되는 것이다. 舊石器時代文化層과 新石器時代文化層 그리고 靑銅器時代文化層이 層位를 이루고 있는 이 遺蹟의 靑銅器文化層에서는 靑銅器時代 早期와 關聯이 있는 突帶文土器 조각과 함께 新石器時代 櫛文(有文)土器片 그리고 격지와, 磨製石鍬, 骨角器 등의 遺物들이 出土되었다. 突帶文土器는 小片 한 조각이라 器形을 推定하기 어려우나 口緣部가 약간 外反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며 突帶文 아래에 小形 竹管文(孔列文)과 같은 반구명무늬가 一列로 配置된 것이다. 매둔 洞窟墓遺蹟의 內容을

要約해 보면 靑銅器時代 文化層을 中心으로 實施된 調査 結果, 靑銅器時代에 形成된 재층(灰層)과 관련하여 적어도 세 사람분 以上에 該當하는 人骨이 出土된 것으로 알려졌다. 1號 人骨과 2號 人骨은 白色 灰層 바로 위에 잇닿아 安置되어 있었고, 나머지 뼈들은 灰層 속에서 흩어진 狀態로 發見되었다고 하며 1號 人骨은 仰臥伸展葬의 形態로 把握되었다. 放射性炭素年代測定 結果(AMS)에 따르면, 灰層은 대체로 cal B.C. 1120 - B.C. 550年 사이의 年代를 가진다고 한다. 여러 情況으로 判斷할 때, 주검을 安置하기에 앞서 불을 利用한 儀式이 먼저 行하여졌을 可能性이 높다. 特徵적인 點은 共同 무덤으로 사용된 洞窟墓가 靑銅器時代 早期에도 使用되었을 可能性이 높아졌고 불과 關聯된 葬制가 存在한다는 點이다. 一部 無文土器와 石鍬으로 보아 靑銅器時代 前期까지 持續되었다고 생각하지만, 洞窟墓의 立地와 葬制는 遼寧省 太子河 上流 一帶의 洞窟墓遺蹟에서 보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向後 發掘이 注目되는 遺蹟이다. 遼東 馬城子B洞 下層에서는 新石器時代 晚期의 櫛文土器들이 出土되어 洞窟墓가 新石器時代 晚期에서 上層의 靑銅器時代 早期까지 連續적으로 利用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葬制뿐만 아니라 앞 시기의 文化要素(곰배괘이, 大形 土器片을 이용한 漁網錘, 小形 佩玉 등)까지도 그대로 連結된 유적이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4). 馬城子遺蹟 A동 墓의 型式은 未經火焚의 仰身直肢葬과 原地火葬, 揀骨火葬의 3種 型式으로 나누어진다고 報告되어 있으므로 매둔 洞窟墓도 人骨과 灰層의 狀態로 보아 이러한 形式이 存在하였거나 또는 불을 피워 儀禮를 進行한 特殊한 葬制가 採擇되었을 可能性이 많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잘 밝혀지지 않았던 集團洞窟墓의 存在, 그리고 그 立地와 葬制가 遼東地域의 그것과 相互 類似하다는 點은 示唆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AMS 측정치는 誤差 可能性도 있어 그대로 信賴하기는 어려운 年代이지만, 이 遺蹟과 그다지 멀지 않은 江 上流에 있는 아우라지 聚落 등과 連結해 볼 때, 이 遺蹟이 馬城子遺蹟과 같은 遼東半島를 비롯한 韓半島 北部 일대의 遺蹟들과 住居, 墳墓에 있어 脈을 같이하고 있음은 거의 確實하다고 하겠다. 旌善 아우라지 유적에서의 靑銅 裝身具 發見과 새로운 洞窟墓의 確認으로 早期設定의 根據가 보다 確實해졌기 때문에 韓國 靑銅器時代에 대한 새로운 評價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向後 早期遺蹟의 南下 經路를 비롯한 韓國 靑銅器文化 形成過程을 把握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4.

청동기시대 설정과는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靑銅器時代 研究에 대한 向後 課題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

첫째로 新石器時代 晚期와 관련된 문제의 解明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新石器時代 晚期에서 靑

銅器時代로 넘어가는 過渡期의 內容이 아직 確實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 新石器時代 專攻者들과의 協業이 필요한 시점이다. 社會經濟的인 면에서 어떠한 接觸과 變化를 가져왔는지 또는 交易의 證據는 찾을 수 없는지 假說을 세우고 立證하는 作業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靑銅器時代 晩期와 鐵器時代를 어떻게 確然하게 分離할 수 있을가에 대한 試圖 역시 필요한 과제이다.

둘째로 科學的 絶代年代와 既存의 相對年代 사이의 折衷을 摸索해야 하는 것도 重要 課題 중의 하나이다. 考古學과 關聯 諸科學과의 協業은 매우 重要하다. 그러나 많은 研究者가 指摘하는 바와 같이 實年代를 나타내는 絶代年代가 既存의 考古學的 年代보다 지나치게 높아 信賴도가 크지 않은 편이다. 絶代年代 역시 完璧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意味 있는 資料가 되기 위해서는 絶代年代만을 信憑하려는 態度에서 벗어나 두 年代 사이의 差異를 克服하기 위한 作業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청동기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 인근 지역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셋째로 우리나라는 地理的 特性上 新石器時代 이래 地域別로 相異한 文化相을 보여 왔다. 靑銅器時代의 狀況도 크게 다르지 않아 韓半島 各 地域에서 서로 크고 작은 文化相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各 地域別 編年이 자세하게 이루어진 뒤, 이를 다시 全體의으로 統合하는 作業이 進行되어 韓半島 全體를 아우르는 時期區分을 試圖하여야 하는 것도 主要 課題라고 생각한다.

넷째로 靑銅器時代와 關聯된 民族問題와 古朝鮮問題에 관한 研究도 深化되어야 할 課題이다. 古朝鮮의 位置나 存續期間을 包含하여 그 實體에 대한 多樣한 主張이 있는 것은 事實이나, 아직은 資料의 부족과 接近의 어려움 등 制限的인 要件이 많아 不確實하고 整理되어 있지 못하다. 皮相的인 資料解析은 危險할 수 있으므로 考古學的인 資料를 根據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地域別 編年과 文化 變移過程, 隣近 國家의 관련 遺蹟에 대한 研究가 우선되어야 할 課題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北韓地域 靑銅器文化에 대한 本格的인 研究도 必要한 課題이다. 특히 地域色이 강한 팽이형토기문화가 오래 持續된 平安南道, 黃海道地域에 대한 研究가 時急하다. 이 역시 여러모로 限界가 있으나 既存의 資料들을 새로 集成하고 整理하여 새로운 研究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課題이다.

다섯째로 靑銅器文化 移動 루트(古代 移動路)에 관한 地理學的인 研究도 並行되어야 할 課題이다. 예를 들어 靑銅器文化의 南下 루트 또는 北上 루트 등을 옛 地圖와 分布圖 등의 자료를 活用해 찾아보는 作業이다. 大東輿地圖의 옛길과 水系를 이용하는 作業도 하나의 方法이 되겠다. 楸哥嶺構造谷과 같은 直線상의 河谷도 文物이 移動하기 쉬웠을 것이므로 咸南과 江原, 京畿지역을 잇는 옛 문화 루트로 想定할 수 있을 것이다⁴⁾.

여섯째로 靑銅器의 傳世品들에 대한 研究가 進行되어야 하는 것도 課題이다. 槐亭洞, 東西里, 九鳳里

4) 함남 안변·문천·고원·영흥의 방언이 대체로 중부방언과 유사하다는 점과 경원선이 설치된 이유도 이러한 지리적 요인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 초기문화도 이러한 루트를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함남 조양리 청동 간두령을 비롯해 오목자귀 등은 남쪽에서 이 루트를 통해 넘어 갔을 수 있겠다.

遺蹟 등에서 보이는 劍把形銅器, 銅劍, 多鈕鏡 등의 傳世 問題는 단순한 年代의 問題가 아니라 世襲 내지는 權限의 移讓, 分割로 볼 수도 있는 內容이라 향후 깊게 研究해야 할 重要한 課題이다⁵⁾. 共伴된 副葬品 속에서 이를 確認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곱째로 靑銅器時代 社會相 또는 社會分化樣相에 대한 時期別·地域別 檢討도 필요한 課題이다. 청동기시대의 社會相에 대한 觀點에 있어 研究者들 사이에 差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學界에는 靑銅器時代를 不平等社會로 보고 新石器時代와 區分하는 傾向이 있어 왔다(최몽룡, 1999). 그러나 平等한 性格이 강한 聚落(혹은 地域)共同體社會 즉 社會的 發展過程의 過渡期의 社會라는 見解(박양진, 2001)와 地位의 世襲性이 存在하지 않는 位階社會로서 不安定한 制度化되지 않은 不平等社會라는 見解(김권구, 2012)가 새로이 擡頭되었다. 社會分化의 程度는 靑銅器時代의 時期別·地域別로 多樣했을 可能性이 있다. 早期(돌대문토기단계)와 後期(송국리단계)의 社會發展 정도는 물론 同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稻作(畓)農耕의 規模가 큰 集團과 그렇지 않은 集團의 社會分化 樣相도 一律的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向後 研究 課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課題 이외에 최신 發掘 資料를 包含한 靑銅器時代 資料의 데이터베이스 共有, 靑銅器時代 文化의 地域的 研究와 더불어 東北아시아 全體 속에서 살펴보는 廣域的 研究, 여러 學問과의 學際融合的 研究, 國內外는 물론 東北亞地域의 관련 研究者들과의 協力 및 交流 등을 強化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考古學에서 사용하는 靑銅器時代 關聯 用語問題에 대해서 言及하고 싶다. 筆者는 여러 해 전부터 靑銅器時代에 관한 用語에 대해 나름대로 合理的이라고 생각하는 용어를 몇 가지 使用해 왔다. 過去에 使用한 不合理的인 用語를 習慣的으로, 또는 混亂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踏襲한다는 것은 適切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細形銅劍을 韓國式銅劍으로, 琵琶形銅劍을 遼寧式銅劍으로, 細文鏡을 精文鏡으로 부르는 것 등과 같은 따위이다. 특히 相互 對比가 되는 用語의 使用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琵琶形銅劍과 細形銅劍, 櫛文土器와 無文土器, 粗文鏡과 細文鏡은 상호 對比가 되는 用語가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 호이징가(J. HUIZINGA)는 그의 著書 『HOMO LUDENS』(요한 호이징가, 1974)에서 ‘言語에서 한 낱말의 概念價値는 이 낱말의 反對物이 表現하는 말에 의해서 規定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놀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이 진정이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노동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有(有文)와 無(無文), 前과 後, 粗와 精, 廣과 狹 그리고 早와 晩같이 相互 反對되는 概念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用語 概念의 價値를 생각한다면 用語를 짓고 使用하는 問題는 매우 重要한 일이다. 그것은 한 事物의 外形的인 것과 內容을 모두 담는 것이기 때문이다. 細形銅劍이라는 用

5) 이견무, 2007, 「한국 청동기 제작기술」, 『한반도의 청동기 제작기술과 동아시아의 고경』, 國立慶州博物館·日本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アジア鑄造技術史學會

語가 日本式銅劍인 平形銅劍과의 대비에서 지어진 名稱임은 周知하는 바이다. 평평하다, 바르다, 곧다는 뜻의 平에 대비되는 용어가 가늘다는 뜻의 細는 아닐 것이다. 또 琵琶形銅劍과 對比하여 사용한다면 어떠한 形態(모양)와 연관된 用語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合理的이라 하겠다. 北韓式 용어인 좁은놋단검과 대비해서 사용한다면 비파형동검보다는 넓은놋단검이 걸 맞는 용어인 것이다. 韓國式銅劍이라는 용어는 韓國 特有的의 挾入部와 마디가 있는 銅劍에 사용하여야 하며, 遼寧式銅劍의 退化形 末期型式인 幅이 좁아진 銅劍과는 區別되어야 한다. 精文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이미 粗와 精의 뜻을 들어 설명한 바가 있다. 이같이 用語 概念의 價値를 생각한다면 ‘靑銅器時代’라고 하는 용어 그 自體나, 時期區分에서의 早期·前期·後期·晩期와 같은 용어 또한 최대한 그 개념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1. 藤田亮策, 1934, 『朝鮮古代文化』, 『日本歴史』第十二回 配本, 1948,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日本
2. 藤田亮策, 1942, 『朝鮮の石器時代』, 『東洋考古學講座 第18卷』, 1948,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日本
3. 학계소식, 1957, 『조선에서의 초기 금속 사용에 관한 토론회』, 『문화유산』 1, 과학원출판사
4. 정백운, 1958, 『강남 원암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서』, 『문화유산』 1, 과학원출판사
5. 김용간 외, 1958, 『조선에서의 금속 문화 기원에 대한 토론』, 『문화유산』 2, 과학원출판사
 - a 김용간, 『금석 병용기와 관련하여』
 - b 황기덕, 『조선 청동기 사용기의 존부에 관하여』
 - c 김재효, 『우리 나라 초기 금속 문화의 원류에 대한 몇 가지 문제』
6. 도유호, 1958, 『조선 원시 문화의 년대 추정을 위한 시도』, 『문화유산』 3, 과학원출판사
7. 도유호, 1960, 『조선 원시 고고학』, 과학원출판사
8. 김용간, 1963, 『美松里遺跡の考古學上の位置 一年代論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26,
9. 김용간·황기덕, 1967, 『조선의 청동기시대』, 『고고민속』 4, 사회과학원출판사
10. 황기덕, 1973a, 『두만강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 『고고민속논문집』
11. 황기덕, 1973b, 『최근 새로 알려진 비파형단검과 세형동검 관계의 유적 유물』, 『고고학자료집 4』
12. 황기덕, 1984, 『조선의 청동기시대』
13.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0a, 『우리나라 고대중족과 국가발생에 관한 토론회』, 『문화유산』 1, 과학원출판사
14.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0b, 『고고학상으로 본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 『문화유산』 3, 과학원출판사
15. 정찬영, 1960, 『고조선의 위치와 그 성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문화유산』 3, 과학원출판사
1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8, 『조선유적유물도감 1』 원서편
17. 李淳鎭外, 2001, 『大同江文化』, 外國文出版社
18. 金元龍, 1966 『韓國考古學概論』 / 『한국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韓國文化史大系』 제1권,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소수 개고 200부 한정 자비출판
19. 金廷鶴, 1972, 『韓國の考古學』, 河出書房新社, 日本
20. 金元龍, 1973,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21. 尹武炳, 1975, 『無文土器 型式分類試攷』, 『震檀學報』 39
22. 金元龍, 1976, 『韓國文化의 起源』, 探求堂
23. 金元龍 韓炳三, 1977, 『韓國 考古學의 現實』, 『教養으로서의 考古學』, 서울대학교 人文大學 考古學科
24. 尹武炳, 1977, 『韓國考古學界의 方向』, 『教養으로서의 考古學』, 서울대학교 人文大學 考古學科
25. 有光教一, 1965, 『朝鮮初期金屬器文化に關する新資料の紹介と考察』, 『史林』 48-2, 日本
26. 한국고고학회, 2007, 『한국고고학강의』
27. a 安在皓, 2010, 『韓半島 靑銅器時代의 時期區分』, 『考古學誌』 第16輯, 韓國中央博物館
 b 韓國靑銅器學會 編, 2013, 『韓國 靑銅器時代 編年』, 서경문화사

- c 安在皓, 2016, 『靑銅器時代の 시기 구분』, 『編年』靑銅器時代の 고고학 2, 서경문화사
28. 한국고고학회, 2017, 『고고학으로 본 고조선』
29. 郭宝鈞, 1978, 『中國靑銅器時代』, 生活·讀書·新和三聯書店
30. 江上波夫監修, 1980, 『考古學セミナー』, 山川出版社, 日本
31. 宮本一夫, 2010, 『時代區分と日韓考古學』, 『季刊 考古學』113, 雄山閣, 日本
32. 김권구 옮김, 2009, 『고든 차일드의 사회고고학』, (주)사회평론
33.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 第三版, 一志社
34. 古澤義久, 2013, 『新岩里出土靑銅刀の年代について』, 『中國考古學』第十三號, 日本
35. 李昌熙, 2016, 『청동기시대의 연대』, 『編年』,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서경문화사
36. 安在皓, 2020, 『韓半島의 靑銅器時代の 展開와 早期 彌生文化』, 『신·한일교섭의 고고학』 발표논문, 신·한일교섭의 고고학-청동기 원삼국시대-연구회
37. 裴眞晷, 2006, 『北韓 無文土器의 編年』, 『轉換期の 先史土器 資料集』, 국립김해박물관
38. 李健茂, 2007, 『韓國 靑銅器時代 早期設定에 대한 小考』, 『畿甸考古』6, 기전문화재연구원
39. 金權九, 2019, 『嶺南地域 靑銅器時代 早期와 前期의 聚落構造』, 『新韓日交渉의 考古學』 제3회 공동연구회, 신·한일교섭의 고고학-청동기 원삼국시대-연구회
40. 江原文化財研究所, 2019, 『정선 이우라지유적』
41. 鮮文大學校博物館, 2001, 『晉州 大坪里 玉房 5地區 先史遺蹟』
4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4, 『馬城子』
43. 연세대학교博物館 2019, 旌善 매둔 洞窟遺跡(1)
4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4, 『馬城子』
45. 최몽룡, 1999, 『한국 지식묘의 기원과 전파』, 『한국 지식묘유적종합조사·연구-분포, 형식, 기우js,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46. 박양진, 2001, 『韓國 靑銅器時代 社會的 性格의 再檢討』,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새로운 성과와 과제』, 충남대학교박물관, 2001
47. 김권구, 2012,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구조의 변천』,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 학연문화사
48. 요한 호이징가, 1974, 『호모 루덴스』, 月刊中央 '74年 5月號 別冊附錄, 중앙일보사 / (J. HUIZINGA), 『HOMO LUDENS』(1938)

제1발표

작물유체로 본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사회

김민구
전남대학교

작물유체로 본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사회

김민구 전남대학교

-
- I. 머리말
 - II. 수렵채집사회인가? 농경사회인가?
 - III. 신석기시대 작물 조성
 - IV. 신석기시대 작물재배와 인구 증가
 - V. 청동기시대 작물 조성
 - VI. 벼농사와 사회조직
 - VII. 맺음말
-

I. 머리말

식물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작물유체를 통해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사회 성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의 연구현황을 살펴보고, 논란이 되는 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II. 수렵채집사회인가? 농경사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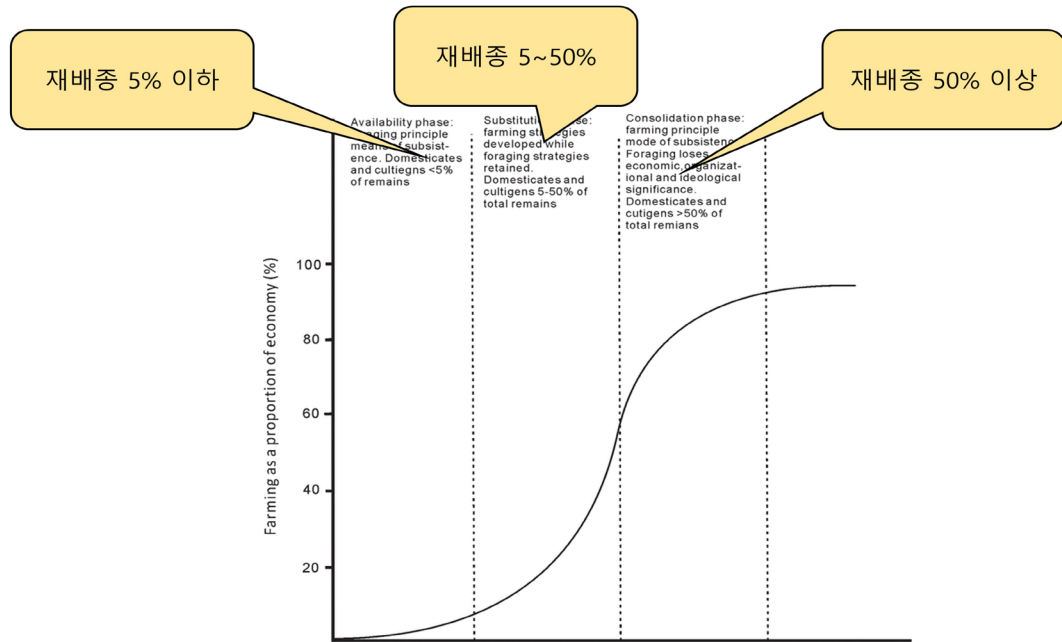
신석기시대는 수렵채집사회로 청동기시대는 농경사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모두 농경사회로 볼 것인지를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입장이 다소 다르다. 이 문제는 수렵채집사회(또는 농경사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신석기시대에 재배식물(또는 동물)의 흔적이 발견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의 작물이 재배되었는지의 문제 등이 관건이 된다.

수렵채집사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신석기시대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수렵채집

사회나 농경사회의 정의에는 ‘정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수렵채집인은 ‘대부분 또는 모든’ 식량자원을 야생 동식물에 의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mith et al. 2010). 반면 농경민은 ‘주요’ 길들여진 가축과 재배식물에 의존한다고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설령 식물을 재배하였다더라도 반드시 수렵채집사회로 분류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또 농경사회라 하더라도 야생식물의 이용이 중지된 것은 아니다.

이 점은 구석기시대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구석기시대에는 개를 제외하고는 순화된 동식물이 없었기 때문에 구석기시대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수렵채집사회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육아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기르고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인간에 있고 이것이 구석기시대에 동식물에 투영되었을 가능성은 있다(Hastorf 1998). 하지만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고고학 증거는 극히 빈약하다.

신석기시대에 이르면 문제가 다소 복잡해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빙하기가 끝난 후에 구대륙 곳곳에서 식물재배와 가축사육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초생달 지역과 중국 황하·양자강 유역이다. 처음에는 한정된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 식물재배 문화는 구대륙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거리를 포함한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구대륙의 모든 선사문화가 농경 사회로 전환되었다. 한반도의 선사문화 변화도 이런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홀로세에 구대륙 곳곳에는 수렵채집문화와 농경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양자를 어떻게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국 신석기시대 사회 주민들은 어느 정도로 재배식물에 의존했는가?



<도면 1> 농경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재배종 이용 단계(Zvelebil 1986)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종의 ‘착시’현상은 신석기시대 몇몇 문화요소가 농경사회적 특성을 보이는 점에서 비롯된다. 토기 사용과 정착 생활이다. 토기는 수렵채집사회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서남아시아의 경우도 식물재배보다 토기의 출현은 늦다. 북서아메리카 수렵채집민들도 토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토기 사용을 농경사회의 간접적 증거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 조몬사회의 예와 같이 수렵채집사회에서 토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신석기시대 토기는 배식기보다는 저장과 취사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용도를 밝히는 것이 신석기시대 사회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하다.

아울러 신석기시대의 정착생활은 —만약에 정말로 정착생활을 했다면— 계절성에 따른 식량저장 중요성의 증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Kelly 1995). 한반도는 계절적 기온 차이가 크고 겨울철 식량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렵채집민이든 농경민이든 식량을 수개월 이상 저장하여야 생존이 가능하다. 저장은 이동성을 감소시킨다. 즉, 토기나 정착생활은 농경문화의 출현과 무관할 수도 있다.

상수리나 도토리 같은 참나무속 수목의 열매는 수천 년 이상 주된 탄수화물의 공급원이었다. 낙엽성 참나무 열매는 떫은맛을 내는 타닌산을 제거해야만 식용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단위 무게당 열량 제공량을 비교하여 보아도 다른 곡물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비교적 효율성 높은 식량이다(농촌진흥청 2020; Mason 2000; USDA 2020). 신석기시대에 식물재배와 더불어 견과류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표 1> 곡류와 견과류의 영양소 비교

이름	학명	칼로리 (kcal/kg)	영양분 (g/kg)			비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쌀	Oryza sativa L.	3,580	791.5	5.2	65.0	
보리	Hordeum vulgare L.	3,540	734.8	23.0	124.8	
밀	Triticum aestivum L.	3,420	759.0	17.1	113.1	
기장	Panicum miliaceum L.	3,780	728.5	42.2	110.2	
녹두	Vigna radiata	3,470	626.2	11.5	238.6	
팥	Vigna angularis	3,290	629.0	5.3	198.7	
도토리 (상수리)	Quercus spp.	3,870	407.5	238.6	61.5	껍질 있는 상태
		5,090	536.5	314.1	81.0	껍질 있는 건조 상태
밤	Castanea crenata	1,540	349.1	5.3	22.5	껍질 있는 상태
		3,600	814.3	12.4	52.5	껍질 있는 건조 상태

Ⅲ. 신석기시대 작물 조성

1. 잡곡

신석기시대에 재배된 식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식물이 재배되었다는 사실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작물 재배 가능성을 알린 초기 연구는 도유호의 지탑리 발굴이다(사회과학원 1956). 잡곡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발굴 당시에는 정확히 어떤 작물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이후 축적된 남한의 연구 성과를 볼 때 기장 또는 조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된다. 피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는 일본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재배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역사시대 들어서도 그 흔적이 명확하지 않다. 초·중·고 교과서 뿐 아니라 다양한 개론서에 신석기시대에 수수가 재배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수수 역시 실증적 자료는 없다. 삼국시대 또는 그 이후에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안승모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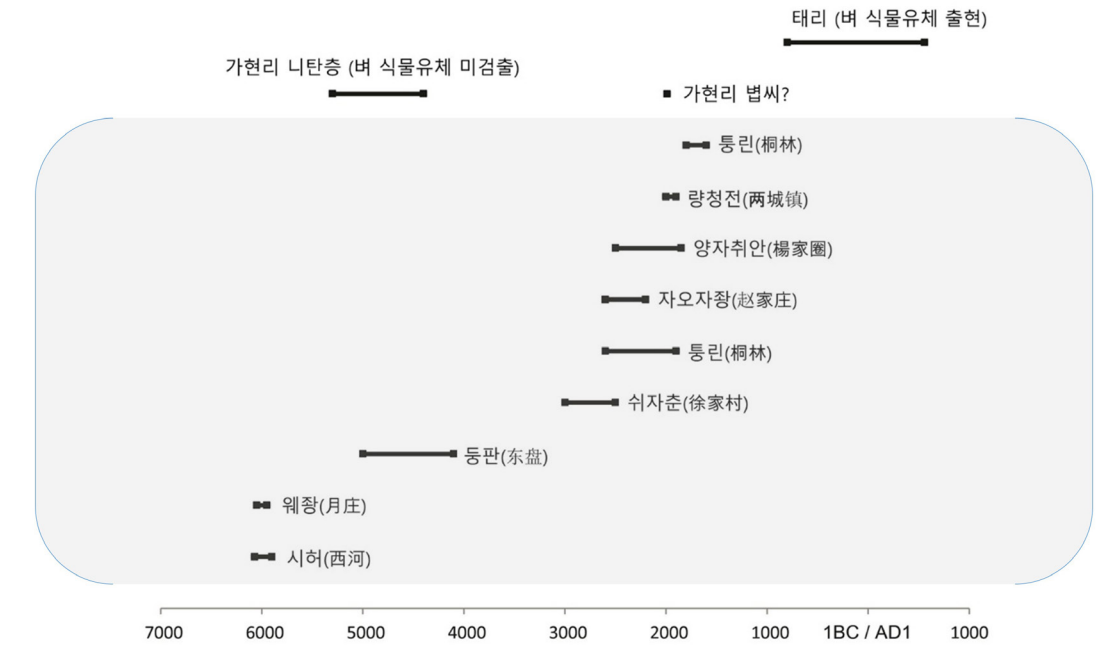
신석기시대에 재배된 작물 중 보고 사례가 가장 많은 것은 조와 기장이다(Lee 2011; Lee et al. 2019). 조와 기장 같은 잡곡류는 탄화된 종자유체로도 발견되고 토기편에 새겨진 압흔 형태로도 발견된다. 이런 자료들로 보아 신석기시대 중기에 이르면 잡곡의 재배가 행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팥이나 콩과 같은 두류가 재배되었다고 보기도 한다(이경아 외 2012, 2014). 두류는 재배 과정을 거치면서 종자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신석기시대의 두류가 야생종에 비해 크다는 것이 재배를 주장하는 주된 근거이다. 아울러 신석기시대 대천리 유적에서 발견된 탄화 밀과 보리가 3000 BC경으로 연대측정된 사례도 있다(한창균 외 2014).

2. 신석기시대 벼농사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신석기시대에 벼농사를 했는가의 문제이다. 벼농사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구석기·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부터 역사시대에 들어서도 쌀이 주식이었다는 주장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다양한 주장의 타당성은 향후의 연구를 통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발표자는 이런 연구의 일환으로 김포지역의 신석기시대 벼농사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유적은 김포시 고촌읍 태리 유적이다(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7). 퇴적물에서 벼속(Oryza)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화분이 발견되었는데, 퇴적물의 AMS연대 측정값은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800 BC 전후이다. 토탄층에서 벼 껍질이 다량 출현하였지만, 출토된 유물과 AMS연대로 보아 발견된 벼의 대형식물유체의 연대는 삼국시대이다.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벼의 식물유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접한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에서 신석기시대 탄화미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식물유체 분석을 담당한 스즈키 미츠오(鈴木三男)는 벼의 증거가 없었음을 밝힌바 있다(임효재 1990; 임효재·鈴木三男 2000). 결론적으로 김포반도 일대에서 신석기시대에 벼농사가 행해졌다는 증거는 없다. 김포지역에는 청동기시대 취락과 지석묘가 분포하며, 벼농사 시작은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시점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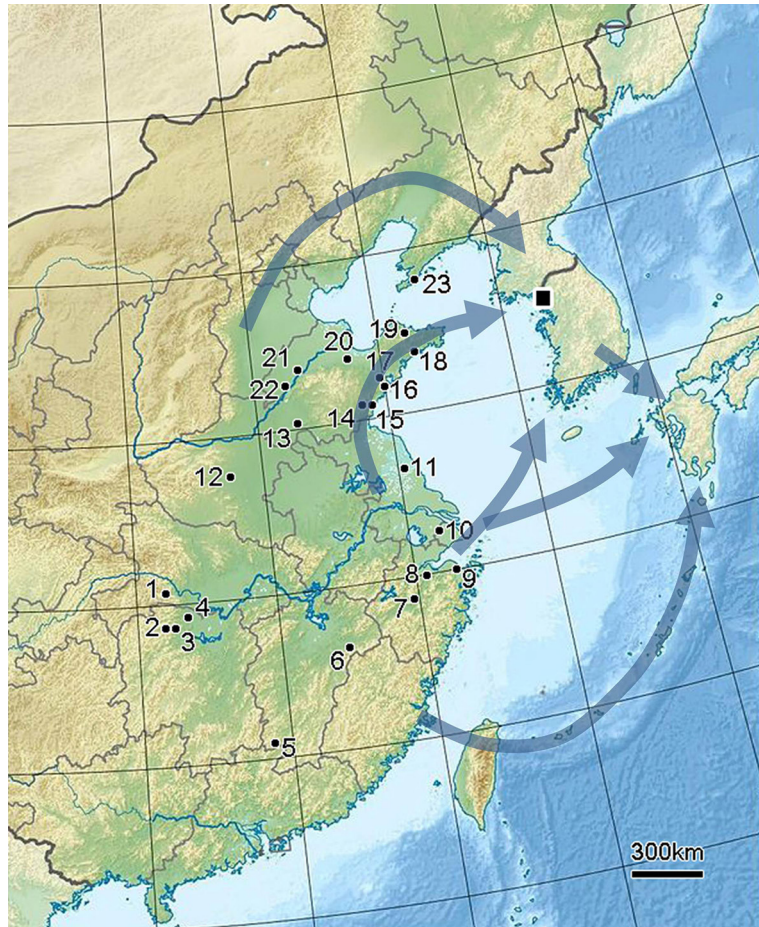


〈도면 2〉 김포 유적과 벼 식물유체 출현 중국 유적

벼농사 전파 시기와 경로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박태식 2009). 쌀이 중국 양자강 유역에서 기원한 작물임을 고려할 때, 중국 식물고고학연구는 한반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중국측 연구에도 벼재배와 관련한 기존의 견해와 다소 다른 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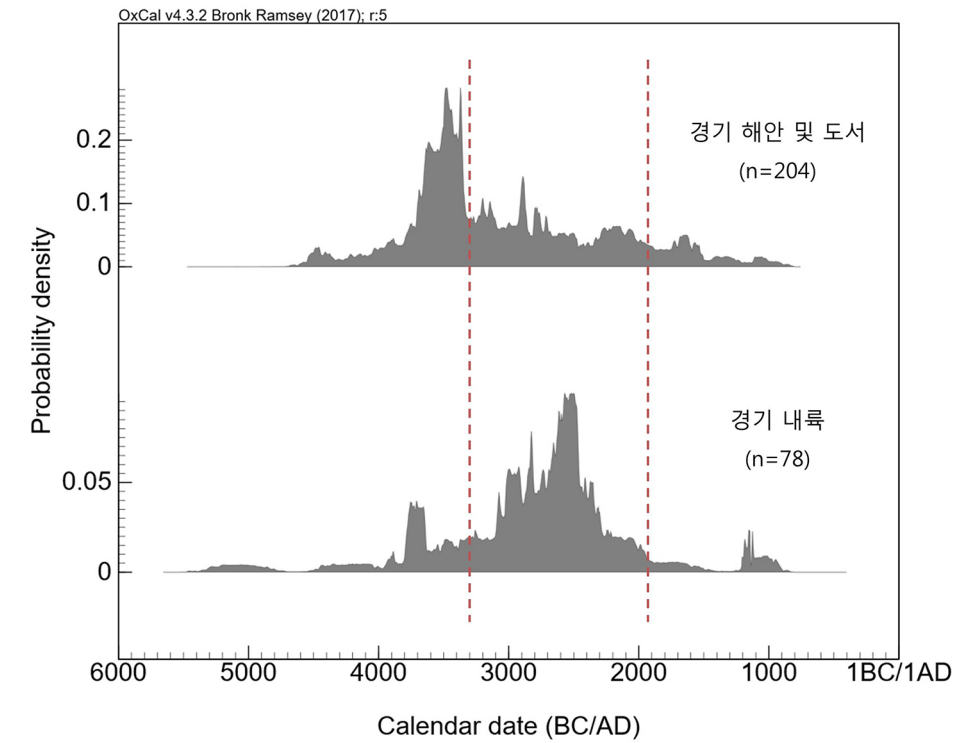
한반도의 초기 벼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둥지역의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Crawford 2009; Crawford et al. 2005; D'Alpoim Guedes et al. 2015; Jin et al. 2014; Jin et al. 2016). 산둥지역의 신석기시대는 후리(后李, 6400~5700 BC), 북신(北辛, 5300~4100 BC), 대문구(大汶口, 4100~2600 BC), 용산(龙山, 2600~2000 BC), 악석(岳石, 2000~1600 BC) 문화로 구분된다(张之恒 2004). 산둥지역에서 벼 식물유체가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은 15개소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lpoim Guedes et al. 2015). 용산문화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량청전(两城镇), 통린(桐林), 자오자좡(赵家庄), 장리시(莊里西) 유적 등에서는 탄화미가, 양자취안(楊家圈) 유적에서는 벼 압흔이 보고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산둥지역의 경우 후리문화 단계인 6000 BC경부터 벼 식물유체가 출현한다는 점이다(D'Alpoim Guedes et al. 2015). 시허(西河)와 웨장(月庄) 유적에서 발견된 탄화미가 여기에 해당한다(Crawford 2009; Jin et al. 2014). 동판(东盘) 유적에서는 복신문화기의 탄화미가, 베이첸(北阡)과 쉬자춘(徐家村) 유적에서는 대문구문화기의 탄화미가 발견되었다(Jin et al. 2016). 용산문화기에는 탄화미 출현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요령지역으로 벼농사가 확산된다. 요령성 왕자춘(王家村) 유적에서 2000 BC경의 탄화미가 발견된 바 있다(马永超 외 2015). 이를 통해 볼 때, 한반도 신석기시대에 중국에서는 벼농사가 행해지고 있었고, 전파되었을 개연성은 있다.



〈도면 3〉 중국 벼농사 관련 유적과 벼농사의 가설적 확산 루트: 1. 청베이시(城背溪); 2. 청터우산(城头山); 3. 팡터우산(彭头山); 4. 바스당(八十垱); 5. 위찬옌(玉蟾岩); 6. 셴런둥(仙人洞), 다오통후안(吊桶环); 7. 상산(上山); 8. 콰후차오(跨湖桥); 9. 허무두(河姆渡); 10. 차오세산(草鞋山), 줘둔(绰墩); 11. 룡추장(龙虬庄); 12. 자후(賈湖); 13. 웨장(月庄); 14. 동판(东盘); 15. 쉬자춘(徐家村); 16. 량청전(两城镇); 17. 자오자좡(赵家庄); 18. 베이첸(北阡); 19. 양자취안(楊家圈); 20. 퉁린(桐林); 21. 시허(西河); 22. 장리시(莊里西); 23. 왕자춘(王家村); ■ 태리 유적

하지만 2000 BC경에 설령 김포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 서부 해안지역에 벼농사 집단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벼재배 전통이 내륙지역으로까지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 경기 내륙지역은 일종의 인구공동화(人口空洞化) 현상을 겪고 있었다. 기존의 신석기문화를 영위하던 인구는 급감했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주민이 이주했다는 증거도 없다. 1500 BC 이후에 재배벼를 수반한 청동기인이 도래하기까지 경기 내륙지역 일대의 인구공동화 현상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2000~1500 BC경의 내륙지역 인구감소 현상은 경기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한 전역에 걸쳐 보이는 광범위한 현상이다(Kim et al. 2015). 따라서 가설적으로 제기된 2000 BC경 김포지역의 벼농사는, 설령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경기 해안지역 신석기문화 최말기에 나타난 지엽적인 현상이며 다른 지역으로의 문화적 과급력은 미미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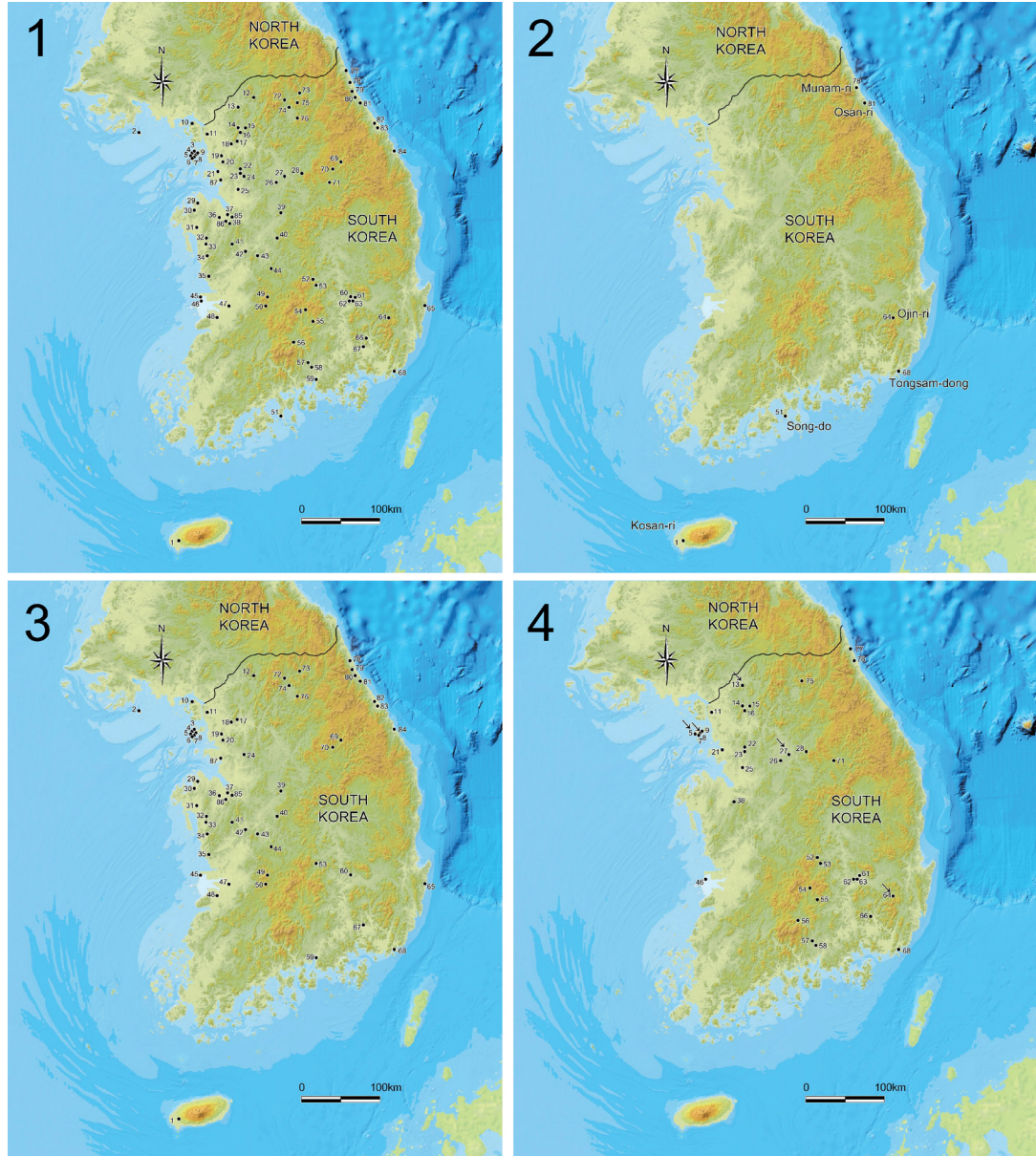
〈도면 4〉 경기도 신석기시대 유적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 SPD

IV. 신석기시대 작물재배와 인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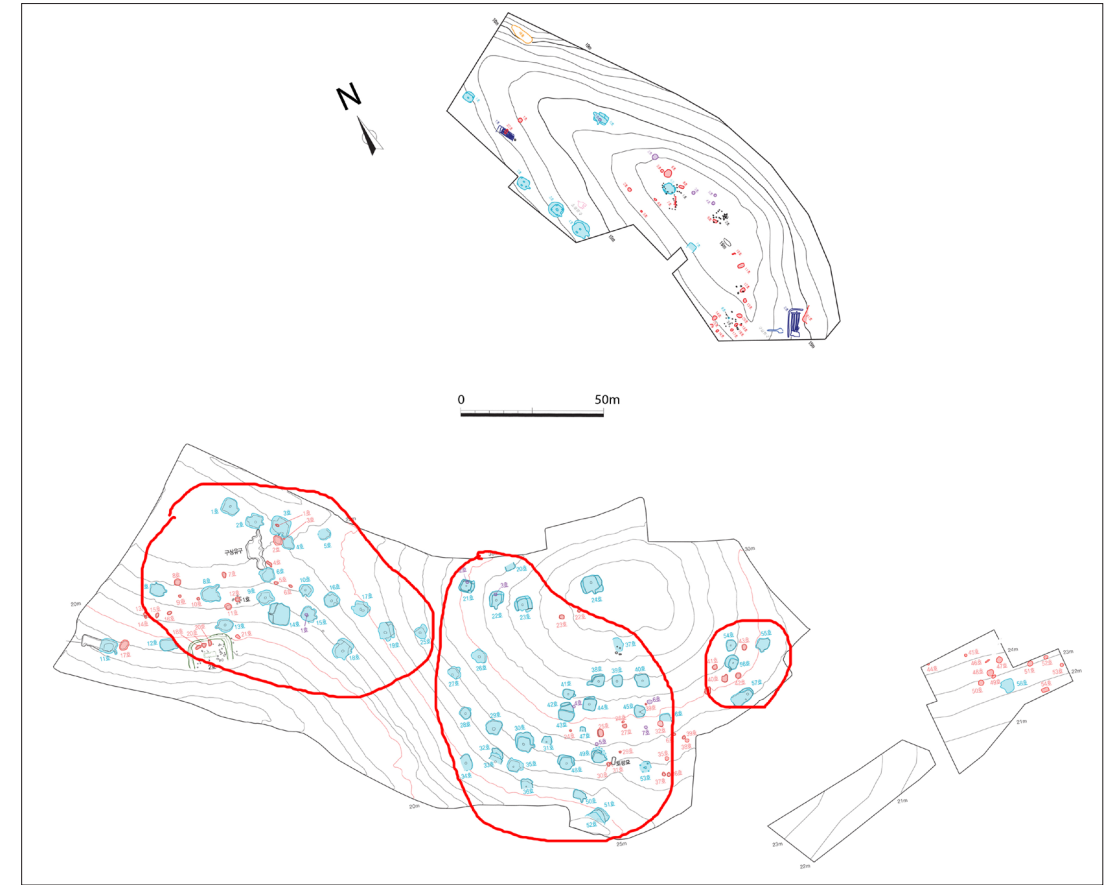
신석기시대에 작물재배가 행해졌다면 이는 인구 증가, 집중,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주거 유적 규모와 개수의 시간적, 지역적 변화 추이를 관찰함에 따라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Kim et al. 2015).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AMS 연대를 동시에 고려해 볼 때, 주거유적의 수는 4000~3000 BC에 급증한다. 배경적 요인으로 식물재배와 야생자원의 집약적 이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유적의 수가 급증하는 시기에도 대부분의 주거유적은 소규모로 10개 미만의 소수의 주거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운서동, 석교리 같은 대형 유적도 몇 개의 주거단위로 구분된다. 다시 말하면 유적의 수는 증가했지만 인구가 집중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도면 5>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분포: 1. 전체, 2. 8000~4000 BC, 3. 4000~3000 BC, 4. 3000~1500 BC



<도면 6> DBSCAN 분석에 의한 운서동 유적의 주거군 분류

중요한 점은 3000~1500 BC에는 주거유적의 수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2000~1500 BC에 이르면 사실상 소멸하는 양상이다. 신석기시대 최말기에 이르기까지 해안 및 도서지역에 패총이 계속 형성되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거유적 감소는 인구 감소 또는 재배치를 반영한다.

인구의 소규모 집중 양상을 볼 때, 신석기시대의 식물재배는 인구를 응집시키는 작용을 하지 못했다. 견과류의 이용은 인구를 분산시키는 영향이 있다.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신석기시대에 재배되었을 것으로 상정되는 작물은 잡곡(조, 기장)과 두류(콩, 팥)이다. 재배에 반드시 노동력 집중이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는 작물들이다. 재배에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즉 몇몇 가구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이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이다. 신석기시대의 식물재배는 인구집중을 가져오는 충분한 응집력을 제공하지 못했고 따라서 사회분화와 계급화 같은 후속적인 사회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V. 청동기시대 작물 조성

1500 BC를 전후하여 한반도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로 전환된다(Ahn 2010). 농경사회 등장의 배경으로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 조·전기를 대표하는 돌 대각목문토기(突帶刻目文土器),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二重口緣短斜線文), 공렬토기(孔列土器) 등은 대체로 요동지방이나 압록강·두만강 유역 등 한반도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이동이나 문화전파의 산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런 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작물과 농경기술이 한반도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청동기시대가 시작될 무렵은 동북아시아 일대가 이전에 비해 다소 한랭건조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변화도 인구이동과 새로운 생계경제 확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작물인 벼는 중국 양자강 하류에서 기원한 작물이다. 중국에서 벼농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절강성 상산(上山) 유적의 사례를 들어 만 년 전부터 벼농사가 시작된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이보다 늦은 시기인 기원전 4000년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반도 청동기시대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중국에서 벼가 재배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양자강 유역의 벼농사 문화가 산둥반도까지 북상하여 한반도 서해안지역으로 전해졌을 가능성과 요동반도를 거쳐 한반도 북부지역에 전해졌을 가능성 등 다양한 전파경로에 관한 가설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지역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벼는 낱알 모양과 재배 지역에 따라 인디카(*Oryza sativa indica*)와 자포니카(*Oryza sativa japonica*)의 두 가지 아종(亞種)으로 분류되는데, 한반도에 전래된 종은 단립형의 자포니카이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은 혼암리, 송국리 등을 들 수 있다(안승모 2014; 이춘녕·박태식 1978, 1979).

보리와 밀은 모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한 작물이다. 따라서 중국대륙을 거쳐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벼와 달리 보리와 밀은 한랭한 환경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파루트는 북방일 것이다. 청동기시대 보리와 밀은 충주 조동리 유적에서 다량 확인된 바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콩과 팥은 한반도 전역에서 걸쳐 확인되는데, 후기에 들어서면 전반적인 비중이 높아진다. 벼나 맥류와 달리, 콩과 팥은 한반도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작물들이다.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돌콩이라 불리는 야생콩이 자생하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다. 또 한반도에는 팥의 야생종인 새팥이 존재한다. 따라서 두류재배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르면 두류의 출현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두류는 단백질 공급원임과 동시에 지력 보완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두류의 증가는 집약화된 농경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조와 기장은 신석기시대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재배 역사가 길다. 이 두 작물은 청동기시대에도 계속 재배되었다. 하지만 조와 기장을 제외한 일부 잡곡류의 재배는 일각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그 증거가 빈약하다. 여주 혼암리나 평양 남경에서는 수수가 보고된 사례가 있는데 최근 이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귀리·피·녹두 등의 재배 가능성도 실증적 자료의 부재로 볼 때 회의적이다.

청동기시대에는 곡물 이외에도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었을 수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안승모 2013). 그 대표적인 것은 복숭아인데, 충주 조동리, 태안 고남리, 논산 원화리 등 유적에서 복숭아 씨앗이 발견된 바 있다. 복숭아는 중앙아시아나 중국이 기원지로 거론되고 있고 한반도는 야생 복숭아의 자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적에서 발견되는 것은 한반도 밖에서부터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청동기시대에는 박·오이·참외·배추·갓·들깨·대마 등이 재배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증적인 자료가 많지는 않다.

VI. 벼농사와 사회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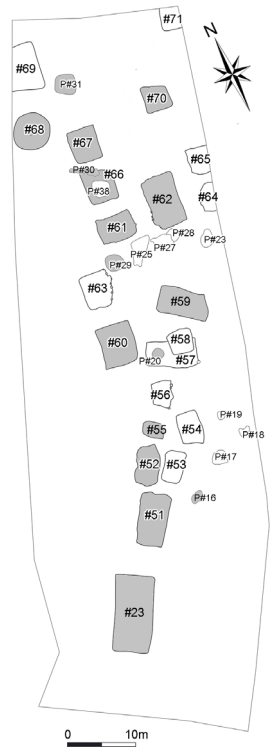
벼농사의 시작과 더불어 사회분화가 가속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청동기시대에 벼농사가 집약화되면서 잉여생산물이 생기고 이것이 다시 소수의 지배층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시작되었다는 시각이다.

식물고고학적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분화가 심화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청동기시대 유적 벼 출현 양상의 주된 특징 중의 하나는 탄화미가 발견되는 유적이 많고, 같은 유적에서도 거의 모든 주거지에서 비교적 골고루 발견된다는 점이다. 부여 송국리 유적의 경우에도 화재주거지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탄화미가 발견된다. 탄화미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보존상의 문제인 경우이다. 이는 원삼국시대 유적과도 대비되는 현상이다. 원삼국시대에도 벼농사는 계속 행해졌지만 오히려 청동기시대에 비해 탄화미가 발견되는 유적이 감소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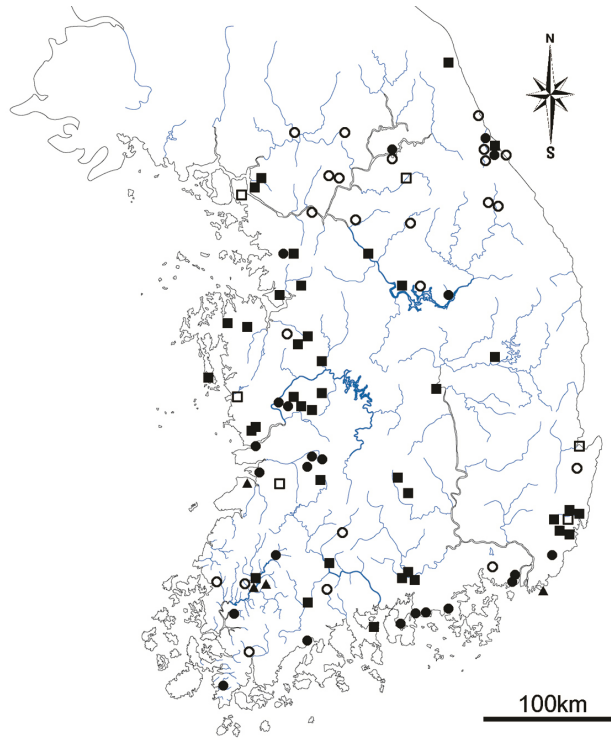
이는 청동기시대의 벼가 소수의 지배층이 독점하기 힘든 자원이었을 것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발벼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논벼의 재배에는 논과 수리시설의 조영이 필수적인데, 이는 개인이나 한두 가구의 노동력으로는 조영할 수 없는 시설이다. 따라서 노동력 집중과 협동이 필수적이다. 노동력이 항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벼농사의 경우 계절적인 노동력 집중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농법으로 행하는 벼농사의 경우, 생산량의 증가는 농토의 넓이보다 단기간에 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는 연구 결

과도 있다(Bray 1986).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동기시대에 이르면 확실한 논, 밭 유구가 발견된다. 청동기시대 논의 입지는 크게 보아 곡저형(谷底型)과 배후습지형(背後濕地型)으로 나눌 수 있다. 곡저형은 구릉 사이에 위치한 계곡의 말단부에 논을 조영하는 경우이다. 논산 마전리, 보령 관창리, 부여 송학리, 울산 무거동 옥현, 울산 발리 등 유적이 여기에 해당한다. 계곡 상부에서 유기물이 유입되어 토양이 비옥하고 용수 공급과 배수가 용이하다는 점이 곡저형 논 장점이다. 배후습지형은 범람원의 배후습지에 논을 조영하는 것으로, 평지형이나 하천형 등으로도 불린다. 배후습지형 논은 수원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밀양 금천리, 진주 평거동 등 유적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곡저형과 배후습지형 논은 청동기시대에 모두 출현하며 양자 사이에 시기적, 지역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논농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물을 다스리기 위한 수리시설이 조영된다. 수리시설에는 집수지, 수로, 보 등이 해당된다. 집수지는 논산 마전리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로는 밀양 금천리, 논산 마전리에서 확인되었다. 수로를 가로막는 물막이 시설인 보는 밀양 금천리와 관창리에서 확인되었다.



<도면 7> 송국리 유적 플로테이션 대상 주거지와 수혈



<도면 8> 탄화작물 산출 유적; ■/□ 청동기시대 탄화미 유/무, ▲/△ 초기철기시대 탄화미 유/무, ●/○ 원삼국시대 탄화미 유/무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농경 집단은 일반적인 벼농사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사회분화'와 '공동체적 조화' 사이의 긴장 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수리시설의 조영 및 운영에 있어 지도자의 필요성은 사회분화와 계급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공동노동력의 필요성은 일반 주민의 발언권을 강화시키고 사회불평등의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수장층의 권력 획득 방식은 공동체 외부적인 요인에 의지하는 방법(Network mode)과 공동체 내부적인 요인에 의지하는 방법(Corporate mode)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청동기시대는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Blanton et al, 1996).

VII. 맺음말

이상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석기시대=수렵채집사회, 청동기시대=농경사회라는 도식이나,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농경사회라는 도식은 생계경제 양식을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오히려 선사시대 생계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간과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석기시대 사회는 수렵채집사회적 성격이 강하고 청동기시대 사회는 신석기시대보다 더 발전된 농경사회이다. 하지만 두 시대 모두 통시적인 발전 과정에서 보면 과도기적 성격이 강한 사회이다. 두 시대의 사회적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는 벼농사의 실시이다.

(2) 신석기시대가 수천 년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생계양식을 한가지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잡곡(조, 기장)은 재배된 사례가 있다. 두류(콩, 팥) 및 맥류(보리, 밀)의 재배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북부 유럽이나 일본 조몬시대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은 견과류 수목(참나무, 밤나무)의 인위적 성장 촉진 가능성은 빈약하다. 식물재배 여부와 무관하게 탄수화물의 주된 섭취원은 도토리 같은 야생자원이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3) 신석기시대 잡곡재배는 가구단위의 소규모 인원으로 충분히 시행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구집중 현상을 촉진하지 않았다. 4000~3000 BC에 주거유적의 수가 증가하고 이는 일부나마 식물재배라는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적은 수기의 주거지로 구성된 소규모 유적이다. 작물재배에 많은 노동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작물재배가 사회분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인구분

산이라는 강력한 사회평등화작용(Leveling Mechanism)이 항시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였다.

(4) 청동기시대에 이르면 벼를 위시하여 맥류, 잡곡, 두류 모두 재배 증거가 확실해 진다. 식물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상, 다른 식물들도 재배되었을 수 있다. 복숭아·박·오이·참외·배추·갯·들깨·대마 등 다양한 식물이 재배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실증적인 증거는 없다.

(5) 벼, 특히 논벼의 재배는 논과 수리시설 조영의 필요성을 가져오고 이는 인구집중과 농업공동체 형성을 촉진시켰을 것이다. 일반적인 벼농사 집단과 마찬가지로 청동기시대 지도자의 권력 기반은 공동체에 근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공동체 지향적 권력획득 방식(Corporate-oriented strategy)이다. 이럴 경우 개인적 축재(蓄財)는 지양되고 잉여생산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반도의 선사, 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지향성이 두드러진 사회라고 판단되며 이런 균형이 급격히 깨진 것은 고대국가 형성기에 이르러서였을 것이다.

<참고문헌>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7, 『김포 태리 유적: 김포 태리 학교 및 진입도로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감정1지구 도시개발조합, 풍무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동아시아 고고식물 선사시대 한국편』, 국립문화재연구소.

김경택·김민구·류아라, 2012, 「부여 송국리 유적 수혈의 기능: 제14차 발굴 자료의 검토」, 『고문화』 79, 29-50.

농촌진흥청, 2020,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품정보, <http://www.naas.go.kr>. 마지막 접속일 2020년 4월 30일.

박태식, 2009, 「고대 한반도에서 재배된 벼의 전래경로에 대한 고찰」, 『한국작물학회지』 54, 119-123.

사회과학원, 1956, 『지탑리 원시유적 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평양.

안승모, 2008,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작물조성: 종자유체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28, 5-50.

안승모, 2013, 「한반도 출토 작물유체 집성표」, 『농업의 고고학』 안승모(편), 한국고고학회, pp. 275-302.

안승모, 2014, 「혼암리유적 출토 탄화미 재고」, 『한국청동기학보』 14, 40-64.

이경아, 2014, 「한반도 신석기시대 식물자원 운용과 두류의 작물화 검토」, 『중앙고고연구』 15, 41-60.

이경아·윤호필·고민정, 2012, 「선사시대 쌀의 이용 및 작물화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75, 169-187.

이춘녕·박태식, 1978, 「한국 출토 탄화곡물에 관하여(1): 혼암리 선사주거지의 탄화미 측정」, 『서울대학교 농학연구』 3-2-2.

이춘녕·박태식, 1979,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무문토기 주거지 출토 탄화미에 대하여」, 『송국리』 강인구·이건무·한영희·이강승(역), 국립중앙박물관, pp. 153-154.

임효재, 1990, 「경기도 김포반도의 고고학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박물관연보』 2, 1-22.

임효재·鈴木三男, 2000, 「金浦泥炭層とその当時の古環境研究」, 『김포반도 고대 쌀문화의 위치』, 김포문화원·한국선사고고학회(역), 서울, pp. 31-52.

한창균·구자진·김근완, 2014, 「대천리 신석기유적 탄화곡물의 연대와 그 의미」, 『한국신석기연구』 28, 41-60.

Ahn, S.-m., 2010. The emergence of rice agriculture in Korea: archaeobotanical perspectives. *Archa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ciences* 2, 89-98.

Bray, F., 1986. *The Rice Economies: Technology and Development in Asian Societies*. Blackwell, New York.

Blanton, R.E., Feinman, G.M., Kowalewski, S.A., Peregrine, P.N., 1996. A dual-processual theory for the evolution of Mesoamerican civilization. *Current Anthropology* 37, 1-14.

Crawford, G.W., 2005. East Asian plant domestication, in: Stark, M.T. (Ed.), *An archaeology of Asia*. Blackwell Pub., Malden, MA, pp. 77-95.

Crawford, G.W., 2009. Agricultural origins in North China pushed back to the Pleistocene-Holocene boundar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6, 7271-7272.

d'Alpoim Guedes, J., Jin, G., Bocinsky, R.K., 2015. The impact of climate on the spread of rice to North-Eastern China: A new look at the data from Shandong Province. *PLoS ONE* 10, e0130430.

Hastorf, C., 1998. The cultural life of early domestic plant use. *Antiquity* 72, 773-782.

Jin, G., Wagner, M., Tarasov, P.E., Wang, F., Liu, Y., 2016. Archaeobotanical records of Middle and Late Neolithic agriculture from Shandong Province, East China, and a major change in regional subsistence during the Dawenkou Culture. *The Holocene* 26, 1605–1615.

Jin, G., Wu, W., Zhang, K., Wang, Z., Wu, X., 2014. 8000-Year old rice remains from the north edge of the Shandong Highlands, East Chin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51, 34–42.

Mason, S., 2000. Fire and Mesolithic subsistence – managing oaks for acorns in northwest Europe? *Palaeogeography, Palaeoclimatology, Palaeoecology* 164(1): 139~150.

Kelly, Robert L (성춘택 역), 1995 (2014). *The foraging spectrum: diversity in hunter-gatherer lifeways* (수렵채집사회).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사회평론아카데미), Washington.

Kim, M., Shin, H.-N., Kim, S., Lim, D.-j., Jo, K., Ryu, A., Won, H., Oh, S., Noh, H., 2015. Population and social aggregation in the Neolithic Chulmun villages of Kore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40, 160–182.

Lee, G.-A., 2011. The transition from foraging to farming in prehistoric Korea. *Current Anthropology* 52, S307–S329.

Lee, G.-A., Cho, M.-s., Obata, H., 2019. Coastal farmers during the Early and Middle Holocene: Archaeobotanical and grain impression studies on the east coast Korea. *Quaternary International* 529, 57–74.

Smith, E. A., Hill, K., Marlowe, F. W., Nolin, D., Wiessner, P., Gurven, M., Bowles, S., Mulder, M. B., Hertz, T., & Bell, A., 2010. Wealth transmission and inequality among hunter-gatherers. *Current anthropology* 51(1), 19–34.

USDA, 2020, USDA National Nutrient Database for Standard Reference, Release 21.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Nutrient Data Laboratory Home Page, <http://www.ars.usda.gov>. Last accessed on 04-30-2020.

Zvelebil, M., Rowley-Conwy, P., 1986. Foragers and farmers in Atlantic Europe, in: Zvelebil, M. (Ed.), *Hunters in transition: Mesolithic societies of temperate Eurasia and their transition to farm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67–93.

제2발표

社會經濟的 變化로 본 청동기시대 前·中期 分期

金範哲
충북대학교

-
- I. 서론
 - II. 청동기시대 중기 설정의 몇 문제
 - III. 개괄: 청동기시대 전-중기 전이과정의 사회경제적 변화
 - IV. 사회경제적 변화상의 지역별 비교: 영역별 접근
 - V. 결론
-

I. 서론

인류의 과거를 다루는 학문에서 시대(또는 시기) 구분은 사실상 해당 시대(또는 시기)에 관련된 여러 갈래 연구의 總和이다. 사회 여러 영역에서, 구분대상이 된 두 시기 사이의 차이가 망라되기 때문이다. 고고학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유물의 形態나 (數)량의 변이를 인지하면서 시작되는 고고학의 시간성과 사회경제적 변화 사이의 잠재적 괴리는 종종 편년이 진퇴유곡의 상황에 처하게 한다. 고고학적 문화(내용)의 변화, 새로운 (생계)경제방식의 수용, (적잖은 경우, 사회변화를 유발하는) 인구 규모의 변화가 일관적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인지하는 指標나 方式, 그 程度에 대한 판단도 연구자들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靑銅器時代 前·中期의 분기와 그 사회경제적 함의를 되짚어보는 일은 성과 정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조기와 후기를 반영하는 자료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포괄적이고 풍부하게 축적된 자료는 전-중기 전이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왔다. 그러나 문화형성과정에 대한 단순논리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은 그런 풍부한 자료를 다루는 데에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해 기존 분기의 결합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지니는 의미를 검토하는 작업이나 청동기시대 전·중기 전이과정에 발생한 변화에 대한 현재의 이해를 생산적인 후속 연구로 전화시켜가는 작업은 또 다른 실험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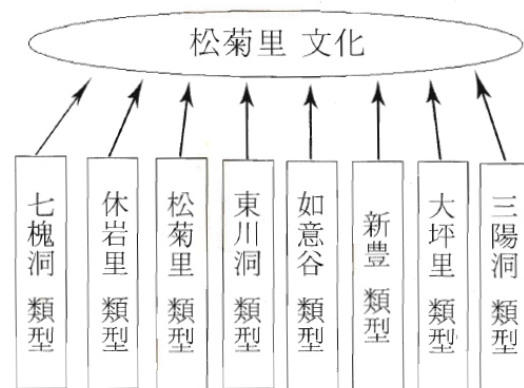
II. 청동기시대 중기 설정의 몇 문제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前期’를 제외하면, 청동기시대 편년은 ① 주거나 토기양식 등 단편적인 문화요소들을 인지한 뒤, ② 유물복합체(assemblage)를 확대·강화하고 ③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면서 발견 사례를 축적하고 거기에 ④ 사회경제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립되어왔다. 후기·중기·조기가 모두 그러하다.

본 발표의 대상인 中期는 1960·70년대 서산 休岩里(1968~69년 3차례 발굴)와 광주 松岩洞(1977년 발굴), 부여 松菊里(1975~2019년 24차례 발굴) 등 유적의 조사에서 송국리식 주거나 토기를 확인하고, 그것을 핵심으로 삼아 몇 가지 석기를 부가하고, 그 조합의 광범한 분포를 파악하여 이른바 ‘松菊里類型’을 정립(安在晔 1992; 李清圭 1988)해가는 과정에서 설정(河仁秀 1989, 1992)되었다. 더 나아가, 송국리유형이 포괄하는 지역 밖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가 상세해지고 ‘순수공렬’의 단계가 인정(金權中 2005; 李秀鴻 2012)되면서 ‘중기’는 밀도 높은 全域的인 시기로 입지를 공고히 한다.

1. 유형 형성, 시기 구분, 사회경제적 변화

송국리유형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무척 긴 구성인의 목록이 상정(孫峻鎬 2002)되고 결국 남한(서남쪽) 절반의 거의 모든 문화내용을 포괄하게 된다. 이는 앞서 살핀 4단계의 ②·③이 輪唱이나 繼走처럼 진행되면서 상호강화와 동반상승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일군의 墓制와도 긴밀히 연결(金承玉 2001)된 결과라 하겠다. 결국 송국리유형과(최소한 남한반쪽의) 중기가 동일시 된 셈이다. 더 나아가 적잖은 양식적 변이가 ‘文化-亞文化(culture-subculture, Clarke 1968)’체계에 흡수(그림 1)되면서 그러한 인식은 한층 강화된다.



〈그림 1〉 송국리문화 구조도(崔鍾圭 2005:223)

그리하여 실상 유형이 정의되지 않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 결과,

“각 유형으로 설정된 유구(주거지)와 유물(토기)이 서로 어긋나거나 복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이

창희 2016:75)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간 청동기시대 편년과정에서 ‘유형’의 설정방법과 의미에 대한 설명은 간헐적이거나 계속되어왔다(朴性姬 2015; 安在晔 2006; 李清圭 1988). 유형 설정의 관행과 전제에 대한 교훈적 비판도 있었다(金玟澈 2008; 朴性姬 2015; 성춘택 외 2018; 안재호 2009; 李盛周 2006). 앞서 서술한 내용에 따르면, ‘中期’는 더더욱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형 설정과정에서의 이론 불비는 선행연구들에서 충분히 지적된바, 여기서는 상술하지 않는다. 또한 서구고고학에서 이 단위는 이것을 의미하고 저 단위는 저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고고학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고 싶지 않다. 다만, 사회경제적 변화를 인지하는 작업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몇 가지만 검토해보기로 한다.

우선, 발표자는 실전에서 유형과 분기를 동일시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사실, 유형을 비롯한 단위의 설정이 작위적이듯, 시기 구분도 그러하다. 특정 유형의 완성시점을 계기로 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무언가는 구분해야 하는 분류나 시기 구분이 가지는 원론적이고 태생적인 한계—‘必要惡’이라고 해도 무방함— 이상의 비판을 받는 것은 그다지 공정해보이지 않는다. ‘구분짓기가 가지는 비역동성을 부정하거나 우리 고고학에서 유형 설정이 충분한 이론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성춘택 외 2018)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현상 파악을 위한 단위의 필요성은 피력한다. 변화나 변이의 인지는 상이한 두 가지(이상)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실전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유형 개념의 정확한 적용이나 그(완성)시점의 정확한 파악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변화’를 인지하는 작업은 다소 성근 편년체계에서라도 전후 시기의 비교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시기들의 어느 시점을 택하더라도 방향과 과정을 알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인지하기 위한 자료는 유형을 구분하는 양식적 특징이 아니라, 특정 사회적, 경제적 현상을 반영하는 대응자료(proxy)들이다. 따라서 유형의 설정이나 분기가 역동성을 반영하고 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인지하는 데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그 방향, 과정, 기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에 대한 감지 자체는 그다지 시기 구분의 정확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파악한다고 했을 때, 분기 경계면에 맞닿아서 비교하지 않고 전기의 중간 즈음과 중기의 중간 즈음을 비교하더라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차이는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兩端이 될 수 있다. 물론, 더 세분하여 파악할 수 있고 그리하여 양단을 잇는 선이 직선이 아니라 파동이라면, 변화의 역동성을 더 양호하게 파악할 수는 있으나(해상도를 낮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변화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점은 분명하다.

형식이건 유형이건 형태 단위를 설정하는 작업은 개별 유물 위치든, 개별 주거지든, 유적이든 공간단

위를 설정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유적(site)' 개념의 모호함과 자의적인 획정에 불편을 느낀 일군의 연구자들이 (박편을 포함한) 개별 석기의 위치를 일일이 표시하는 작업을 수행(Camili and Ebert 1992; Dunnell and Dancy 1983; Ebert 1992)한 적이 있다. 자의적 획정보다 분포의 밀도변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취지였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그중 포괄범위를 획기적으로 넓게 달성한 경우가 0.9ha—9,000㎡ 또는 2723坪—에 불과했다(Ebert 1992).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광역적 연구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인위적인 획정을 하지 않고 밀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되, (픽셀의 크기를 늘리듯) 1ha 그리드를 단위로 광역적 조사를 수행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Drennan et al. 2003). 발표자가 보기에 '유형론' 자체는 전국의 문화양상을 빠르고 선명하게 파악하기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현재로서 대안은 무엇인가? 마땅하지 않아 보인다. 특정 유물의 형식에 집중하면 유형론을 적용했을 때와 크게 달라질까? 하는 질문을 아니 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유형 개념에서 촉발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단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오히려 실천에서는 작위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보다는 대상을 엄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 그런 현상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 등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송국리유형이 문제된다고 하자. 과연 송국리유형은 어떤 요소—유물이나 형식—들로 구성되는지, 그렇게 정의된 송국리유형은 어느 정도 빈도나 비율로 확인되는지, 유형 인지의 단위가 개별 주거인지 또는 유적인지 등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 송국리유형이 너무 포괄적이 된 나머지 혼란스럽다.

그러한 실행상의 혼란스러움은 유형을 이용한 시기 구분에서도 나타난다. 특정 유형이 새로운 시기를 대표하게 하려면, (임의로) 정의된 유형이 완성된 시점이 시기 구분의 시점이 되어야 한다. 종종 유형을 구성하는 개별 인자—특정 유물이나 속성—의 등장시점을 추적하며, 시기의 상한 연대를 상향 조정하는 시도는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에서 그러한 시도는 혼선을 가중시킬 뿐이다. 유형설정과 시기 구분의 관계는 직선적이고 단순해야 한다.

물론, 형태적 변이에 주목한 상대연대만이 유용한 것은 아니다. 절대연대 순으로 유적을 자리매김하고, 특정 시점을 분기의 경계로 삼을 수 있으면 문제는 없다. 분기하지 않고, 특정 사회경제적 현상의 발생시점을 파악하는 것도 시도해 볼만하다. 다만, 그럴 경우, 대상이 된 현상의 발생과 지속은 알 수 있으나 고고학적 문화현상과는 유리될 수도 있음은 분명하다. 더구나 절대연대를 파악할 시료가 없던지, 절대연대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특정 현상의 공간적 또는 시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2. 지역별 편차, 사회경제적 변화, 통합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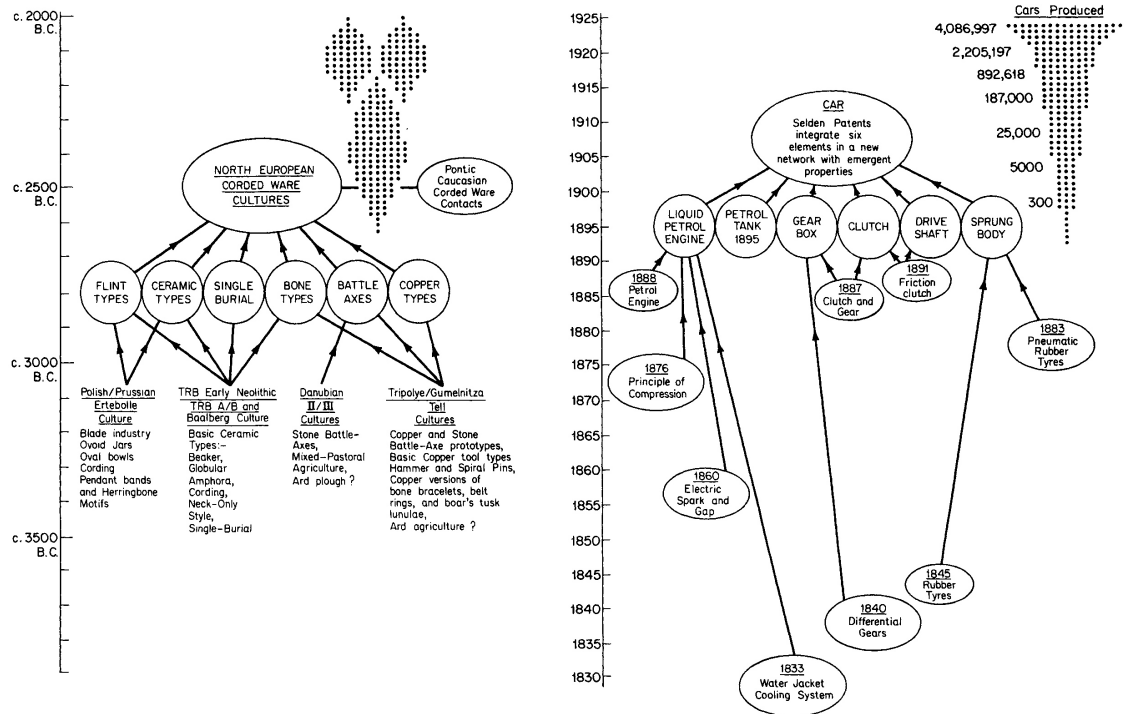
송국리유형이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중기'와 실질적인 동치를 이루면서 전·중기 분기는 상대적으로 덜 어렵다. 그렇다고 지역적 변이를 무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른바 '송국리문화분포권(김범철

2018a; 김승옥 2006; 李秀鴻 2012)'을 대상으로 한 주장도 빈번하게 제기되어왔고, 七槐洞유형, 休岩里유형, 松菊里유형, 東川洞유형, 如意谷유형, 新豐유형, 大坪里유형, 三陽洞유형 등 '局地類型'에 대한 구체적인 명명도 시도되었다(崔鍾圭 2005). 구체적인 명명은 없어도 편년과정에서 지역별 문화양상을 살피는 시도도 적지 않다(쇼다 신야 2009; 安在皓 1992; 안재호·이형원 편 2016). 더 나아가 송국리유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거양식의 변이 또한 구체적 명명을 통해 지적되기도 하였다(金奎正 2013; 유병록 2019a; 李健茂 1992). 다른 한편으로, 堂洞里유형, 泉田里유형, 浦月里유형, 檢丹里유형 등이 상정되는 것처럼, 이른바 '송국리문화 비분포권(김범철 2018a; 김승옥 2006; 李秀鴻 2012)' 내에서도 그런 상황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김승옥 2006; 安在皓 1992; 李秀鴻 2012).

앞서 살핀, 송국리유형을 확대·강화하는 논리는 역설적으로 청동기시대 중기에 적지 않은 지역성이 있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지역성은 왜, 어떻게 나타났던 것일까? 특정 지점 또는 局所지역에서 기원한(또는 형성된) 유형이 과급되는 과정에 모방오류(copying error, Eerkens and Lipo 2005), 상이한 基層文化를 가진 탓에 나타난 정신적 주형(mental templete, Deetz 1967) 또는 교육된 습관(habitus, Dietler and Herbich 1998)의 차이가 작동한 탓일까?

이즈음에서 형식, 유형 또는 문화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 청동기시대 고고학에는 매우 일원적인 문화형성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전·중기 전이 무렵에 주목하면, 송국리유형 형성의 재지설 대 이입설의 논쟁이며, 특정 유물이나 유구 형식의 등장, 특정 유적의 형성과정을 특정유형의 기원으로 상정하면서 유형의 형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은 그런 경향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類型'문제를 언급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클라크(David L. Clarke)가 제기했던 바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일원적 유형 형성에 대한 관점을 되짚어보자. 그림 2에는 문화형성 및 유물형식의 형성에 관한 그의 생각이 함축되어있다. 개별 구성인자의 형성시점과 계통이 다르더라도 다 갖춰지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 특정 지점에서 완성된 조합이 등장한다(Clarke 1968).



〈그림 2〉 문화 및 형식의 구성인자 (Clarke 1968:272~273)

더 나아가 쉬퍼(Michael Schiffer) 등이 제기하는 바, 구성인자의 발원지가 제법 이격되어 있음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Schiffer 2005; Arnold 2007). 이러한 생각은 새로운 유형의 성립이 '발명(invention)'이라는 기제가 작동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발명의 과정에서 수많은 시도가 있을 테지만 대부분이 폐기되거나 잔존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만 남듯이 우리가 현재 유형이라고 인정하는 물질문화의 잔적은 그중 재현에 성공한(?) 시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모두 인정하자면, (송국리유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송국리식 주거 발달(羅建柱 2013)의 (그림 2의 오른쪽 모식도를 따라 상정할 수 있는) 縱深은 수십 년 또는 백년 이상의 기간이 될 것이다. 그기간 동안 이러저런 시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적잖은 것들은 채택·재현되지 못하고 사라졌을 것이고, 설혹 재현되었다 해도 현재 확인할 수 없게 된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松菊里式'이라고 이름 붙일 것들은 양적인 우위를 점한 성공적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형식 또는 유형 형성과정에 대한 관점에서 보자면, 지역적 변이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거기서 역동성도 담보할 수가 있겠다. 완성된 형태의 전과 후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이즈라기보다는 국지형식이나 국지유형도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다양한 시도들을 재조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지역색의 발현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후술할 바와 같이) 남한 전역은 청동기시대 전-

중기 전이과정에서 유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그런데, 지역별 물질문화에서 (다소의) 이질적인 모습이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변화가 보편적으로 인지되는 상황이라면, 그 원인에 대한 매우 맹렬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상이한데 물질문화의 양식적 동질성이 인지되는, 그 반대의 상황보다는 더 복잡한 설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사회경제적 변이가 생태적 다양성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양식적 동질성은 문화전파를 통해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처럼 상이한 문화양상을 띤 집단이 어떤 이유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설명되어야 남한 전역을 포괄하는 통합편년(김승욱 2015; 이형원 2016)도 온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과연, 통합편년과 사회경제적 변화가 전역적으로 일치할 수 있을까?

III. 개괄: 청동기시대 전-중기 전이과정의 사회경제적 변화

현재까지 전-중기 전이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제시되어온 사회경제적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 ① 취락분포유형에서 관찰되는 광역적 정치체(regional polity)의 형성(金範哲 2005b; 송만영 2007)과 구성공동체 간 규모/기능적 분화(金範哲 2005a; 安在晔 2004; 이형원 2009)
- ② 방어시설(환호, 목책 등)의 확충에서 보이는 취락 간 갈등(金吉植 1998; 宋滿榮 1996; 安在晔 1992; 崔鍾圭 1993) 또는 공동체 내부의 결속력 강화(김범철 2011a)
- ③ 주거 분포패턴에서 인지되는 공동체 내 가구 양태의 변화(權五榮 1995, 1997; 김범철 2011a:159~197, 2012, 2018a; 金賢植 2007; 安在晔 1996)와 가구 간 신분/빈부차의 심화(金範哲 2006a),
- ④ 분묘에서 보이는 공동체 내·외의 階層分화(金範哲·朴姓煥 2012; 金承玉 2001, 2007; 李盛周 2015; 平郡達哉 2013) 및 首長(層)의 등장(金吉植 1998; 崔鍾圭 1995)
- ⑤ 水田을 이용한 집약적 미곡생산의 본격화(金範哲 2006b·c, 2011a; 李弘鍾 2000)
- ⑥ 집단적 저장체계의 강화(金範哲 2014, 2017a·b; 金壯錫 2008, 2014; 禹姬延 2014; 許義行 2011)
- ⑦ 공동체 내외의 분업화 또는 (위세품의) 수공전문화(高旻廷·Bale 2008; 孫峻鎬 2003; 쇼다 신야 2009; 李弘鍾 2005; 趙大衍·朴書賢 2013; 洪周希 2009, 2017; 황창한 2013)
- ⑧ 지식묘 분포양상에서 보이는 巨石記念物 축조의 급속한 확산(金範哲 2010a·b)
- ⑨ 취락 내 (추정)의례건물지나 의례공간에서 보이는 (집단)의례의 內村化 및 빈도 증가(金範哲 2011a, 2015; 이형원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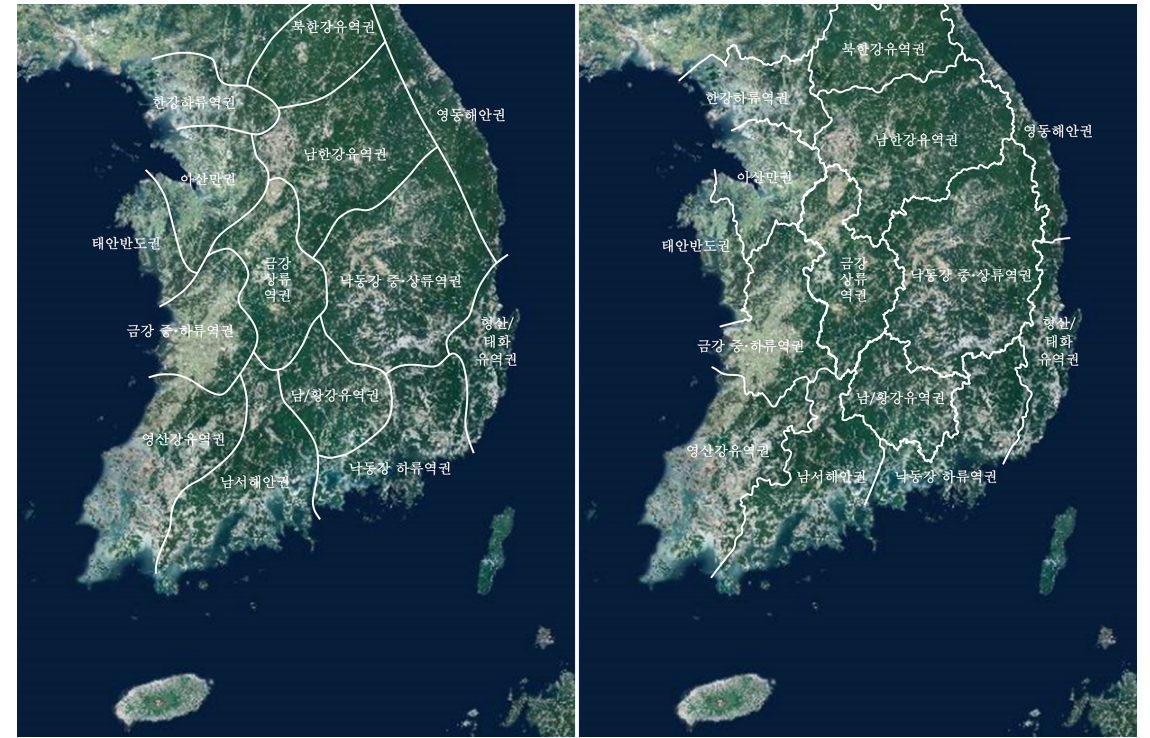
언뜻, 정확한 설명이 없으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수의 변화가 남한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실제로 남한 전역을 통관으로 다루는 개론서—예를 들어,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5—의 '사회성격과 관련된 장에 이르면, 그렇게 서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면서 기존의 편년체계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사회문화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나게 된다(金奎正 2007; 안재호 2016).

그런데 그러한 기대에는 다소의 우려할 만한 요소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곤란할 듯하다. 사회(경제)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분기를 시도하는 작업은 언뜻 개연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도 도출할 것처럼 보이고, 그간의 편년작업이 배태했던 문제를 개선해 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고고학의 연구 절차상 순환논리의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기도 하거니와 고고학 고유의 시간성 인지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고고학은 문화내용의 변화, 즉 (광의의) 유물의 형태와 양의 변화를 통해 시간을 인지하고 시기를 구분한다. 그런 연후에 전·후 시기의 (물질)문화내용에서 도출될 수 있는 사회현상을 비교하면서 변화를 상징하고 그 방향을 이해하게 된다. 시간의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교대상 시기들은 설정될 수 없고, 대상 시간 간 변이가 변화로 전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화로 그 편년체계 또는 분기(시점)를 조정하려 한다면, 기존의 시간인지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만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지역에서 특정 변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할 수도, 선행(또는 후행)할 수도 있다. 사실 이것이 실제에 가깝다. 만약 시기 구분의 결과 동시에 전역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인지했다면, 그것은 편년의 결과일 뿐 그것이 원인이 될 수는 없다. 다양한 局地類型의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지역별 편차(쇼다 신야 2009; 安在晔 1992; 안재호·이형원 편 2016; 崔鍾圭 2005)를 부정할 수 없고 지역 간 특정 사회경제적 변화의 강약이나 시차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는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IV. 사회경제적 변화상의 지역별 비교: 영역별 접근

다음에서는 앞서 열거한 9가지 변화를 개별 영역으로 삼아 지역별 상대적 강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 시작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담보되는 지역을 구분하는 작업이 되겠다. 그간 다양한 지역 구분이 이루어져왔는데, 해상도의 차이도 있고 실제 경계의 (미세한) 차이도 있다. 발표자는 유적의 분포는 물론 지리적 요소를 고려한 쇼다 신야의 안(2009)에 잠정적으로 동의하면서 실제 수계와의 관계를 현실화하여 그림 3과 같은 지역 구분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수계와 연결되어야 다양한 환경·생태자료 및 토지 이용에 관련된 자료와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3〉 지역구분(左: 쇼다 신야 2009:26, 右: 조정)

〈표 1〉은 그런 작업의 결과를 반영한다.¹⁾ 비록 잠정적인 것이고 개별 칸의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독자도 있겠으나, 〈표 1〉은 최소한 그간 우리가 큰 부담 없이 전역적일 것으로 추측했던 여러 변화들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양상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바(崔範植 2015)이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해 통합편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기대에 경종을 울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강도가 '下'로 표시된 것 중의 상당부분은 그런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관련 연구의 축적이 아직 미흡하여 본격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인구변동(Oh et al. 2017), 장거리교역 등 영역도 잠재적 후보군에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의 요체가 양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김범철 2016)이 있는바, 인구규모의 (급격한)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동기시대 전·중기 전이과정의 여러 변화를 포괄하는 것이 상위유력층 또는 首長(層)의 발달이라면, 위세품이나 사치품 위주의 장거리교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세계 여러 지역의 예로 보건대, 충분히 상정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우리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진전에 따라 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측면이 후보군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1) 지역별 특정 사회경제적 변화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양상을 종합적 연구들에 주목했다. 대부분이 학위논문들이다. 영동해안권: 朴榮九(2015) / 북한강유역권: 金權中(2005, 2014), 김현준(2017), 洪周希(2010) / 남한강유역권: 김권중(2014), 신수화(2014) / 한강하류유역권: 김현준(2017) / 아산만권: 李宗哲(2015) / 태안반도권: 李宗哲(2015) / 금강 상류유역권: 金奎正(2013), 李宗哲(2015) / 금강 중·하류유역권: 李宗哲(2015) / 낙동강 중·상류유역권: 俞炳瓌(2019b) / 남/황강유역권: 高旻廷(2020) / 낙동강 하류유역권: 俞炳瓌(2019b) / 남서해안권: 金奎正(2013) / 영산강유역권: 金奎正(2013) / 형산/태화강유역권: 李秀鴻(2012)

〈표 1〉 권역별 사회경제적 변화의 강도

지역구분 \ 사회경제적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영동해안권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북한강유역권	上	下	中	下	下	中	中	下	下
남한강유역권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한강하류역권	中	中	下	下	下	下	下	下	下
아산만권	中	下	下	下	下	下	下	下	下
태안반도권	上	下	中	下	下	中	中	下	中
금강 상류역권	上	下	下	上	下	中	中	中	中
금강 중·하류역권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中	上
낙동강 중·상류역권	上	中	中	上	下	中	中	中	上
남/황강유역권	上	上	中	中	中	上	上	中	中
낙동강 하류역권	上	中	上	上	下	中	中	中	上
남서해안권	中	中	中	上	下	下	下	上	下
영산강유역권	中	下	上	下	下	下	下	上	下
형산/태화강유역권	上	上	中	下	上	中	中	下	中

다른 한편으로 〈표 1〉에 요약된 작업이, 지역별 사회경제적 변화의 강도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다. 다른 곳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역별 접근(dimensional approach, Drennan 1991; Earle 1991, 1997)은 단순히 개별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의 과정(process)과 그에 작용했던 기제(mechanism)를 파악하는 이론화에 첫걸음이 될 수 있다(金範哲 2011b). 청동기시대 전-중기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다소 문화적 전통을 달리하는 지역에 따라 상이해지는 원인을 추정하는 연구들을 촉발할 수 있다. 만약 미래에 연구가 축적되어 전역적인 변화가 인정된다면, 상이한 문화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화작업도 유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후속작업은 고고학 특유의 양식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자료를 흡수하면서 생산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표 2〉는 그 일례로, 개별 권역의 환경과 토지이용—1975년까지—에 관련된 자료이다. 물론, 간단한 사례일 뿐, 여기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金範哲 2018b, 2019)와 같은 요소도 흥미로운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 이루어진 작업은 다양한 후속연구를 추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 2〉 권역별 환경과 토지이용

지역구분 \ 사회경제적 변화	유역면적 (km ²)	총길이 (km)	표고 100m 이상 면적(km ²)	논 (km ²)	밭 (km ²)
영동해안권	5,295.53	11,455.28	4,055.34	512.56	548.23
북한강유역권	5,092.41	6,703.36	4,963.29	126.62	328.14
남한강유역권	1,139.99	3,262.82	723.54	151.03	77.16
한강하류역권	2,326.66	3,454.36	2,181.90	107.51	188.25
아산만권	12,407.57	24,306.99	11,178.24	907.66	1,521.34
태안반도권	4,146.58	6,413.04	1,254.92	748.08	461.66
금강 상류역권	4,973.37	10,402.59	955.35	1,188.41	712.35
금강 중·하류역권	2,290.18	2,359.87	409.49	412.30	245.10
낙동강 중·상류역권	6,867.61	17,492.47	5,566.85	838.72	698.17
남/황강유역권	6,413.59	10,992.47	2,056.92	1,522.30	618.19
낙동강 하류역권	15,075.54	45,140.97	12,334.86	1,607.67	1,524.81
남서해안권	5,271.96	15,635.18	3,945.16	683.80	364.70
영산강유역권	5,803.16	12,948.54	3,411.56	954.69	434.19
형산/태화강유역권	8,804.63	13,913.26	6,091.93	1,264.02	733.66

V. 결론

앞에서 청동기시대 전-중기 전이과정에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양 시기의 분기 작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방 후 다방면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청동기시대 중기를 설정하고, 그 사회적 특징을 복원한 것은 우리 고고학의 중요한 성과이다. 그런데 청동기시대 전-중기 전이과정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는 타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현재 통용되는 편년 안에서 전기와 중기를 비교하면서 얻어진 것들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특정 변화들은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화로 현재의 통합편년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용자료들을 흡수하면서 지역차의 과정과 기제를 밝히려는 후속 연구를 통해 기왕의 성과는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高旻廷, 2020, 「南江流域 青銅器時代 聚落과 生業」,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고민정 · Bale, Martin,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분화」, 『韓國青銅器學報』 2, pp.83~115.

權五榮, 1995, 「三韓社會 ‘國’의 구성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10, pp.11~53.

權五榮, 1997, 「한국고대의 취락과 주거」, 『韓國古代史研究』 12, pp.45~73.

金權中, 2005, 「北漢江流域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龍岩里 · 泉田里 遺蹟을 中心으로」,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김권중, 2014, 「제2장 중부지역」,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 聚落』, 김권구 · 공민규 편, pp.122~147, 서울: 서경문화사.

金奎正, 2007, 「青銅器時代 中期設定과 問題」, 『韓國青銅器學報』 1, pp.65~83.

金奎正, 2013, 「湖南地域 青銅器時代 聚落 研究」, 慶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金吉植, 1998, 「扶餘 松菊里 無文土器時代墓」, 『考古學誌』 9, pp.5~49.

金玟澈, 2008, 「類型과 種族性(ethnicity)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청동기시대 전기 諸무문토기유형과 관련하여」, 『韓國上古史學報』 62, pp.5~25.

金範哲, 2005a, 「錦江下流域 松菊里型 聚落의 形成과 稻集約化: 聚落體系의 空間的 相關關係에 대한 GIS 分析을 中心으로」,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편, pp.84~119, 서울: 서경문화사.

金範哲, 2005b, 「錦江 中 · 下流域 青銅器時代 中基 聚落分布類型 研究」, 『韓國考古學報』 57, pp.99~124.

金範哲, 2006a, 「錦江 中 · 下流域 松菊里型 聚落에 대한 家口考古學的 접근: 多次元尺度法을 이용한 家口 間 貧富差/位階 분석을 中心으로」, 『韓國上古史學報』 51, pp.79~108.

金範哲, 2006b, 「중서부지역 水稻 生産의 정치경제: 錦江 중하류역 松菊里型 聚落體系의 위계성과 稻作集의化」, 『韓國考古學報』 58, pp.40~65.

金範哲, 2006c, 「忠南地域 松菊里文化의 生計經濟: 農業集約化 관련 설명모형을 통해 본 稻作集」, 『湖南考古學報』 24, pp.65~94.

金範哲, 2010a, 「호서지역 지식묘의 시공간적 특징」, 『韓國考古學報』 74, pp.44~73.

金範哲, 2010b, 「호서지역 지식묘의 사회경제적 기능」, 『韓國上古史學報』 68, pp.5~24.

김범철, 2011a, 『쌀의 고고학: 한국 청동기시대 水稻作과 정치경제』, 서울: 민속원.

金範哲, 2011b, 「동북아시아 제 지역 초기복합사회 비교」, 『東北亞歷史論叢』 33, pp.251~302.

金範哲, 2012, 「青銅器時代 家口變化의 社會經濟的 意味: 中西部地域을 中心으로」, 『韓國上古史學報』 76, pp.27~49.

金範哲, 2014, 「湖西地域 青銅器時代 家內 貯藏樣相 變化의 意味」, 『韓國上古史學報』 83, pp. 53~68.

金範哲, 2015, 「10. 사회성격」,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pp.186~206, 서울: 진인진.

김범철, 2016, 「量, 왜 문제되어야 하나?」, 『時, 空, 形態 그리고 量: 한국고고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pp.122~148, 서울: 진인진.

金範哲, 2017a, 「貯藏, 剩餘, 指導權: 湖西地域 青銅器時代 集團貯藏施設의 考古學的 理解」, 『한국상고사학보』 95, pp.79~111.

金範哲, 2017b, 「〈貯藏, 剩餘, 指導權: 湖西地域 青銅器時代 集團貯藏施設의 考古學的 理解〉(김범철, 2017, 한국상고사학보 95)에 대하여」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97, pp.155~163.

金範哲, 2018a, 『가옥, 가족, 가구: 青銅器時代 社會변화에 대한 家口考古學的의 이해』, 청주: 충북대학교 출판부.

金範哲, 2018b, 「溫暖濕潤혹은 寒寒乾燥?: 韓國先史時代 文化變動에 대한 氣候考古學的 接近 試論」, 『湖西考古學』 39, pp. 4~31.

金範哲, 2019, 「韓國 先史時代 生計(經濟)戰略의 時 · 空間的 變異와 氣候」, 『湖西考古學』 44, pp.32~53.

金範哲 · 朴姪煥, 2012, 「湖西地域 松菊里型 墓制의 階層化樣相 論議」, 『韓國考古學報』 82, pp.4~43.

金承玉, 2001, 「錦江流域 松菊里型 墓制의 研究」, 『韓國考古學報』 45, pp.45~74.

김승욱,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韓國考古學報』 60, pp.4~37.

김승욱, 2007,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편, pp.61~139, 서울: 사회평론

김승욱, 2015, 「편년과 지역적 이해」,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pp.42~65, 서울: 진인진.

김장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韓國考古學報』 67, pp.4~39.

김장석, 2014, 「청동기시대 정치경제학과 권력의 재원조달 재론」, 『한국상고사학보』 86, pp.5~29.

金賢植, 2007, 「세대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고찰」, 『東亞文化』 2 · 3, pp.119~138.

김현준, 2017, 「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漢陽大學校 博士學位論文.

羅建柱, 2013, 「青銅器時代 前期聚落의 成長과 松菊里類型 形成過程에 대한 研究: 韓半島中西部地方 資料를 中心으로」, 忠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朴性姬, 2015, 「南韓 青銅器時代 住居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朴榮九, 2015, 「東海岸地域 青銅器時代 聚落 研究」, 嶺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성춘택 · 문수균 · 양혜민, 2018, 「비평논문 물질문화의 유형과 고고학 분석의 단위: 한국 청동기시대 유형론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109, pp.326~357.

孫峻鎬, 2002, 「錦江流域 松菊里文化段階의 支石墓 檢討」, 『古文化』 60, pp.3~25.

孫峻鎬, 2003, 「磨製石器 分析을 통한 寬倉里遺蹟 B區域의 性格 檢討」, 『韓國考古學報』 51, pp.5~31.

宋滿榮, 1996, 「火災住居址를 통해 본 中期 無文土器時代 社會의 性格」, 『古文化』 49, pp.71~102.

송만영, 2007,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편, 서울: 사회평론, pp.25~59.

쇼다신야, 2009,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서울: 학연문화사.

신수화, 2014, 「남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연구」,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安在皓, 1992, 「松菊里類型的 檢討」, 『嶺南考古學』 2, pp.1~34.

安在皓, 1996,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 住居址를 통한 中期의 設定」,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pp. 43~90, 대구: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刊行委員會.

安在皓,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3, pp.1~24.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安在皓, 2009, 「南韓 青銅器時代 研究의 成果와 課題」,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 pp.11~108, 서울: 학연문화사.

안재호, 2016, 「청동기시대의 시기 구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編年』, 안재호 · 이형원 편, pp.19~39, 서울: 서경문화사.

안재호 · 이형원 편, 2016,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編年』, 서울: 서경문화사.

禹姪延, 2014,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 저장전략 비교연구: 물리적 · 사회적 저장전략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85, pp.105~134.

유병록, 2019a, 「금호강하류역 송국리문화와 방형계주거지: 대구·경산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10, pp.8~41.

俞炳祿, 2019b, 「嶺南地域 松菊里文化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李健茂, 1992, 「松菊里型 住居分類試論」,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pp.913~933, 서울: 一潮閣.

李盛周, 2006, 「韓國 青銅器時代 ‘社會’考古學的 問題」, 『古文化』 68, pp.7~24.

이성주, 2015, 「경북지역의 청동기시대 분묘와 부장품」,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pp.483~495, 서울: 학연문화사.

李秀鴻, 2012, 「青銅器時代 檢丹里類型的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李宗哲, 2015, 「松菊里文化的 聚落體制와 發展」, 全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이창희, 2016, 「청동기시대의 연대」,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編年』, 안재호·이형원 편, pp.73~88, 서울: 서경문화사.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的 展開와 孔列土器文化的 位置」, 『韓國上古史學報』 1, pp.37~92.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울: 서경문화사.

이형원, 2016, 「남한지역 병행관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編年』, 안재호·이형원 편, pp.239~264, 서울: 서경문화사.

李弘鍾, 2000, 「우리나라의 초기 수전농경」, 『韓國農工學會誌』 42(3), pp.5~17.

李弘鍾, 2005, 「寬倉里聚落的 景觀」,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편, pp.215~248, 서울: 서경문화사.

趙大衍·朴書賢, 2013, 「청동기시대 석기생산에 대한 일 고찰」, 『湖西考古學』 28, pp.4~33.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2015,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서울: 진인진.

崔範植, 2015, 「青銅器時代 中期 文化波及樣相 研究: 北漢江·南江流域 沖積地聚落的 生計經濟戰略과 관련하여」, 忠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崔鍾圭, 1993, 「附錄: 東洋의 防禦集落」, 『松菊里 V: 木柵(1)』, 國立公州博物館, pp.199~213.

崔鍾圭, 1995, 『三韓考古學研究』, 서울: 서경문화사.

崔鍾圭, 2005, 「V. 고찰, 2. 所土里遺跡에서 본 松菊里文化의 一斷面」, 『梁山 所土里 松菊里文化聚落』, 慶南考古學研究所, pp.220~230.

平郡達哉, 2013, 『무덤자료로 본 청동기시대 사회』, 서울: 서경문화사.

河仁秀, 1989,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河仁秀, 1992,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의 編年」, 『嶺南考古學』 10, pp.19~67.

황창한, 2013,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생산 시스템 연구」, 『嶺南考古學』 67, pp.4~33.

許義行, 2011,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저장수혈의 양상과 변화」, 『嶺南考古學』 58, pp.5~34.

洪周希, 2009,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개와 석기제작시스템의 확립」, 『韓國青銅器學報』 5, pp.4~35.

洪周希, 2017,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공방에서의 석기 생산방식 검토」, 『韓國青銅器學報』 20, pp.4~30.

Arnold, Jeanne E.
2007 Credit Where Credit is Due: The History of the Chumash Oceangoing Plank Canoe. **American Antiquity** 72(2):196-209.

Clarke, David L.
1968 **Analytical Archaeology**. London: Methuen.

Camilli, Eileen L., and James I. Ebert
1992 Artifact Reuse and Recycling in Continuous Surface Distributions and Implications for Interpreting Land Use Patterns. In **Space, Time, and Archaeological Landscapes**. J. Rossignol and L. Wandsnider, eds. Pp. 113-136. New York: Plenum Press.

Deetz, James
1967 **Invitation to Archaeology**. Garden City: The Natural History Press.

Dietler, Michael, and Ingrid Herbich
1998 Habitus, Techniques, Style: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Social Understanding of Material Culture and Boundaries. In **The Archaeology of Social Boundaries**. M.T. Stark, ed. Pp. 232-263.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Drennan, Robert D.
1991 Pre-Hispanic Chiefdom Trajectories in Mesoamerica, Central America, and Northern South America. In **Chiefdoms: Power, Economy, and Ideology**. T.K. Earle, ed. Pp. 263-28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rennan, Robert D., Mingyu Teng, Christian E. Peterson, Gideon Shelach, Gregory G. Indrisano, Yanping Zhu, Katheryn M. Linduff, Zhizhong Guo, and Manuel A. Roman-Lacayo
2003 Methods for Archaeological Settlement Study. In **Regional Archaeological in Eastern Inner Mongolia: Archaeological Exploration**. CICRP (The Chifeng International Collaborative Archaeological Research Project), ed. Pp. 122-151. Beijing: Science Press.

Dunnell, Robert C., and William S. Dancey
1983 The Siteless Survey: A Regional Scale Data Collection Strategy. In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M.B. Schiffer, ed. Pp. 267-287, Vol. 6. New York: Academic Press.

Earle, Timothy K.
1991 Property Rights and the Evolution of Chiefdoms. In **Chiefdoms: Power, Economy, and Ideology**. T.K. Earle, ed. Pp. 71-9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arle, Timothy K.
1997 **How Chiefs Come to Power: The Political Economy in Prehist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Ebert, James I.
1992 Distributional Archaeology.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Eerkens, Jelmer W., and Carl P. Lipo
2005 Cultural Transmission, Copying Errors, and the Generation of Variation in Material Culture and the Archaeological Record.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4(4):316-334.

Oh, Yongje, Matthew Conte, Seungho Kang Jangsuk Kim and Jaehoon Hwang
2017 Population Fluctuation and the Adoption of Food Production In Prehistoric Korea: Using Radiocarbon Dates as a Proxy for Population Change. **Radiocarbon** 59(6):1761 - 1770.


Schiffer, Michael Brian
2005 The Devil is in the Details: The Cascade Model of Invention Processes. **American Antiquity** 70(3):485-502.



제3발표

금속유물로 본 한국 청동기 -초기철기시대의 시기 구분

조진선
전남대학교



금속유물로 본 한국 청동기 -초기철기시대의 시기 구분

조진선 전남대학교

-
- I. 머리말
 - II.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시·공간
 - III.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문화유형
 - IV.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시기 구분
 - 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고고학 개설서로 가장 많이 읽히는 『개정 신판 한국 고고학 강의』(한국고고학회, 2007)의 청동기시대 개관을 보면 “한반도와 그에 이웃한 중국 동북지방의 상당한 부분을 포함한 넓은 지역은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 무렵 유물과 묘제를 비롯한 주요 문화요소의 구성에서 주변 지역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게 된다. …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는 농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무문토기와 마제석기가 널리 사용되며 사회복합도가 증가한 시기이다. … 그런데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청동유물은 한반도에서는 드물게 발견되며, 남한지역에서 청동기는 늦게 보급되었다(한국고고학회 2007: 83).”라고 하였다. 이 문장에는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 있는데, 첫째, 연구 대상을 한반도로 해야 할지, 중국동북지역까지 포함해야 할지의 문제이며, 둘째, 청동기시대인데도 청동유물이 드물다는 인식이다. 첫 번째 문제는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공간 규정과 연구 비중의 불균등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두 번째 문제는 무문토기시대라는 명칭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하였다.

한국 고고학에서 시대 구분은 선사시대에는 물질문화의 변동을 기준으로, 역사시대는 역사학계의 시대 구분론을 수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한국 고고학 강의(2007)의 시대 구분

구분	기준	고고학	역사학
선사 고고학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역사 고고학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

『한국고고학강의』(한국고고학회 2007)에서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까지는 물질문화를 기준으로, 원삼국시대-삼국시대-통일신라와 발해는 역사학계의 시대 구분을 염두에 두고서 이루어진 것이다(표 1).

시대 구분은 역사의 흐름을 기준을 세워 나누는 일이다. 시대 구분은 역사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역사를 인식하는 태도 내지 방법을 말해 준다. 역사학계에서는 시대를 시간적 원근, 사회발전 단계, 민족의 성장과정, 지배세력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李基白 1970: 5).

본 발표는 지금까지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로 인식해 온 시기를 금속유물과 사회문화의 변동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고고학에서 시기 구분은 편년을 통해 획기를 이루는 시점을 경계로써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며, 획기는 자료의 시간적 추이를 통해 사조나 물질자료의 변천 등 방향성이 달라지는 기점을 말한다(안재호 2016: 19). 그래서 시기 구분은 편년을 통해 간취된 다양한 자료의 시간성을 종합하여 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에 시간적 경계를 설정하고 그 앞과 뒤를 구분하는 작업이다(김장석 2018: 1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발표자는 한국 고고학에서 청동기-초기철기시대가 각각 하나의 시대로 설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안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통해 시기 구분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II.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시·공간

1.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공간적 범위

한국 고고학에서 청동기-초기철기시대는 대상지역을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한국문화권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한국고대문화권의 상당부분은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은 한국 고고학자들의 활동 범위를 휴전선 이남의 남한지역으로 국한시켜서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켰다. 그래서 한국고고학의 대상

지역은 농담의 차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며, 연구자의 관심과 입장에 따라 중심부와 주변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한국 고고학의 대상지역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고고학자들의 실질적인 활동 공간인 남한지역, 둘째, 조선왕조의 영역이며,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 전역, 셋째, 한국고대문화권에 해당하는 연해주를 포함한 중국동북지역까지이다.

삼국시대 이후에는 한국 고고학의 공간적 범위가 왕조의 영역을 토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는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이라 이러한 문제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스럽다. 하지만 청동기-초기철기시대는 고조선을 비롯한 초기 민족국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더구나 역사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원사시대여서 연구자에 따라 대상지역이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연구 대상지역에 대한 인식 차이는 한국 고고학에서 청동기시대의 시작과 문화변동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중국동북지역을 포함하면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20세기경부터 시작되지만 남한지역으로 한정하면 기원전 15~13세기가 된다. 그래서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를 시기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적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 문제 역시 이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초기 설정 문제는 남한지역 청동기문화에 국한된 문제이다. 만약 연구자들이 청동기시대의 공간적 범위를 한반도 전역이나 중국동북지역까지로 확대하면 이러한 논의의 의미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1차적 공간은 한국 고고학자들의 실질적 활동 범위인 남한지역이다. 그러나 남한지역은 역사와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남북분단에 의해 강제된 공간이다. 그래서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공간적 범위를 남한지역으로 한정하고, 이 지역만을 대상으로 시기 구분 하는 것은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2차적 공간은 한반도 전역이다. 남한지역 무문토기와 관계를 살펴서 청천강유역에서 함경남도를 가르는 선으로 파악하거나(배진성 2015), 압록강유역과 청천강유역 사이에서 변동했다고 보기도 한다(천선행 2018).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3차적 공간은 중국동북지역까지 포함하는 지역이다. 강인욱(2011)은 기원전 2000~1000년기의 무문토기문화권을 만주와 연해주 남부, 한반도로 설정하였으며, 박순발(2016: 41-48)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하-흑룡강-우수리강으로 경계 지워진 장백-천산산지까지로 보았다. 천선행(2018)은 이를 더욱 구체화해서 요동과 요서지역을 광역적 의미의 무문토기문화권으로 설정하였다. 요동지역은 요서와 요동의 문화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고대산문화와 신락상층문화, 요동토착의 마성자문화와 쌍타자문화로 대별된다고 하였다. 특히 후자는 한반도 무문토기와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와 직간접적으로 영향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고대산문화는 삼국기 등으로 보아 한반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요소가 한반도로 유입되었고 그 뒤를

있는 십이대영자문화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요하평원과 대릉하유역도 광의의 무문토기문화권에 포함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청동기시대 한국고대문화권을 설정할 때 남한지역과의 관계를 일차적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서 청천강유역이나 압록강유역, 또는 요동·요서지역까지 광의의 무문토기문화권으로 묶었다. 기원전 1000년기에는 요서지역에 비파형동검문화의 중핵인 십이대영자문화가 분포한다. 그러므로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와 요동·요서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를 한국고대문화권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이 지역은 광대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문화 내용이 조금씩 다르며, 시기에 따라 한국고대문화권에 포함되기도 하고, 이탈되기도 한다. 여하튼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시기 구분은 한국 고고학자들의 현실적인 활동 공간인 남한지역 보다는 역사적 공간까지 고려해서 한반도와 요동·요서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삼아서 이를 포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발표는 이러한 관점에서 준비하였다.

2. 청동기-초기철기시대에서 시간

1) 기년과 방사성탄소연대 사이의 간극 300년

청동기-초기철기시대를 시기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편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동기-초기철기시대는 역사적으로 고조선을 비롯한 초기 민족국가들이 등장하는 시기여서 기년자료¹⁾들이 출토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기년자료들은 대부분 중국 中原系 유물들이다. 기년자료의 등장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중원지역과 가까운 요서지역부터 등장해서 시차를 두고 요동과 한반도에서도 확인된다.

요서지역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중원계 유물들이 출토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商·周 青銅禮器들이다. 청동예기들의 연대는 殷墟 중기부터 西周 중기까지로 다양하지만 유적이 조성된 시점은 서주 전기~중기에 집중되어 있다(김정열 2009). 그러므로 개개 유물들의 연대는 더 올라가지만 유적의 조영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요서지역은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중원계 청동예기를 토대로 한 편년이 가능하다. 이어서 비파형동검이 동반 출토되는 하가점상층문화에서도 중원계 청동예기들이 출토된다. 개별 유물들의 연대는 서주 후기부터 춘추 전기까지이지만 기원전 8~7세기에 용계 제족이 화북 평원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약탈 형식으로 획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김정열 2011). 요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인 십이대영자문화에서도 중원계 유물들이 출토되는데, 이른 시기에는 아주 드물지만

1) '紀年'은 일정한 기원으로부터 계산한 횟수를 말한다. 현재 우리는 西曆紀元으로부터 계산한 횟수를 연대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갑자기 '曆年代'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일본식 표현이어서 바르다고 할 수 없다. 기년자료는 紀年銘文이나 그밖의 연대를 알 수 있는 유물 등을 말한다.

늦은 시기로 가면서 늘어난다. 그래서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의 연대를 기원전 5세기 말부터 기원전 3세기 초로 편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이후석 2016). 이와 같이 요서지역에서 편년의 기준이 방사성탄소연대에서 기년으로 바뀌는 시기는 기원전 10세기경이다. 그래서 십이대영자문화는 등장할 때부터 이미 기년자료를 토대로 한 편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점이 십이대영자문화와 요동지역 및 한반도 비파형동검문화의 가장 큰 차이이다.

요동지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중원계 유물로는 전국시대 후기의 중원식동과와 중원식동모(李厚錫 2013), 그리고 중원계 예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대체로 기원전 3세기부터 기년자료를 토대로 한 편년이 가능해지므로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문화는 요서지역과 교차 편년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방사성탄소연대에 근거해서 연대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형동검문화는 등장할 때부터 기년자료에 근거한 편년이 가능하다.

<표 2> 한국고대문화권에서 기년자료의 지역별 등장 시기(백색: 탄소연대, 청색: 기년자료)

지역	연대	BC 10세기	BC 9세기	BC 8세기	BC 7세기	BC 6세기	BC 5세기	BC 4세기	BC 3세기	BC 2세기	BC 1세기
요서	기년	자료	→								원
요동	선										사
한반도	북부	사									시
	남부	시대					←	방사성 탄소연대			대

한반도에서는 서북부지역부터 중원계 유물들이 등장한다.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은 진나라와 관련된 동모와 秦戈이므로 기원전 3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기원전 2~1세기에는 紀年銘文을 포함한 낙랑계 漢나라 유물들이 대거 등장한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완주 상림리유적이나 함평 초포리유적의 중원식동검처럼 좀 더 이른 시기에도 중원계 유물들이 확인되지만 편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기원전 1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漢鏡이나 중국 화폐들이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가 되면 한국고대문화권 전역이 기년자료, 즉 중원계 유물들을 토대로 한 편년 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상과 같이 한국고대문화권에서 기년자료를 토대로 한 편년체계는 요서지역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 요동지역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 서북부에서는 기원전 3~2세기경, 한반도 남부에서는 기원전 2~1세기경부터 구축 가능하다. 그 이전 시기는 교차편년을 통해 기년적 편년을 할 수도 있지만 방사성탄소연대가 편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표 2). 그래서 청동기-초기철기시대는 편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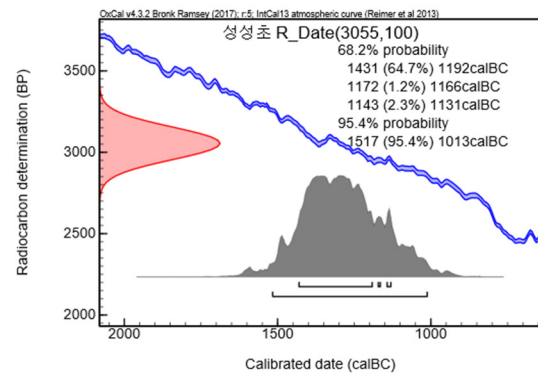
이 방사성탄소연대에서 기년자료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양자가 무리 없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소흑석구 8501호묘 등 하가점상층문화의 연대문제이다.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중원계 청동예기들 사이에 연대 차이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학계에서 방사성탄소연대를 토대로 등장한 야요이시대 연대상향론이다. 일본학계에서는 야요이시대 연대상향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반도와 중국동북지역 청동기문화의 연대 상향을 시도하였고 그 영향이 한국과 중국 학계에도 파급되었다. 한국 청동기문화를 대표하는 석검의 비파형동검 모방론도와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소흑석구 8501호묘의 연대를 기원전 9세기 또는 그 이전으로 상향시키는 견해들이 제기되어 기존보다 100년, 또는 300년 이상 상향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김정열(2011)이 정치한 분석을 토대로 기원전 8~7세기설을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이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이 문제가 10여 년 만에 일단락 될 수 있었던 것은 논쟁의 대상이 중원계 청동예기였기 때문이다. 중원계 청동예기는 중원지역에서 기년에 근거한 편년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서 방사성탄소연대로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소흑석구 8501호묘 출토품보다 약간 더 이른 시기의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십이대영자유적의 상한연대는 기원전 9~8세기경으로 볼 수 있다(趙鎭先 2017).

둘째, 비파형동검문화의 기원 문제이다. 비파형동검의 기원에 대해서는 요서기원설(斬楓毅 1982·1983; 姜仁旭 1996; 吳江原 2006; 趙鎭先 2010·2017), 요동기원설(林湮 1980; 朱永剛 2008; 趙賓福 2008; 배진성 2015; 이형원 2018), 요하평원 동서

벨트기원설(이후석 2019) 등이 있다. 요서기원설은 비파형동검문화가 기원전 9~8세기에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에서 기원해서 요동과 한반도로 파급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동과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모든 비파형동검은 기원전 8세기경을 상회하기 어렵다. 요동기원설은 요동지역에서 확인되는 검신 상부가 극단적으로 짧은 비파형동검을 모든 비파형동검의 조형으로 본다.

또한 요동지역 청동기문화에서의 층서와 형식학적 선후관계, 길림 성성초 C구M2호 인골이 3055±100B.P.로 측정된 것(그림 1)²⁾ 등도 중요한 근거이다. 박진욱(1987)은 이를 토대로 요동지역에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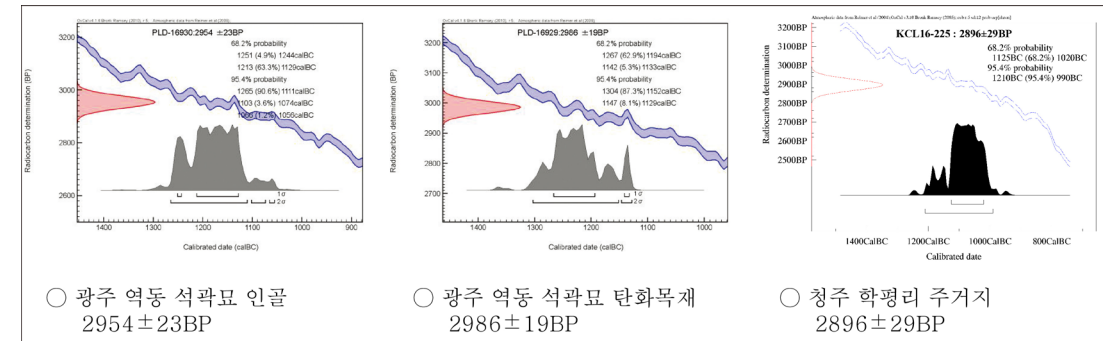


〈그림 1〉 길림 성성초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

2) 星星哨유적에서는 AM19호묘에서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었지만 CM2호에서는 출토되지 않았다.

이른 형식의 비파형동검을 기원전 2000년기 말~기원전 1000년기 초로 편년하였다. 그러므로 기원전 9~8세기의 요서기원설은 기년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기원전 12~10세기의 요동기원설은 방사성탄소연대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는 300년 정도 시간적 차이가 있다. 비파형동검의 기원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양자 간에 편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아직은 덜 표면화되었지만 한반도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의 연대 문제 역시 상당한 간극을 보일 것이다. 요서기원설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비파형동검의 상한연대는 기원전 8~7세기경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 출토 유구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는 이보다 대폭 상향된다. 광주 역동 석곽묘에서 탄화목재는 2986±19BP, 인골은 2954±23BP로 측정되어 보정연대는 2표준편차를 기준으로 1056~1304calBC에 이른다. 청주 학평리 주거지에서 측정된 방사성탄소연대는 2896±29BP여서 보정연대는 2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990~1210calBC이다. 그래서 두 유적 모두 보정연대가 기원전 10~13세기 정도여서 단숨에 요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상한연대인 기원전 9~8세기를 넘어선다. 이러한 방사성탄소연대는 비파형동검이 한반도에서 발생했다고 보아도 과하지 않을 연대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이 활성화되면서 한반도에서 비파형동검의 상한연대 역시 300년 이상의 간극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림 2〉 한반도 출토 비파형동검의 방사성탄소연대

넷째, 20세기 말까지 동일 문화의 구성 요소로 인식되던 세형동검과 점토대토기의 남한지역 유입 연대에 대한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세형동검-점토대토기문화의 상한연대는 기원전 300년경으로 추정되어 왔으며, 세형동검문화의 상한연대는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다(조진선 2005). 더구나 십이대영자문화의 늦은 시기인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 근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방사성탄소연대가 일반화되면서 점토대토기문화의 상한연대는 기원전 6~7세기로 상향되었다(이창희 2016). 세형동검과 점토대토기의 상한연대가 분리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세형동검 등 청동기는 주로 무덤에서 출토되었고, 주거지에서는 점토대토기만 주로 출토되기 때문이

다. 즉, 방사성탄소연대가 주거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그 결과 중국동북지역에서 동일 문화의 구성 요소였던 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이 한반도에는 어떤 이유에선가 시차를 두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설명이 등장하였다. 방사성탄소연대가 점토대토기만 출토되는 주거지에서 주로 측정된 것을 생각하면 양자 사이에 형성된 300년 정도의 차이는 사실 기년자료와 방사성탄소연대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발표자는 여전히 세형동검과 점토대토기가 한반도에 별도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더구나 기원전 6~7세기 중국동북지역에 한반도와 동일한 형식의 점토대토기가 등장했는지도 의문이다. 정가와자 유적에서 출토된 점토대토기의 연대가 기원전 6세기 후반~기원전 5세기로 편년되고 있어서(金玟儻 2014), 기원전 6~7세기의 점토대토기는 조양 원대자 M129와 79YM1에서 출토된 것과 좀 더 유사해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한반도에서 기원전 6~7세기에 발생한 점토대토기가 요동지역으로 파급되었을 수도 있다.

다섯째, 남한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송국리유형과 검단리유형, 후기를 대표하는 점토대토기문화의 하한연대에 대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송국리문화와 검단리유형은 기원전 4세기경에 점토대토기문화로 교체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점토대토기문화의 하한연대는 기년자료에 의해 기원전후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송국리형 주거지에서도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면서 그 하한연대 역시 기원전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커졌다(李宗哲 2015). 검단리유형의 하한연대도 와질토기문화가 등장한 기원전후경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이수홍 2019). 송국리유형과 검단리유형의 하한연대를 기원전후경까지 내려보는 이유는 기년적 편년관에 의해 기원전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출토되기 때문이다. 하여튼 송국리유형과 검단리유형, 점토대토기문화는 공통적으로 기원전후에 종말을 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방사성탄소연대를 취신하는 이창희(2016)는 기원전 4세기경에 이들 문화가 종말을 고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년자료나 방사성탄소연대 모두 송국리유형, 검단리유형, 점토대토기문화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종말을 고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그 시기를 기원전 4세기경으로 보는지, 아니면 기원전후경으로 보는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사이에도 300년 정도의 간극이 발생해 있다. 지금까지 방사성탄소연대는 주로 연대를 상향시키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방사성탄소연대가 지시하는 하한연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 하지만 기원전 1세기가 되면 한반도 남부도 기년자료를 토대로 한 편년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년은 연대 그 자체를 의미하며, 방사성탄소연대는 확률상의 연대이기 때문에 양자의 가치를 동일하게 둘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송국리유형, 검단리유형, 점토대토기문화의 하한연대를 기원전 4세기경으로 보게 하는 방사성탄소연대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발표자는 청동기-초기철기시대를 기년자료 중심으로 편년을 시도하는 연구자이지만 그렇다고 방사성탄소연대를 불신하거나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방사성탄소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과

학적 연대결정법은 선사시대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기년자료가 전무하지 않는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편년작업에는 맥락을 살펴가며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년과 방사성탄소연대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문화 흐름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시기 구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2) 방사성탄소연대의 해석

고고학에서 연대 상향이 새로운 학설이라는 인식의 연원은 상당히 길다. 일본학계의 야요이시대 연대상향론은 방사성탄소연대를 통해 일본열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고고문화의 연대를 상향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하지만 방사성탄소연대는 시료를 채취할 때 오염의 문제, 측정기관 상호간에 발생하는 차이의 문제, 튀는 연대의 발생 문제 등이 일찍부터 지적되었다. 그리고 고목효과, 해양저장고 효과, 어떤 종류의 초본 및 열대성 식물종이 갖는 특성과 그것을 먹을 경우(옥수수, 수수 등) 기대치보다 높은 연대가 나오는 문제 등은 개론서에도 언급되어 있다(T. 더글러스 프라이스(이희준 역) 2013). 한국학계에서도 기원전 800~400년경의 보정곡선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金壯錫 2003). 그래서 방사성탄소연대는 아주 유용한 연대측정방법이지만 보완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또한 방사성탄소연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 차이도 있다(이창희 2016; 황재훈 2017).

중국에서는 중일 공동연구로 방사성탄소연대를 검증 실험한 사례가 있다(王樹芝·尾崎大眞 외 2008). 이 논문은 「精確定年の祁連圓柏碳十四年代의加速器質譜測定(정확한 연대가 알려진 기린원백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인데, 중국의 王樹芝(중국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와 일본의 尾崎大眞·坂本稔·今村峯雄(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방사성탄소연대실험실)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 실험의 목적은 수륜연대상 연대가 정확한 기린원백 샘플로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하여 국제적으로 상용되는 IntCal04와 IntCal98 보정곡선에 대비시켜 방사성탄소연대와 보정곡선의 정확도를 검증해보고자 한 것이다.

실험 재료는 중국 青海省 德令哈市 郭里木鄉 夏塔圖 3호묘의 목관재로 수종은 祁連圓柏(*Sabina przewalskii* Kom)이다. 표본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방사성탄소연대실험실에서 만들었으며, 가속기질량분석은 일본 도쿄대학에서 실시하였다. 표본은 420B.C.부터 321B.C.까지를 10년 단위로 1개씩 샘플을 채취해서 10개의 시료를 만들었다. 정확한 수륜연대를 알고 있는 기린원백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는 <표3>과 같다.

〈표 3〉 기린원백의 수륜연대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번호	수륜연대	탄소연대	1표준편차	2표준편차	수륜연대와 방사성탄소연대의 비교
CBW-t1	420BC~411BC	2507±31BP	770BC(10.5%)740BC 690BC(11.6%)660BC 650BC(46.1%)550BC	790BC(95.4%)520BC	1·2표준편차에 모두 미포함
CBW-t2	410BC~401BC	2417±35BP	700BC(1.3%)690BC 540BC(66.9%)400BC	700BC(16.1%)680BC 670BC(4.5%)650BC 600BC(74.8%)390BC	1표준편차에 포함
CBW-t3	400BC~391BC	2374±47BP	520BC(68.2%)390BC	750BC(10.7%)680BC 670BC(2.9%)640BC 600BC(81.8%)370BC	1표준편차에 포함
CBW-t4	390BC~381BC	2292±35BP	400BC(55.0%)350BC 280BC(13.2%)250BC	410BC(59.7%)340BC 300BC(35.7%)200BC	1표준편차에 포함
CBW-t5	380BC~371BC	2310±51BP	410BC(44.4%)350BC 290BC(23.8%)230BC	520BC(61.2%)340BC 330BC(34.2%)200BC	1표준편차에 포함
CBW-t6	370BC~361BC	2246±31BP	390BC(23.9%)350BC 290BC(44.3%)230BC	400BC(29.6%)340BC 320BC(65.8%)200BC	1표준편차에 포함
CBW-t7	360BC~351BC	2157±30BP	350BC(32.3%)300BC 230BC(1.0%)220BC 210BC(44.4%)160BC	360BC(37.5%)270BC 260BC(57.9%)90BC	2표준편차에 포함
CBW-t8	350BC~341BC	2239±31BP	380BC(19.9%)350BC 300BC(48.3%)210BC	390BC(26.5%)340BC 330BC(68.9%)200BC	2표준편차에 포함
CBW-t9	340BC~331BC	2218±34BP	370BC(7.6%)340BC 320BC(60.6%)200BC	390BC(95.4%)200BC	2표준편차에 포함
CBW-t10	330BC~321BC	2116±31BP	195BC(68.2%)95BC	350BC(3.4%)320BC 210BC(92.0%)40BC	2표준편차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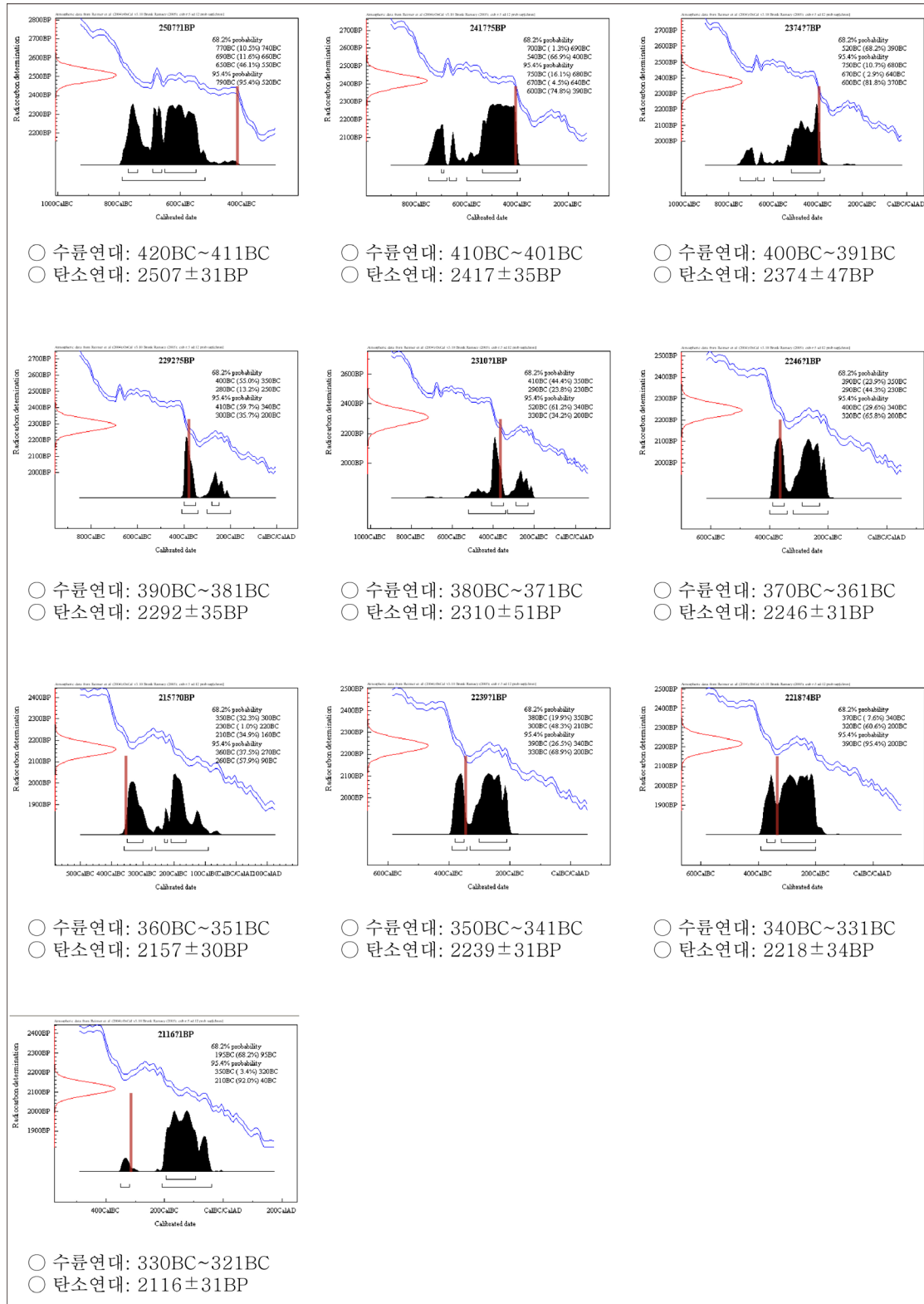
수륜연대상 420~321B.C.의 목관재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2507±31~2116±31B.P.의 값을 얻었다. 구간 사이에 연대값이 역전된 사례도 있지만 대체로 순차적이어서 방사성탄소연대의 정확성을 잘 보여준다. 10건 중 5건은 기린원백의 수륜연대가 1표준편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며, 4건은 2표준편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나머지 1건은 2표준편차 범위도 벗어났지만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기린원백 검증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0건 중 9건의 수륜연대가 보정연대의 2표준편차 범위에 들어 있어 방사성탄소연대가 상당히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보정연대의 진폭은 2표준편차를 기준으로 200~400년 정도여서 상당히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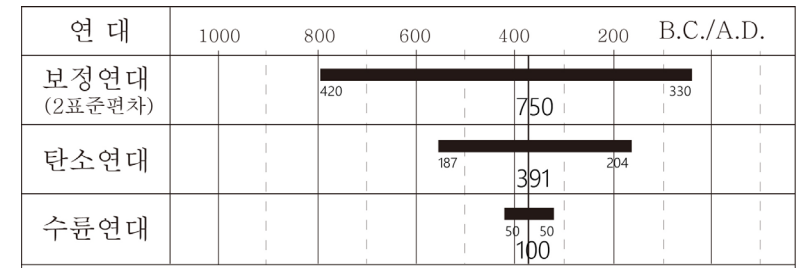
셋째, 수륜연대와 보정연대 사이에는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다. 보정연대의 확률밀도분포그래프에서 수륜연대는 좌측이나 우측 끝에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기도 하고, 그 사이에 어떠한 일관성도 없

이 자리하기도 한다. 이는 확률밀도분포그래프 자체가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방사성탄소연대를 통해 특정한 연대값이나 매우 좁은 범위의 연대값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그림 3). 즉, 기린원 수륜연대는 보정연대의 확률밀도분포그래프 안에 모두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일관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고학자가 특정한 연대를 임의적으로 취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수륜연대상 기원전 350년 전후인 '360~351B.C. 시료'와 '350~341B.C. 시료'를 보면, 보정연대의 2표준편차가 각각 360~90calB.C. 와 390~200calB.C.로 나온다. 만약 이것이 실제 고고학 자료였다면, 200~300년 정도 폭을 보이는 확률밀도분포그래프에서 실제 연대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원전 90년이 될 수도 있고, 기원전 390년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사이의 어떤 연대가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이마저 벗어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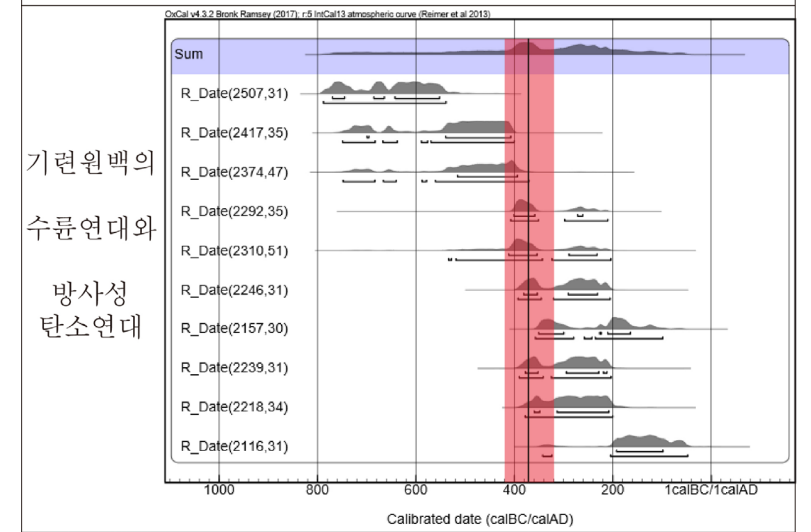


〈그림 3〉 기련원백의 수률편차와 방사성탄소연대(보정연대)의 상관관계

그래서 수률편차상 420~321B.C.인 기련원백 시료는 2표준편차를 적용하면 790~40calB.C.로 연대 폭이 확대된다. 고고학 자료는 이 검증실험에 사용된 시료처럼 일목요연하지 않을 것이기에 고고학자들은 방사성탄소연대를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검증실험 연구자들이 수률편차상 420~321B.C.의 시료를 선택한 것은 이 구간에서 보정곡선이 매우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보정연대 확률밀도분포그래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의 소속기관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당초부터 상당히 강한 목적성을 가지고 실험구간을 선택했을 것이지만 예상과는 달리 200~400년에 이르는 확률밀도분포그래프 구간에서 수률편차의 위치는 전혀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발표자가 보기에는 연구자들이 이 검증실험에서 당초에 의도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



〈그림 4〉 기련원백의 수률편차와 방사성탄소연대(보정연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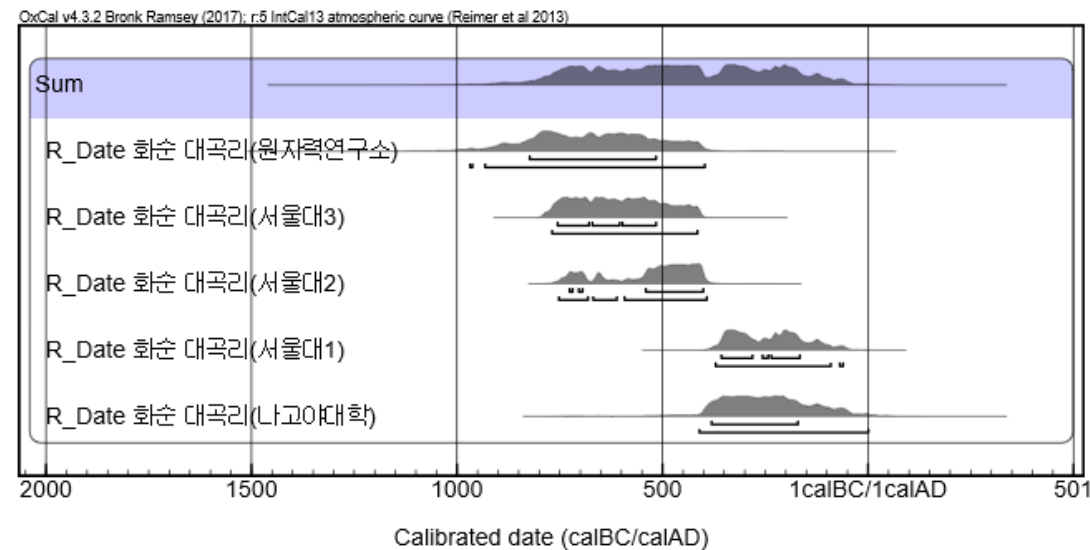
된다. 만약 보정곡선의 기울기가 이보다 완경사 구간이라면 확률밀도분포그래프의 범위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방사성탄소연대의 확률밀도분포그래프에서 2표준편차의 범위가 500~200calBC로 측정된 시료라면, 연대는 기원전 500년일 수도 있고, 기원전 200년일 수도 있으며,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연대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원전 2000년기부터 기원전 1000년기에 방사성탄소연대를 가지고 300년 이하로 세분된 편년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림 4〉는 기련원백의 수률편차와 방사성탄소연대 및 보정연대의 관계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기련원백의 수률편차는 420~321B.C.여서 100년 차이이지만 방사성탄소연대 원값은 차이가 391년으로 벌어지며, 보정연대 2표준편차는 750년으로 더욱 커졌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어떤 특정한 연대를 선택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표 4〉 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 목관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연도	측정기관	시료	방사성탄소연대	비고
1972	원자력연구소	목관편	2560±120B.P.	
1989	나고야대학 동위원소종합센터	목탄	2200±90B.P.	
2008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목관재편	2170±50B.P.	
2011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목재	2400±50B.P.	
2011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목재	2470±50B.P.	

이러한 상황은 하나의 목관에서 5건의 방사성탄소연대가 측정된 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화순 대곡리유적은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의 발전기를 대표하는 유적이어서 발표자는 연대를 기원전 3세기 후엽으로 추정한다(조진선 2005). 방사성탄소연대는 남아있는 목관재를 대상으로 5차례 측정되었다(표 4). 관재가 그다지 두껍지 않아서 고목효과가 크게 개입했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방사성탄소연대는 2500B.P. 내외인 3건과 2200B.P. 정도인 2건으로 구분된다. 보정연대의 전체 범위는 기원전후부터 1000calB.C. 정도에 걸쳐 있으며, 400calB.C. 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5건의 방사성탄소연대가 2건과 3건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이상치로 치부할 명확한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기원원백의 검증 결과에 비추어보면, 필자는 이 가운데 어떤 연대를 취해야 할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모든 방사성탄소연대의 보정연대 확률밀도분포그래프가 약간이라도 겹칠 가능성이 있는 400calB.C. 일 가능성 정도를 상정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그림 5).



〈그림 5〉 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의 방사성탄소연대의 보정연대

이상과 같이 방사성탄소연대는 거시적으로 보면, 상당히 정확하다. 그렇다고 해서 미시적인 연대까지 방사성탄소연대(보정연대)를 취신하기에는 그 보정연대의 폭이 너무 넓다. 기원전 321~420년인 기원원백 시료의 검증 실험 결과를 보면, 이 구간에서 보정연대의 폭은 200~400년 정도이다. 이 구간의 보정곡선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급경사라는 것을 생각하면, 방사성탄소연대에서 이 정도의 연대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그래서 방사성탄소연대(보정연대)를 토대로 300년 이하의 세부적인 연대 차이를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발표자가 앞에서 예로 든 기년자료와 방사성탄소연대 사이에 벌어진 300년 정도의 간극이 사실은 방사성탄소연대(보정연대)의 연대 폭 안에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고대문화원에서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시기 구분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Ⅲ.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문화유형

1. 비파형동검문화 등장 이전의 초기 청동기문화

한국 청동기시대는 ‘청동기가 없는 청동기시대’로 인식되어 무문토기시대로 명명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요동의 쌍타자문화와 마성자문화는 물론 남·북한의 조·전기 유적들에서도 청동손칼이나 청동장식품 등이 출토되면서 ‘청동기가 있는 청동기시대’가 되었다. 다만, 한국청동기문화를 대표하는 비파형동검이나 세형동검이 없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비파형동검은 한국 청동기문화의 가장 이른 시기를 대표하지 않는다.

요동지역의 초기 청동기문화는 요동반도의 쌍타자문화와 요동북부의 마성자문화로 대표된다. 이러한 청동기문화는 기원전 20세기경부터 시작된다. 요서지역의 하가점하층문화에서는 청동기뿐 아니라 거푸집도 출토되어서 이미 상당히 발전된 청동기문화를 영위하고 있지만 유물구성상 한국 청동기문화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요동과 한반도에서는 아직까지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서 청동기를 직접 생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국고대문화원에서 청동기시대의 개시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청동기시대는 신석기시대 토기와는 다른 무문토기의 등장과 청동기의 출현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요동의 쌍타자문화와 마성자문화에서는 기원전 20세기경부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다. 물론 도구는 대부분 석기를 사용하고 있다. 쌍타자문화에서는 하층과 상층에서 청동기들이 확인되었다. 대취자유적 하층에서는 몸통이 비대칭적이고, 가운데 부분이 융기되어 있어 동과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청동편이 확인되었다. 대취자유적

상층에서도 동축, 포식, 낚싯바늘(魚鉤), 동환 등이 출토되어서 청동기가 보다 보편화되었다. 마성자 문화에서는 청동장식품만 출토되었다. 장가보A동 M11에서 동환 2점, M24에서 원형 동식 2점, M26에서 장방형 동식 1점, M50에서 동이식 1점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청동기들이 요동지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주변지역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래서 이 때는 석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청동장식품과 수입된 청동기들이 약간씩 확인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기원전 20세기경 요동지역에서 시작된 새로운 변화는 기원전 15~13세기에 이르면 남한지역까지 남하한다. 한반도에도 처음부터 청동기가 동반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기원전 10세기경에는 청동기들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유적으로는 용천 신암리유적에서 출토된 동도자, 정선 아우라지 1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청동제 장신구 4점, 춘천 근화동 1호 주거지와 수혈유구에서 출토된 용도미상 청동제품 등을 들 수 있다. 진주 옥방 5지구 생활면에서 수습된 곡옥형 청동제 장식품도 이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학계에서는 남한지역의 미사리식토기(돌대문토기) 또는 미사리유형 단독기를 조기로 설정하고(安在晧 2000; 李亨源 2007; 千羨幸 2007 외 다수), 미사리계 토기는 기원전 15세기 이전에 출현해서 기원전 13세기경부터는 가락동·역삼동·혼암리계 토기와 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창희 2016). 반면에 조기 반대론자들은 조기 설정론은 토기 구연처리상 변이에 검증되지 않은 시간성과 계통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한 것이며(김장석 2018), 토기문양이 선후관계를 가진다는 것도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황재훈 2015; 황재훈·황혜민 2015).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남한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 성과들을 보면, 조기를 대표하는 미사리유형은 요동북부의 마성자문화와 관련되며, 전기의 가락동유형은 청천강유역의 이중구연토기, 나아가 요동반도 동안의 문화나 요동반도의 쌍타자문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천선행 2018). 미사리유형과 관련된 마성자문화에서는 석축만 확인될 뿐 석검이 확인되지 않지만(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쌍타자문화에서는 석검이나 석창이 일찍부터 확인되는 것을 보면(郭大順·張星德(김정열 역) 2008),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물론 마성자문화와 관련된 미사리유형이 남한지역에 좀 더 빨리 남하했을 수도 있지만 그 시차는 크지 않으며, 사회문화적인 차이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더구나 미사리계 토기와 가락동계 토기의 형성에 영향을 준 마성자문화와 쌍타자문화도 무문토기문화권에 포함되며(천선행 2018), 그것들은 이미 기원전 20세기경에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남한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기 설정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국고대문화권 전체적으로 보면, 양자 모두 한 시기로 포괄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고대문화권에서 청동기시대는 농경민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점차 신석기시대를 대체해 가는 시기이며, 무문토기와 석기

를 주로 사용하면서 약간의 청동장식품과 수입 청동기를 사용하는 시기로 이해된다. 이러한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20세기경 요동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기원전 15~13세기에는 남한지역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기원전 10세기경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비파형동검문화 등장 이전의 초기 청동기문화는 기원전 20세기경 요동지역에서 시작해서 기원전 15~13세기에는 남한지역까지 남하하였다. 청동기의 종류와 수량은 많지는 않지만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청동기시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초기 청동기문화는 크고 작은 청동기문화들이 여기저기에 자리하고 있었던 때로 생각된다.

2. 비파형동검문화

비파형동검문화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요서기원설과 요동기원설로 나누어진다. 요서기원설은 비파형동검문화는 조양을 중심으로 하는 요서지역에서 기원전 9~8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요서지역은 기원전 1000년경부터 중원계 유물들을 토대로 한 기년적 편년체계가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연대는 어느 정도 확고한 연대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요서기원설의 입장에서는 요동과 한반도의 비파형동검은 기원전 8세기경을 상회할 수 없다.

요동기원설은 쌍방 6호 지식묘 출토품처럼 검신 상부가 극단적으로 짧은 비파형동검을 가장 이른 형식으로 설정하고 그 연대를 기원전 12세기경까지 올려본다. 이러한 연대는 요동지역 유적들의 층위관계, 쌍방유적 등에서 동반된 미송리형토기의 형식학적 위치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쌍방유적의 미송리형토기는 전형적인 미송리형토기에 들어가기 때문에(金美京 2006) 시간적으로 쌍타자문화나 마성자문화보다는 미송리문화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원전 12세기라면 쌍타자문화와 마성자문화에서조차도 청동기의 기종과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양 문화의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돌연히 비파형동검과 청동도끼 거푸집, 미송리형토기 등이 세트를 이루며 등장했다는 것은 상당히 과격적이다. 또한 이러한 형식의 비파형동검은 요동북부에서도 많이 확인되는데, 그 연대를 모조리 상향시키면 기원전 6~5세기로 편년되는 정가와자 6512호묘 비파형동검과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쌍방형 비파형동검의 특이점을 가지고 연대를 상향시키면, 앞 시기인 쌍타자문화나 마성자문화와의 연결 문제뿐 아니라 뒤 시기 비파형동검과도 상당한 시간적 공백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은 요서지역 십이대영자문화의 영향으로 등장한 것이다. 요동지역에서 이른 형식의 비파형동검은 십이대영자유적 출토품과 비슷한 강상묘 출토품, 이도하자 출토품 등이며, 그 연대는 기원전 8~7세기로 추정된다. 발표자는 이른 시기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문화를 강상

유형과 이도하자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도하자유형은 석관묘에서 비파형동검문화 관련 청동기와 미송리형토기, 또는 서단산형토기 등이 함께 출토되며, 분포지역은 천산산지 이서지역이다. 그래서 요동과 한반도 북부에 분포하는 미송리문화, 길림성 중남부에 분포하는 서단산문화의 서부지역에서 확인된다. 그래서 이도하자유형은 독립적인 문화유형이라기보다는 미송리문화와 서단산문화의 서부지역에 십이대영자문화의 영향이 미치면서 형성된 일종의 지역 유형으로 이해된다(趙鎭先 2017). 양가촌 1호묘에서 십이대영자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한 다뉴조문경이 출토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요동지역은 기원전 1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마성자문화, 미송리문화(쌍방문화, 신성자문화) 등이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가지고 이어진다. 마성자문화는 석촉만 출토될 뿐 석검은 확인되지 않는다. 미송리문화에서도 미송리형토기와 석부, 방추차, 석촉은 출토되지만 석검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동북부에서 비파형동검은 재지적인 전통을 가진 유물이라기보다는 요서지역에서 들어온 새로운 기종의 유물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고대문화권에서 비파형동검문화의 등장은 하나의 획기로 설정할 수 있다. 비파형동검문화의 등장 시기를 보면, 요서지역은 기원전 9~8세기, 요동과 한반도는 기원전 8~7세기로 추정된다. 기원전 6세기에는 비파형동모가 등장한다. 요서의 십이대영자문화, 요동반도의 강상유형, 요북의 이도하자유형, 한반도의 비파형동검문화 사이에는 청동기의 기종과 수량이 현격하게 차이를 보인다(표 5).

<표 5> 요서·요동·한반도 비파형동검문화에서 주요 청동기 기종

지역	기종	무기류	공구류	의기류	장신구류	거마구류
요서 십이대영자문화	비파형동검, 비파형동모, 동촉	동부, 동착, 동추, 동도자, 낚시비늘		다뉴조문경	패식	재갈, 말얼굴장식, 말 머리장식, 절약 등
요동반도 강상유형	비파형동검, 동모, 동촉	동부, 동착				소형 재갈(강상)
요동북부 이도하자유형	비파형동검, 비파형동모, 동촉	동부, 동착		다뉴조문경(양가촌)		
한반도 비파형동검문화	비파형동검, 비파형동모, 동촉	동부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에서는 무기류, 공구류, 의기류, 장신구류, 거마구류 등 다양한 기종의 청동기가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며, 수량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하지만 요동반도의 강상유형과 요동북부의 이도하자유형에서는 무기류와 공구류가 주로 확인되며, 나머지는 거의 없다. 무기류와 공구류도 기종과 수량이 십이대영자문화에 미치지 못한다. 한반도의 비파형동검문화는 요

동지역보다 기종과 수량이 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비파형동검문화는 요서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청동기의 기종과 수량이 줄어드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요서지역에서 발생한 비파형동검문화가 요동과 한반도로는 일부 기종만 파급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비파형동검문화에서는 요서지역은 물론, 요동과 한반도에서도 거꾸집들이 출토되고 있어서 모든 지역에서 청동기를 직접 주조하여 생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부터 비파형동검이 등장하며, 이러한 유적들의 연대는 방사성 탄소연대를 근거로 기원전 10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원전 9~8세기에는 송국리유형이나 검단리유형 같은 새로운 문화유형이 등장하면서 전기의 다양한 청동기문화들이 광역적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김장석 2018; 황재훈 2017). 하지만 한반도 비파형동검문화의 연대가 방사성탄소연대를 근거로 기원전 10세기경으로 올려보게 되면, 요서지역보다 오히려 빠르다. 발표자는 한반도에 비파형동검이 등장하는 시기는 요서지역과 시간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기원전 8~7세기경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는 200~300년가량 차이 나는데, 이는 방사성탄소연대와 기년자료 사이에 있는 간극으로 이해된다. 비파형동검이 한반도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연대관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한국고대문화권에서 비파형동검문화는 요서의 십이대영자문화에서 시작되었다. 십이대영자문화는 분포범위가 위영자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고, 토기문화도 위영자유형의 연장선상에 있어서(천선행 2010), 위영자유형과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십이대영자문화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거마구가 확인되는데, 이전 시기의 위영자유형은 물론 동시기의 하가점상층문화(남산근유형)와 관련성이 지적되었다(孫璐 2011). 그러므로 십이대영자문화는 하가점상층문화의 퇴조와 더불어 일어난 고대산문화의 성격을 가진 토착문화와 중원문화적 성격을 가진 위영자유형이 조양지역에서 융합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趙鎭先 2017), 북방초원의 하가점상층문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기원전 9~8세기에 요서지역 십이대영자문화에서 시작된 비파형동검문화는 기원전 8~7세기에 요동지역으로 파급되면서 강상유형, 이도하자유형을 형성시킨다. 특히 이도하자유형은 미송리문화와 서단산문화의 서부지역에 형성된 지역유형으로 생각된다. 남한지역에도 전기 말에 비파형동검이 등장해서 송국리유형에서 발전한다. 방사성탄소연대로는 기원전 10세기경까지 올라가지만 십이대영자문화의 연대를 기준으로 하면 기원전 8~7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요서의 십이대영자문화에서는 청동기가 다종 다량으로 출토되지만 요동과 한반도로 오면서 청동기의 기종과 수량이 대폭 감소한다. 기원전 6세기경에는 비파형동모가 등장하면서 ‘원격전용 활+근접전용 단병의 동검’이던 무기체제가 ‘원격전용 활+근접전용 단병의 동검+근접전용 장병의 동모’로 바뀌기 시작한다. 비파

형동검문화의 전반적인 문화양상은 기원전 6~5세기의 정가와자유적군까지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비파형동검문화의 커다란 변화는 기원전 5~4세기의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부터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3. 세형동검문화

세형동검문화는 요동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였다. 중국동북지역에서는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한 윤가촌유형, 요동북부를 중심으로 한 상보촌유형, 길림성 중부를 중심으로 한 서황산둔유형이 있으며, 한반도에는 동서리유형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동북지역 세형동검문화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비파형동검보다 세신화된 세형동검과 청동제 T자형 검병이 등장한다. 이와 더불어 중원식동검·중원식동과·중원식동모 등 중원계 유물들이 등장한다. 중원계 유물들은 윤가촌유형에서는 빈번하게 확인되지만 북쪽으로 가면서 줄어들어 서황산둔유형에서는 늦은 시기나 등장한다. 반대로 재지적인 다뉴조문경은 서황산둔유형과 상보촌유형에서만 확인되고 윤가촌유형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동지역의 세형동검문화에는 철기가 유입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유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단계를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반도의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는 등장과 발전과정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는 중국동북지역 비파형동검문화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가능성도 언급되었다(이건무 1994). 그러나 세형동검문화의 성립기 청동유물들을 보면(표 6), 정가와자유적보다는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표 7).

〈표 6〉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의 성립기 유물

무기류	공구류	의기류	장신구류	거마구류	기타
세형동검, 석촉	동부, 동착	다뉴조문경, 동탁, 이형동기 (검파형·나팔형·방패형·원개형동기)	곡옥, 관옥, 소옥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표 7〉 정가와자 6512호묘와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의 주요 청동기

유적	구분	무기류	공구류	의기류	거마구류	기타
정가와자 6512호묘		비파형동검, 동촉 등	동부, 동착, 동추 등	다뉴경, 원개형동기, 경형동기 등	재갈, 철약, 나팔형 동기(정식) 등	장경호
	재지계	비파형동검, 요령식동과, 동모, 동촉	동부, 동착, 동추, 동도	?	재갈, 말얼굴장식?	두, 장경호 등 토기
중원계	중원식 동검·동과·동모, 동촉	동정·동두·동호·동돈 등 청동예기, 동탁		재갈, 차축두, 개공모 등		

동서리식 세형동검 중에서 가장 이른 형식은 검신 기부가 동글어 비파형동검의 분위기가 남아있으며, 봉부가 긴 장봉형이고, 혈구가 확인된다. 이와 가장 유사한 동검은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에서 확인되는 비파형동검이다. 반면에 정가와자 6512호묘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은 봉부가 단봉형에 가깝고 검신에 불림감이 여전해서 동서리식 세형동검과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동부와 동착 등은 십이대영자문화의 이른 시기부터 출토된다. 동탁은 정가와자 6512호묘 단계까지는 찾아볼 수 없으며,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에서만 확인된다. 검과형·나팔형·방패형의 이형동기류는 십이대영자문화의 거마구 중에서 말에 착장된 말얼굴장식이나 말머리장식등이 의기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원개형동기는 수레 장식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에서 출토된 이형동기류는 모두 거마구가 의기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십이대영자문화의 거마구는 이른 시기부터 정가와자 단계까지는 중원문화 및 북방문화와 유사성을 띠면서도 독자성이 강한 재지적 형식들이지만 남동구-동대장자단계에는 중원계 거마구가 재지계 거마구를 대체해 간다.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에서 확인된 이형동기들은 주로 재지계 거마구들이 의기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는 십이대영자문화에서도 재지적인 전통이 강한 유물들을 계승하고 있지만 동탁과 같은 중원계 유물도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요동의 윤가촌유형·상보촌유형과 한반도의 동서리유형은 차이는 있지만 중원계 물질문화가 등장해 있다. 비파형동검문화의 발전과정을 보면, 요서의 십이대영자문화는 재지문화가 중원문화와 북방초원문화의 영향 속에서 독자적인 청동기문화를 구축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중원문화 및 북방초원문화와 관련된 유물들이 없지는 않지만 독자적인 청동기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원전 6~5세기의 심양 정가와자단계까지 이어진다. 요동과 한반도 비파형동검문화는 비파형동검과 비파형동모, 동부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더욱 재지적인 색체가 강하다. 한국고대문화권에서 중원문화의 색체가 강해지는 때는 기원전 5~4세기의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부터이다. 무기류에 중원식동검, 중원식동과, 중원식동모가 등장하며, 동정·동두·동정·동돈 등의 청동예기류와 동탁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중원계 유물들이 대거 등장한다. 그뿐 아니라 재지적인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던 거마구도 이철함이나 차축두 등의 중원계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국고대문화권에서 중원계 물질문화가 급증하는 시기는 십이대영자문화의 남동구-동대장자단계부터 시작된다.

기원전 5~4세기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에서 급증하기 시작한 중원계 물질문화는 기원전 300년경 십이대영자문화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그 양상이 요동과 한반도로 이어진다. 요동과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는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과 비교해 볼 때, 중원계 물질문화의 기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양상이 이어지는 것은 틀림없다. 그뿐 아니라 십이대영자문화의 남동구-동대장자단계에 완성

된 무기체계인 '원격전용 활+근접전용 단병의 동검+근접전용 장병의 동모·동과' 조합이 요동과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근접전이 급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접전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장권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물질적 증거이다(조진선 2019).

그러므로 기원전 3세기 이후 요동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세형동검문화의 기원은 요서지역 십이대영자문화의 늦은 단계인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재지적 특성이 강한 비파형동검문화의 전통에 중원계 물질문화가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사회문화의 변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양한 종류의 중원식 무기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원시사회의 전쟁양상인 원격전을 대신해서 강력한 수장권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근접전이 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고대문화권에서 청동기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세형동검문화는 그 기원이 요서지역 십이대영자문화의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에 있다. 이때부터 비파형동검문화로 대표되는 독자적인 청동기문화를 구축했던 한국고대문화권은 전국계 청동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크게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양상은 다양한 종류의 중원계 무기류, 중원계 거마구, 중원계 청동예기류와 동탁의 등장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새로운 방식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수장권의 형성, 새로운 방식의 제의 체제가 도입되었음을 나타낸다.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에서 시작된 새로운 양상은 기원전 300년경 십이대영자문화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요서지역에서는 멈추었지만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요동과 한반도로 파급되면서 세형동검문화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요동과 한반도에서 세형동검문화로의 문화변동은 십이대영자문화 남동구-동대장자단계에 기원한다.

4. 철기의 등장

한국고대문화권에는 기원전 3세기부터 철기가 등장한다. 십이대영자문화의 늦은 단계인 기원전 5~4세기의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에서는 아직까지 철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철기가 기원전 4세기 이전에 한국고대문화권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원전 3세기에 요서지역이 이탈하면서 한국고대문화권은 요동과 한반도로 축소된다. 요동지역에서 철기는 기원전 3세기 전반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철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기원전 3세기 중엽 이후로 생각되며(김주호 2007),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2세기 전반부터로 추정된다. 기원전 3~2세기의 철기는 철부, 철착, 철검, 철사 등인데, 주로 목공구와 농공구여서 당시의 생산력 증대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요동지역에서는 조사된 유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단계 설정이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한반도의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는 그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동서리유

형 세형동검문화의 성립기는 순수한 청동기문화이며, 발전기 전반까지도 순수한 청동기문화였을 가능성이 크다. 발전기에는 성립기를 대표하는 이형동기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대신 동과·동모와 같은 새로운 무기류가 등장한다. 다뉴조문경은 다뉴정문경으로 대체되며, 팔주령·쌍두령 등의 동령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의 독특한 특징이 강화된다.

철부·철착·철사 등의 철기들은 발전기 후반에 등장한다. 그러나 무기류는 여전히 세형동검·동과·동모가 지속되며, 다뉴정문경이나 동령류는 크기와 형태가 약간씩 변화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지만 기본적인 양상은 지속된다. 그래서 철기의 등장은 세형동검문화에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성립기와 발전기 사이에 있는 변화보다 그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시작된 쇠퇴기 때이다. 이때부터 철제 무기류들이 등장하며, 한경 등 중원계 물질문화가 한반도 남부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온다. 이를 통해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는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질서가 해체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IV.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시기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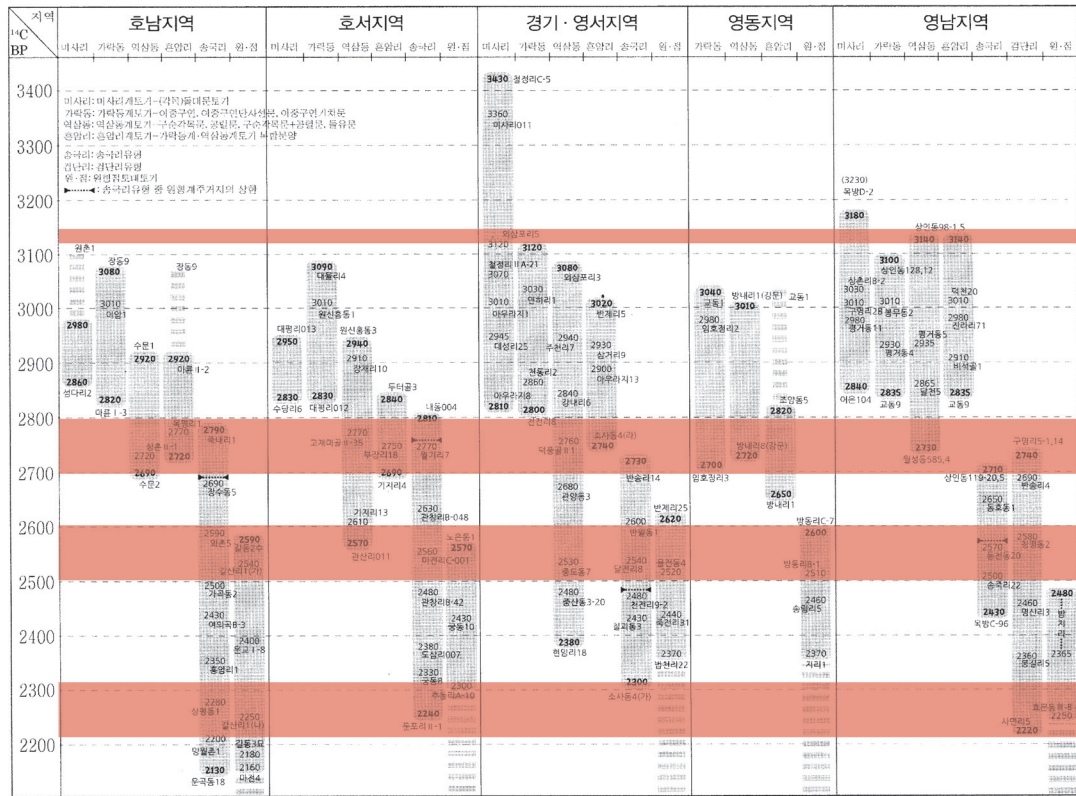
1. 시기 구분 기준

청동기-초기철기시대에서 물질문화적인 획기는 당연히 청동기와 철기의 등장이다. 한국 청동기문화는 비파형동검문화 등장 이전의 초기 청동기문화, 비파형동검문화, 세형동검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고대문화권에서 최초의 청동기들은 기원전 20세기경에 등장하였다. 비파형동검문화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원전 12~8세기의 범위 안에서 추정되고 있다. 세형동검문화 역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기원전 5~3세기의 범위 안에서 추정하고 있다. 철기는 기원전 3~2세기에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청동기문화의 연대관은 전적으로 방사성탄소연대에 근거한 것이다. 비파형동검문화와 세형동검문화의 연대관에서 이르게 본 것은 대체로 방사성탄소연대, 늦게 본 것은 기년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방사성탄소연대를 기준으로 한 남한지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에 대한 편년은 이창희(2016)에 의해 종합되었다(그림 6). 그 결과를 보면, 남한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경기와 영서지역, 영남지역에서는 미사리계 토기의 방사성탄소연대가 3100BP를 상회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 그래서 3100BP가 분기를 하는 데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남한 전역의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남한지역에서 공통된 획기는 2800~2700BP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는 미사리, 가락동, 혼암리계 토기들이 전역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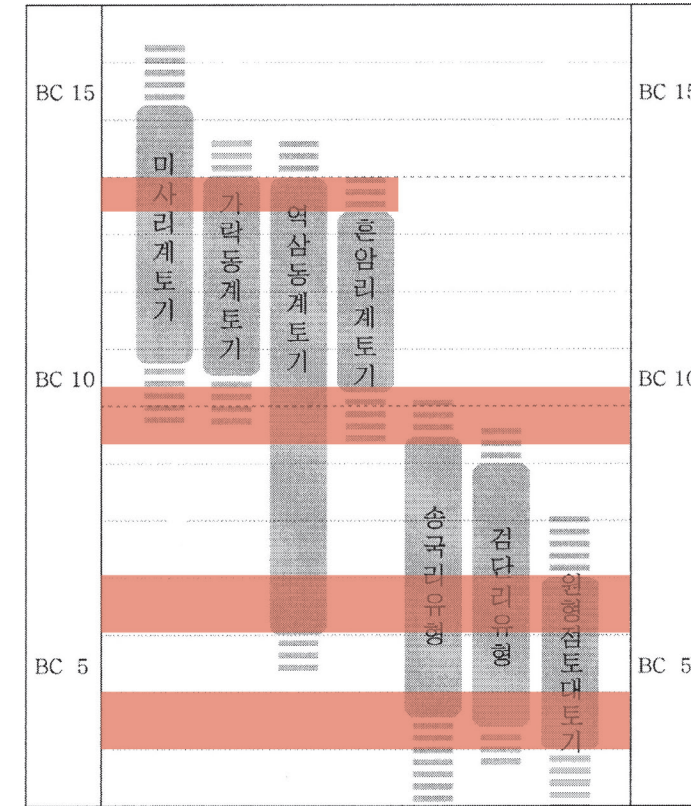
사라진다. 역삼동계 토기도 경기·영서와 호서 지역에만 남아 있다. 그리고 송국리유형과 검단리 유형이 등장한다. 다음으로 2600~2500BP에는 원형점토대토기가 등장하며, 호서지역에서도 역삼동계 토기가 사라진다. 2300~2200BP에는 송국리유형, 검단리유형, 원형점토대토기문화가 거의 동시에 끝나며, 경기·영서지역에 남아있던 역삼동계 토기도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다. 호남지역에서는 송국리 유형과 원형점토대토기문화가 좀 더 늦은 시기까지 이어진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원형점토대토기문화가 더 늦은 시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선으로 이어져 있다.

이창희는 이러한 방사성탄소연대의 보정연대를 토대로 조기와 전기는 기원전 13세기로 구분하였고, 전기와 중기는 기원전 10~9세기로, 중기와 후기는 기원전 6세기경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전기와 전기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남한지역에 한정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양자 사이에 석검의 유무 등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갖는 문화적인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발표자는 이를 하나의 시기로 묶어 전기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보정연대상 기원전 10~9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의 구간도 하나로 묶어 중기로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의 구간도 하나로 묶어 후기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래서 방사성탄소연대로 보면,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는 기원전 4세기경에 끝나는 것이 된다.



〈그림 6〉 남한지역 문화유형별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이창희 2016 수정)

남한지역에서 비파형동검은 방사성탄소연대상 기원전 10세기경에 등장하므로 대체로 전기 말에 등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중기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세형동검문화는 점토대토기와 관계로



〈그림 7〉 방사성탄소연대로 본 남한지역의 획기(이창희 2016 수정)

보아 후기에 해당할 것이다. 한반도 중서부지역에서 철기는 원형점토대토기와 함께 부장되기 때문에 철기도 방사성탄소연대상 기원전 6~4세기인 후기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중서부지역에서 철기의 연대는 기원전 2세기, 빨라야 기원전 3세기 후반이라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있다. 하지만 기년적 연대관을 기준으로 하건, 방사성탄소연대를 기준으로 하건 남한지역의 청동기문화는 공통적으로 3단계 정도로 구분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2. 기원전 2000년~기원전후의 시기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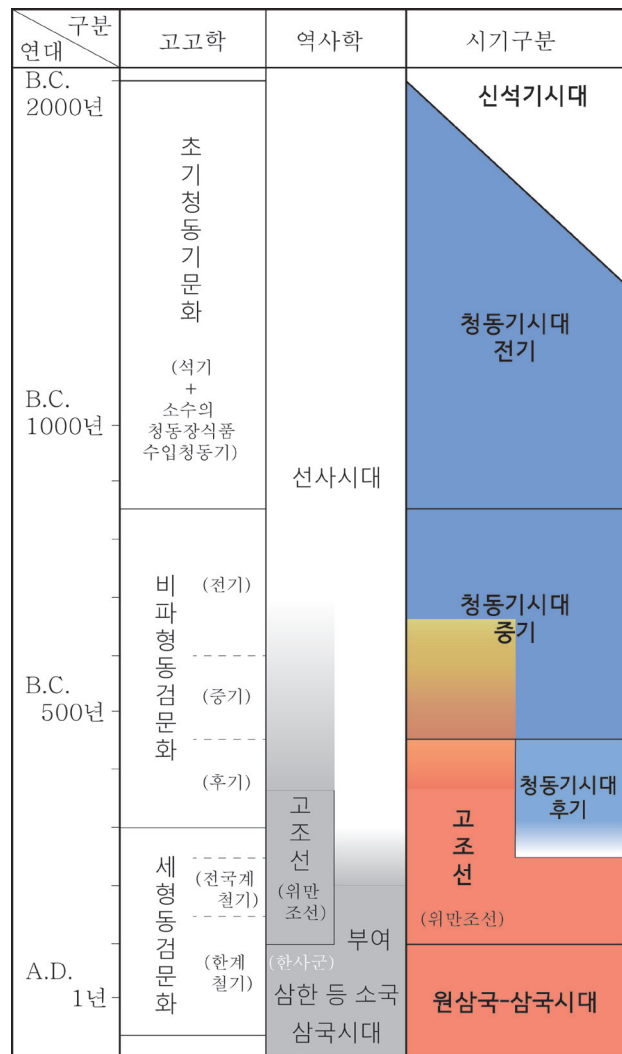
현재의 청동기-초기철기시대는 청동기와 철기의 등장을 기준으로 기원전 20세기경부터 시작된 초기 청동기문화, 기원전 9~8세기에 시작된 비파형동검문화, 기원전 300년경부터 시작된 세형동검문화, 기원전 3~2세기의 초기철기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사에서 이 시기는 고조선을 비롯한 초기 민족국가들이 서서히 등장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의 시기 구분은 고고학만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으며 역사학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한국고대문화권에서 청동기는 기원전 20세기경 요동반도의 쌍타자문화, 요동북부의 마성자문화 등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무문토기문화는 점차 남하해서 기원전 15~13세기에는 남한지역에 이른다. 요동지역에서 기원전 20세기경부터 등장한 청동기들은 청동장식품이나 동과·동축과 같은 수입품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북부에서도 용천 신암리에서 동도자가 출토되었다. 한반도 중남부에서는

정선 아우라지유적 등에서 청동장식품이 출토되었다. 그래서 ‘청동기가 있는 청동기시대’를 확인하게 되었다. 다만, 한국 청동기문화를 대표하는 비파형동검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비파형동검문화 등 장 이전의 청동기문화, 즉 초기 청동기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발표자는 기원전 20세기경부터 기원전 9~8세기에 비파형동검문화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초기 청동기문화를 청동기시대 전기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농경이 본격화되고, 무문토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점에서 신석기시대와도 구분된다. 요동과 한반도에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유형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소규모 농경민 집단들이 여기저기에 살고 있었던 시기로 이해된다.

기원전 9~8세기경 요서지역에 십이대영자문화가 등장하면서 한국 청동기문화를 대표하는 비파형동검문화가 등장한다. 십이대영자문화에는 비파형동검 등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청동기문화가 등장해서 십이대영자문화의 재지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거마구를 보면, 독자성을 띠면서도 중원 문화적인 위영자유형나 북방초원문화인 하가점상층문화의 거마구들과 유사성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십이대영자문화는 재지적 성격의 토착 문화가 중원문화적 성격의 위영자유형과 북방초원문화인 하가점상층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십이대영자문화는 요서를 넘어 요동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요동지역에 강상유형이나 이도하자유형이 형성된다. 한반도에도 파급된다. 하지만 요동과 한반도에서는 십이대영자문화에서 확인되는 다종다양의 청동기들 가운데 비파형동검과 동부 등 무기류와 공구류 일부만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이 어디까지나 요서의 십이대영자문화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비파형동검문화가 요동과 한반도로 파급되는



〈그림 8〉 기원전 2000년~기원전후의 시기 구분

시기는 기원전 8~7세기로 추정된다. 방사성탄소연대를 통해 추정된 기원전 12~10세기경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대 차이 때문에 비파형동검의 요동기원설이 제기되었지만 발표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방사성탄소연대와 기년 사이의 간극으로 이해한다.

비파형동검문화는 기원전 6세기경에 비파형동검이 등장하면서 야기된 사회변화도 감지되지만 기본적인 유물구성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채 기원전 6~5세기의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 단계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기원전 5~4세기가 되면,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십이대영자문화에서도 중국 중원지역에 가까운 대능하 상류지역에 위치한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전국시대 중원계 유물들이 급증한 것이다. 비파형동검은 여전히 출토되지만 중원식동검, 중원식동과, 중원식동모가 등장하고, 그 영향을 받아 요령식동과도 출현한다. 그래서 ‘원격전용 활+근접전용 단병의 겸+근접전용 장병의 과·모’ 무기 체계가 확립된다.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던 거마구에도 중원식 재갈, 차축두 등이 출현하면서 변화를 보인다. 또한 동정·동두·동호·동돈 등 중원계 청동예기와 동탁 등 중원계 예악기가 등장한 것은 다뉴경을 중심으로 한 재지적인 제의 체제를 대신해서 중원적인 제의 체계가 도입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은 요서지역에 국한되어 일어났으며, 이 시기까지 요동지역과 한반도에서는 중원계 유물들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원전 300년경 요서의 십이대영자문화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상황이 크게 변화된다. 요동과 한반도에 십이대영자문화적 성격을 갖는 세형동검문화가 등장한다. 중원계 유물들의 종류와 수량은 남동구-동대장자유적군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원계 유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형동검문화의 등장과 확산은 요동과 한반도에 요서지역 십이대영자문화의 파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요동과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에 동모·동과가 등장하는 것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이다.

그러므로 토착적인 성격이 강한 요서의 십이대영자문화는 남동구-동대장자단계부터 전국시대 중원문화의 영향이 급격하게 확대된다. 그리고 요동과 한반도의 세형동검문화는 이러한 양상을 계승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중기는 요서지역에서는 십이대영자문화가 등장해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정가와자단계까지로, 요동과 한반도에서는 세형동검문화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는 요서지역에서는 전국시대 중원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십이대영자문화의 남동구-동대장자단계부터이며, 요동과 한반도에서는 이를 계승한 세형동검문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요서지역에서는 기원전 5~4세기부터, 요동과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300년경부터를 청동기시대 후기로 설정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는 전국시대 중원문화가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재지적 성격이 강한 청동기문화를 벗어나는 시기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정치체제, 제의 의식이 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9~8세기부터 기원전 6~5세기의 어느 순간에는 『관자』의 기록으로 보아 고조선이 등장했을 가능성도 있다³⁾.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기원전 4세기부터이다. 『전국책』⁴⁾이나 『사기』⁵⁾ 등에 고조선은 그 존재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 기원전 4세기 후엽에는 고조선의 존재와 역할, 그리고 패퇴에 대한 기록도 확인된다⁶⁾. 이를 보면 청동기시대 중기까지는 고조선의 존재에 대하여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4세기부터는 고조선의 존재가 확인해진다. 또한 기원전 3세기부터는 요동과 한반도에도 부여와 삼한 등 초기민족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동기시대 중기는 향후 연구를 통해 고조선과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기원전 5~4세기에 시작된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르면, 고조선의 존재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시기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문화를 기준으로 한 청동기시대 후기와 역사를 기준으로 한 고조선시대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기원전 3세기 중엽경부터 기원전 2세기에는 철부·철착을 중심으로 한 철기가 요동과 한반도 중서부에 등장한다. 요동지역에서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기가 등장한 전후 시기의 발전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반도의 동서리유형 세형동검문화에서는 철기가 등장한 이후에도 사회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수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원전 3~2세기의 전국시대 중원계 초기철기문화는 기원전 2~1세기에 漢나라 계통의 철기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전통이 단절되는 양상마저 보인다. 그래서 기원전 3~2세기의 초기철기문화를 하나로 묶어 초기철기시대로 구분하기에는 그 연대폭이 100~200년 정도에 불과하고, 세형동검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적극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기원전 1세기에 한나라 계통의 철기문화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지속되지도 못한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기원전 3~2세기의 철기문화를 지금처럼 따로 구분해서 초기철기시대로 명명하기에는 시간적인 폭과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제한되어 있다. 더구나 기원전 3~2세기에 요동과 한반도 북부에는 고조선(준왕-위만조선)과 삼한 등 초기민족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뚜렷한 정치체가 형성된 이 시기까지도 물질문화를 중심으로 한 시대명칭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동기시대 후기는 고고학적인 청동기시대 후기와 역사적인

고조선시대를 병기하는 것이 좋겠지만 기원전 3~2세기부터는 고조선을 시대 명칭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부터는 삼국시대로 향해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원삼국-삼국시대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는 물질문화의 등장만을 기준으로 하면 초기 청동기문화, 비파형동검문화, 세형동검문화, 철기의 등장이 큰 의미를 가지겠지만 사회문화의 변동과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시기 구분은 이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초기 청동기문화가 등장해서 비파형동검문화 등장 이전까지인 기원전 20~10세기까지를 청동기시대 전기, 비파형동검문화가 등장해서 발전하는 기원전 9~8세기부터 기원전 6~5세기까지를 청동기시대 중기, 십이대영자문화에 전국시대의 중원계 물질문화가 대거 들어오면서 비파형동검문화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이어서 요동과 한반도에 세형동검문화가 등장하는 시기, 즉 요서지역에서는 기원전 5~4세기, 요동과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3세기부터를 청동기시대 후기로 명명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는 이미 고조선의 존재가 뚜렷해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명칭인 고조선시대를 병기해도 좋을 것이다. 기원전 3~2세기에는 요동과 한반도에 전국시대의 중원계 철기문화가 들어오지만 세형동검문화를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기원전 2~1세기부터 한나라 계통의 새로운 철기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전통이 단절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고조선과 부여, 삼한 등 민족국가들의 존재도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초기철기시대로 불려온 시기는 고고학적인 시대명칭을 고집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대표하는 고조선에 의미를 부여해서 고조선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원전 1세기가 되면 삼국시대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고고학계에서는 원삼국시대, 역사학계에서는 삼국시대를 시대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3) 『管子』揆度, '桓公問管子曰 吾聞海內玉幣七策 可得而聞乎 管子對曰 …… 燕山之紫山白金一策也 發朝鮮之文皮一策也' 『管子』輕重甲, '管子對曰 …… 發朝鮮不朝 請文皮 毳服而以為幣乎 …… 豹之皮容金而金也 然後八千里之發朝鮮可得而朝也'

4) 『戰國策』燕策, "蘇秦將為從 北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北有林胡樓煩西有雲中九原南有噶沱易水地方二千餘里"

5) 『史記』蘇秦列傳, "去遊燕 歲余而後得見 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 西有雲中九原 南有濇沱易水 地方二千余里 帶甲數十萬 車六百乘 騎六千匹 粟支數年 南有碣石 雁門之饒 北有棗栗之利 民雖不佃作而足于棗栗矣 此所謂天府者也"

6) 『魏略』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為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為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軍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為界 朝鮮遂弱'

<참고문헌>

姜仁旭, 1996, 「遼寧地域 琵琶形銅劍에 대한 一考察」, 『韓國上古史學報』21.

강인옥, 2011,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 청동기시대의 형성과 전개」, 『東北亞歷史論叢』, 33.

郭大順·張星德(김정열 역),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동북아역사재단.

金美京, 2006, 「美松里型 土器의 변천과 성격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60.

金玟憬, 2014, 「遼寧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변천과 파급」, 『韓國靑銅器學報』15.

金壯錫, 2003, 「충정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韓國考古學報』51.

김장석, 2008,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한국고고학보』69.

김장석, 2018, 「한국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과 초기청동기시대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109.

김정열, 2009,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요하구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김정열, 2011,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증원식 청동예기의 연대와 유입 경위」, 『韓國上古史學報』72.

김주호, 2016, 「동주~서한대 증원지역 철기문화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柱晷, 2017, 「중국 증원지역 주조철기의 등장과 발전」, 『한국고고학보』102.

김주호, 2017, 「중국동북지역 철기의 유입과 발전」, 『호남고고학보』57.

박순발, 2016, 「제2장 청동기시대의 시말 - 그 전환의 획기」,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編年』, 서경문화사.

박진옥, 1987, 「비파형단검문화의 발원지와 창조자에 대하여」,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배진성, 2015, 「무문토기문화의 설정과 경계」, 『嶺南考古學』72.

배진성, 2015, 「美松里型土器文化의 動態와 分布圈」, 『東北亞歷史論叢』47.

安承模, 2012, 「種字와 放射性炭素年代」, 『한국고고학보』83.

安在皓, 2000, 「韓國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43.

안재호, 2016, 「제1장 청동기시대의 시기 구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編年』, 서경문화사.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李健茂, 1994, 「韓國式 銅劍文化의 性格 - 成立背景에 대하여 -」 『94 第3回 文化財研究 國際學術大會 論文集 東아시아의 靑銅器文化』, 文化財研究所.

李基白, 1970, 「韓國史의 時代區分 問題」, 『韓國史時代區分論』, 乙酉文化社.

이수홍, 2019,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종말기의 지역상」, 『韓國靑銅器學報』24.

李宗哲, 2015, 「松菊里型文化의 聚落體制와 發展」, 全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昌熙, 2008, 「放射性炭素年代測定法の 原理와 活用 - 적용상의 문제점-」, 『한국고고학보』68.

李昌熙, 2011, 「放射性炭素年代測定法の 原理와 活用(Ⅱ) - 고고학적 활용사례-」, 『한국고고학보』81.

李亨源, 2007, 「南韓地域 靑銅器時代 前期의 上限과 下限」, 『韓國靑銅器學報』1.

이형원, 2016, 「제6장 남한지역 병행관계」,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編年』, 서경문화사.

이형원, 2018, 「토기로 본 고조선 연구의 비판적 검토 -비파형동검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106.

이후석, 2013, 「세형동검 단계 중국 동북지역의 동과와 동모 -遼寧式銅戈와 柳葉形銅矛·細身形銅鉞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87.

이후석, 2016, 「동대장자유형의 계층 분화와 그 의미」, 『한국상고사학보』94.

이후석, 2019, 「요령지역 비파형동검의 등장과 그 배경」, 『한국고고학보』111.

趙鎭先, 2005, 「細形銅劍文化의 研究」, 學研文化社.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趙鎭先, 2017, 「遼西地域의 琵琶形銅劍文化와 種族」, 『한국상고사학보』96.

千羨幸, 2007, 「無文土器시대 早期 設定과 時間的 範圍」, 『韓國靑銅器學報』1.

천선행, 2015,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 재고」, 『호남고고학보』51.

천선행, 2018, 「한국 무문토기문화의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韓國靑銅器學報』22.

천선행, 2019, 「청동기시대 초기문화 성립과 지역 간 관계변화」, 『제4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교류와 교통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천선행·장순자, 2012, 「마성자문화 동굴묘 출토 토기 변천과 전개」, 『嶺南考古學』63.

한국고고학회, 2007, 「개정 신판 한국 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황재훈, 2017, 「중부지역 무문토기시대 전기 사회의 동향 -공렬토기의 확산과 문화변동에 주목하여-」, 『嶺南考古學』78.

황재훈·황혜민, 2015, 「C14연대 분석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시론」, 『호남고고학보』50.

T. 더글러스 프라이스(이희준 역), 2013, 『고고학의 방법과 실제』, 사회평론.

靳楓毅, 1982·1983,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靑銅短劍的文化遺存(上·下)」, 『考古學報』1982-4·1983-1.

吉林市博物館·永吉縣文化館, 1983, 「永吉星星哨石棺墓第三次發掘」, 『考古學集刊』3.

王樹芝·尾崎大眞·坂本稔·今村峯雄, 2008, 「精確定年の祁連圓柏炭十四年代の加速器質譜測定」『考古』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馬城子 -太子河上游洞穴遺存」, 文物出版社.

林滢, 1980,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2.

趙賓福, 2008, 「以陶器爲視覺的雙房文化分期研究」, 『考古與文物』1.


朱永剛, 2008, 「遼東地區雙房式陶壺研究」, 『華夏考古』2.



제4발표

‘초기철기시대’ 폐기 제안

박진일
국립청주박물관



-
- I. 머리말
 - II.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제창과 주요 대안 검토
 - III. 청동기시대 이후 시대명의 전제와 원칙
 - IV. 초기철기시대를 둘러싼 분절점 설정
 - V. 청동기시대와 이후 시대의 분절점과 시대명
 - VI.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고고학에서 初期鐵器時代라는 명칭은 선사에서 역사로의 전환지점에서 있다. 익히 알려져 있
다시피 『한국고고학개설 제1판』에서 처음 사용한 초기철기시대는 ‘구석기-신석기-청동기’로 이루어진
선사시대와 原史인 원삼국시대, 그리고 삼국-남북국(통일신라)-고려-조선’으로 이루어진 역사시대를
이어준다. 이와는 달리 초기철기시대도 역시 원삼국시대처럼 원사의 일부라 여기기도 한다. 이후 초
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견지에서 ‘삼한시대’나 ‘철기시대’가 주창되기도 했다. 그
래도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는 한국고고학에서 여전히 우월적인 시대명이다.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뿐만 아니라 『한국 고고학 강의(한국고고학회2015)』와 『영남의 고고학(영남고고학회2015)』 등
한국고고학의 개설을 다룬 책에서는 대차 없이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라는 시대명을 사용한다.
국립박물관에서 제작하고 보급한 소장품관리프로그램에서도 이 구분을 사용한다. 한국고고학 일선
에 있는 연구자의 현재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철기시대는 원삼국시대와 함께 시대

명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필자 역시 이 글에서 초기철기시대라는 시대명의 적절성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정의와 이후 주요 논의를 살핀 다음 청동기시대 다음 시대의 이름(현재는 초기철기시대)은 어떤 원칙에서 설정해야 하는지 필자의 기준을 제시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철기시대를 둘러싼 여러 문화양상을 살펴 청동기시대와 이후 시대의 분절점으로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겠다. 이후 청동기시대에 후속하는 시대명과 시대 구분에 대해 제안하겠다.

II.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제창과 주요 대안 검토

1. 제창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에서 마지막으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서술한 이후 30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초판에서는 서기전 3세기~서기 전후를 초기철기시대라고 하였다가, 제2판에서는 초기철기문화를 청동기시대의 일부로 두었다. 이후 제3판에서는 다시 초기철기시대를 독립시켰다. 그렇지만 서기 전후~서기 3세기까지는 변함없이 원삼국시대라고 이르고 있어 초기철기시대의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서기 전후~서기 3세기의 시대는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는 이후 많은 연구자가 비판하기도 지지하기도 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김원룡이 제안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란 무엇인가?

먼저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의 초기철기시대를 살펴보자.

‘서기전 3세기가 되면 철기의 현지 생산, 청동 이기의 실용성 상실이라는 점에서 청동 제품이 급증하고 청동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만, 실질적인 문화 단계는 철기 사용 단계이며 초기철기시대라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종래 청동기 II기라고 불려오던 이 서기전 300년간(B.C. 300~0)을 초기철기시대로 부르기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한국적 세형동검·정문식 세문경, 그리고 철제 무기, 농구, 공구 등이 출현함으로써 막이 열린다. (중략) 초기철기시대는 I 식 세형동검, 정문식 세문경으로 대표되는 I 기(B.C. 300~100)와 II 식 동검의 출현, 차마구의 부장, 세문경의 소멸, 철기 생산의 본격화 시기인 II기(B.C. 100~0)로 다시 갈라진다.’

한국고고학개설에서 서술한 바처럼 초기철기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식 청동기(한국식동검, 한국식동과, 동령, 정문경 등)의 등장·확산과 함께 중국 연나라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전국계철기(이른바 초기철기)의 등장을 들 수 있다. 토기로는 구연단에 점토띠를 두른 점토대토기와 흑색마연 평저장경

호, 파수부호가 대표적이다. 석기로는 평면 삼각형 석촉과 유구석부가 있다. 분묘는 매장주체부 상부에 적석을 한 적석목관묘(積石木棺墓)나 적석석관묘(積石石棺墓)와 함께 매장주체부 주위를 돌로 충전한 목관묘도 등장한다. 주거지는 평면 원형 위주이던 송구리단계와 달리 평면 방형에 한쪽 벽에 노지를 설치한 형태가 유행한다.

그런데 위의 서술을 자세히 살피면 초기철기시대를 原史가 아닌 先史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흔히 원사의 증거처럼 여기는 준왕의 입해 記事나 韓 또는 三韓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

이와 함께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의 원삼국시대도 살펴보자.

‘원삼국시대라는 것은 서력기원 개시 전후부터 서기 300년경까지의 약 3세기를 말하며, 이 시기는 국사에서 삼한시대, 부족국가시대, 성읍국가시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 왔고, 고고학에서는 김해시대, 웅천기, 또는 초기 철기시대 등 이름으로 불리는 시기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시기는 엄연한 삼국시대이며 실지로 삼국시대라면 누구나 삼국사기의 편년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위에 든 것 같은 갖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시대라 해 놓고 다시 그것을 삼국시대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이고, 또 북쪽에는 엄연히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삼한시대라는 남한 중심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 (중략) 그래서, 필자는 삼국시대의 原初期, 또는 原史 단계의 삼국시대라는 뜻으로 原三國시대(Proto-Three Kingdoms Period),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주장하여 온 것이며, 이것은 문헌사, 고고학에서 모두 함께 쓸 수 있는 합리적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삼국시대의 문화적 특색은 청동기의 소멸과 철기의 발달 및 보급, 철제 농구와 우경에 의한 농경의 발전, 그리고 지금까지의 저화도 민폐토기가 아니라 높은 온도의 단단한 회색 김해토기의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서술을 살피면 원삼국시대를 원사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의 고고학적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꽤 있다. 즉 청동기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우경의 증거는 아직 없다. 그리고 단단한 회색 김해토기는 삼국시대의 토기이고 와질토기가 원삼국시대의 주류 토기임은 명확하다. 이런 상황은 원삼국시대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리로 일컬어져 왔다. 이에 대해서는 이희준(2004)도 지적하듯이 ‘이 시대의 문화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이지 명칭 문제와는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이상의 서술을 미루어보아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에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구분은 선사와 원사의 구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즉 초기철기시대를 선사시대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에 제2판에서는 청동기시대로 구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제3판에서는 초기철기시대로 다시 회귀하였

지만, 여전히 선사시대의 일부로 여기는 듯하다. 마치 대전 괴정동 유적으로 대표되는 철기 미공반 한국식동검문화를 어떤 연구에서는 韓 이전의 청동기문화로, 또 어떤 연구에서는 韓文化로 설정하는 현재의 상황과 맥락이 닿는다. 그렇지만 원삼국시대는 역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선사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한편 초기철기시대에 대한 필자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 ① 철기 없는 단계(즉 괴정동 단계)를 철기시대라 이른다.
- ② 韓과 개념상 연계할 수밖에 없는 원사 단계의 초기철기문화를 선사시대명으로 이른다.

2. 주요 대안 검토

이후 주요 대안에 대한 비판은 이희준(2004)에 의해 잘 정리되었다. 대표적으로 삼한시대론과 철기시대론이 대두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이희준에 재론에 필자의 논의를 덧붙여 살펴보겠다.

가. 삼한시대론(신경철 1995 등)

이 논의는 김원룡의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모두 삼한시대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초기철기문화를 원사로 보는 것이어서 김원룡의 인식과는 결이 다르며 아래와 같은 논점을 상정할 수 있다.

① 김원룡도 이미 지적하였듯이 삼한이 존재했던 한반도 남부의 정치체를 기초로 한 조어라서 고조선, 고구려, 부여 등 한반도 북부와 요동 일대의 정치체가 제외된다.

② 삼한시대와 점토대토기·한국식동검과 적석목관묘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초기철기시대의 상한이 같아지는데 전통적인 연대관에서 대략 서기전 3세기 초(괴정동 유적의 연대)가 된다. 그런데 삼한이 등장하는 시점은 문헌에서 한이 등장하는 시점인 서기전 2세기 초보다 늦은 서기 전후 무렵이어서 서기전 3세기 초까지 삼한의 범주에 넣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비판이 있다. 물론 서기전 2세기 초의 준왕 입해 기사에서 준왕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韓地에 다다르므로 연대관에 따라서는 한문화의 개시를 괴정동 유형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다만 이 경우 한과 삼한의 상한을 같이 보아야 한다. 진한·변한이 모두 성립해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삼한시대'라고 부르려면 진한과 변한이 성립한 시점까지 내려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것은 고구려가 성립해 있었던 서기 전후에 한반도 남부에 국가체로 볼 만한 정치체가 없었기 때문에 삼국시대의 시작을 서기 전후까지 상향할 수 없다는 논지와 일맥상통한다. 만약 한의 등장을 삼한의 시작으로 볼 것이라면 고구려의 등장 역시 삼국시대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로 보아야 한다.

③ 더불어 최근 원형점토대토기의 등장을 서기전 5세기로, 한국식동검의 등장(괴정동 유형)을 서기전 4세기로, 전국계철기의 등장(갈동 유형)을 서기전 3세기 중엽으로 보는 필자의 연대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더욱 복잡해진다. 즉 서기전 2세기 초에 준왕이 한지에 다다랐을 때의 韓文化는 초기 철기문화가 되는 것이라, 철기 미공반 한국식동검문화를 韓文化로 볼 이유가 전혀 없어 이것은 당연히 선사문화가 되어버린다. 즉 초기철기시대의 두 축인 한국식동검문화와 초기철기문화를 선사와 원사로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나. 철기시대론(최 룡 1993, 최성락 1998 등)

이 논의는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모두 철기시대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 시대명은 원사인 원삼국문화를 선사시대명인 철기시대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김원룡의 인식과는 결이 다르며 아래와 같은 논점을 상정할 수 있다.

① 여러 비판 중에서도 대전 괴정동 유적을 표지로 하는 청동기문화(한국식동검, 한국식 의기 등), 즉 철기 미공반 한국식동검문화를 철기 없는 철기시대라고 형용하는 모순이 지적된다.

② 더불어 소략하기는 해도 준왕의 입해 기사 이후 500년 정도 역사가 있는 시대를 선사시대의 조어인 '철기시대'에 귀속시키는 결과는 적당하지 않다. 이것은 초기철기시대보다 원삼국시대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앞서 인용하였듯이 김원룡은 원삼국시대를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시기는 엄연한 삼국시대이며 실지로 삼국시대라면 누구나 삼국사기의 편년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위에 든 것 같은 갖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시대라 해 놓고 다시 그것을 삼국시대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이고, 또 북쪽에는 엄연히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후략)'라고 하였다. 즉 고조선이나 고구려·부여라는 확실한 국가체가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시대의 폭을 축소하게 되어 우리나라 상고사의 인식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이라 보기 힘들다.

한편 한반도 북부와 남부의 철기 등장 연대 차이에 대해서는 이희준(2004)의 비판이 있었다. 즉 한반도 북부지방의 철기사용 연대가 한반도 남부지역의 철기사용연대(이희준은 서기전 200년 무렵으로 설정)보다 약 100년 이른 서기전 300년 무렵이어서 상한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상론하지는 않았지만, 필자(2015)는 서기전 3세기 중엽 무렵에는 韓에 초기철기가 등장했다는 입장에서 한반도 북부지역과 철기의 등장 연대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반도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등장 맥락은 '연→고조선(예맥)→한반도 북부·남부'인데 이로 인해 연대 역시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 고조선시대(이청규 2007, 정인성 2019 등)

그 외의 대안으로 최초의 정치체이자 족명인 조선을 시대명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하다. 즉 고조선시대이다. 이청규는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전환하는 원사시대는 원삼국시대부터가 아니라 고조선부터이므로 삼국시대 앞에 고조선시대가 설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인성 역시 고조선을 소환하여 한국고고학의 시대명으로 진지하고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병현(2017)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삼한보다 이르면서 당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민족 중 가장 먼저 정치체를 이룬 나라로서의 대표성을 논거로 한 고조선시대의 설정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반도 북부와 요동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명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한과 예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는 앞선 삼한시대론에서의 논점과 같다. 더불어 고조선시대의 상한과 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至難한 논쟁이 예상된다. 대부분 현재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고고학의 현실에서 고조선으로 설정한 시대 구분의 틀이 얼마나 조사·연구·전시에 적합한 개념으로 쓸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연히 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현장 조사자들과 연구소나 박물관의 담당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인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설사 성공적으로 고조선시대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한반도 북부와 요동의 유물조합을 기초로 시기를 나눈다면 한반도 남부지역의 문화상과 동조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대 구분의 최종목표인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난망하다.

궁극적인 도달점으로서 고조선시대(또는 고조선과 한을 포함한 명칭)는 설득력이 있고 매력적이지만 당장 적용할 것이 아니라면 학계에서 연구를 기획하고 꾸준히 진행하여 공통의 인식 틀을 도출한 이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여러 고조선시대의 주장 역시 구체적이지 않고 향후 연구의 지향점에 가깝다.

한편 필자도 2007년도에 초기철기시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의 논지는 초기철기시대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간단히 살펴보겠다. 발생순서에 의한 유물의 조합을 편년의 근거로 사용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① 토기

- 점토대토기: 원형점토대토기 → 삼각형점토대토기
- 파수: 환상파수 → 조합우각형파수 → 봉상파수
- 두형토기 대각: 단각 → 공심형 장각 → 실심형 장각

② 동경: 조문경 → 3구식정문경 → 2구식정문경 → 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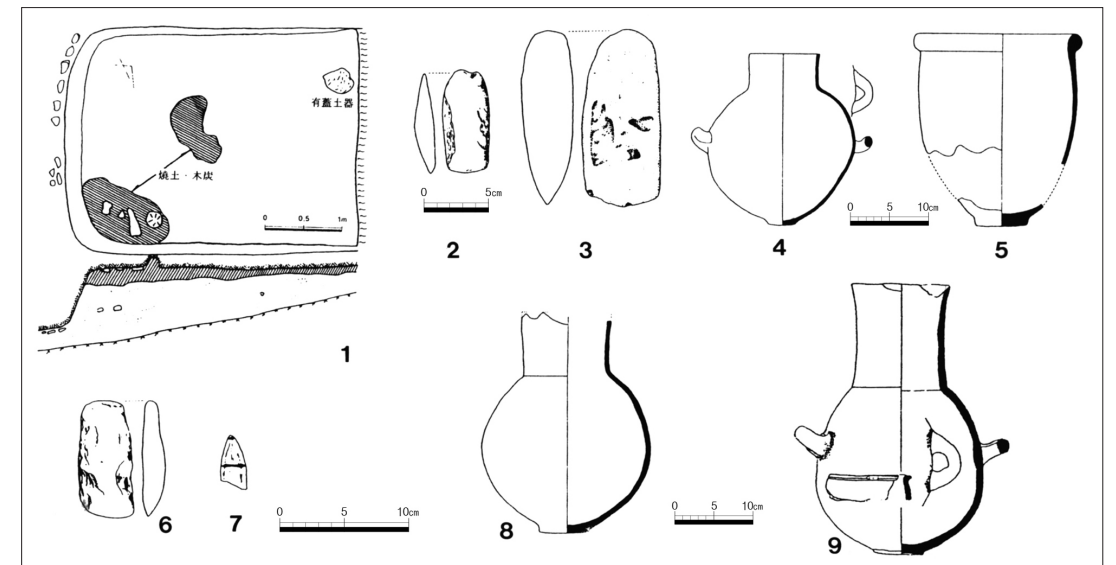
③ 금속기: 방패형동기·원개형동기·검파형동기 → 동과·동모 → 동령류 → 철기

④ 석기: 유구석부·석도 미공반 → 공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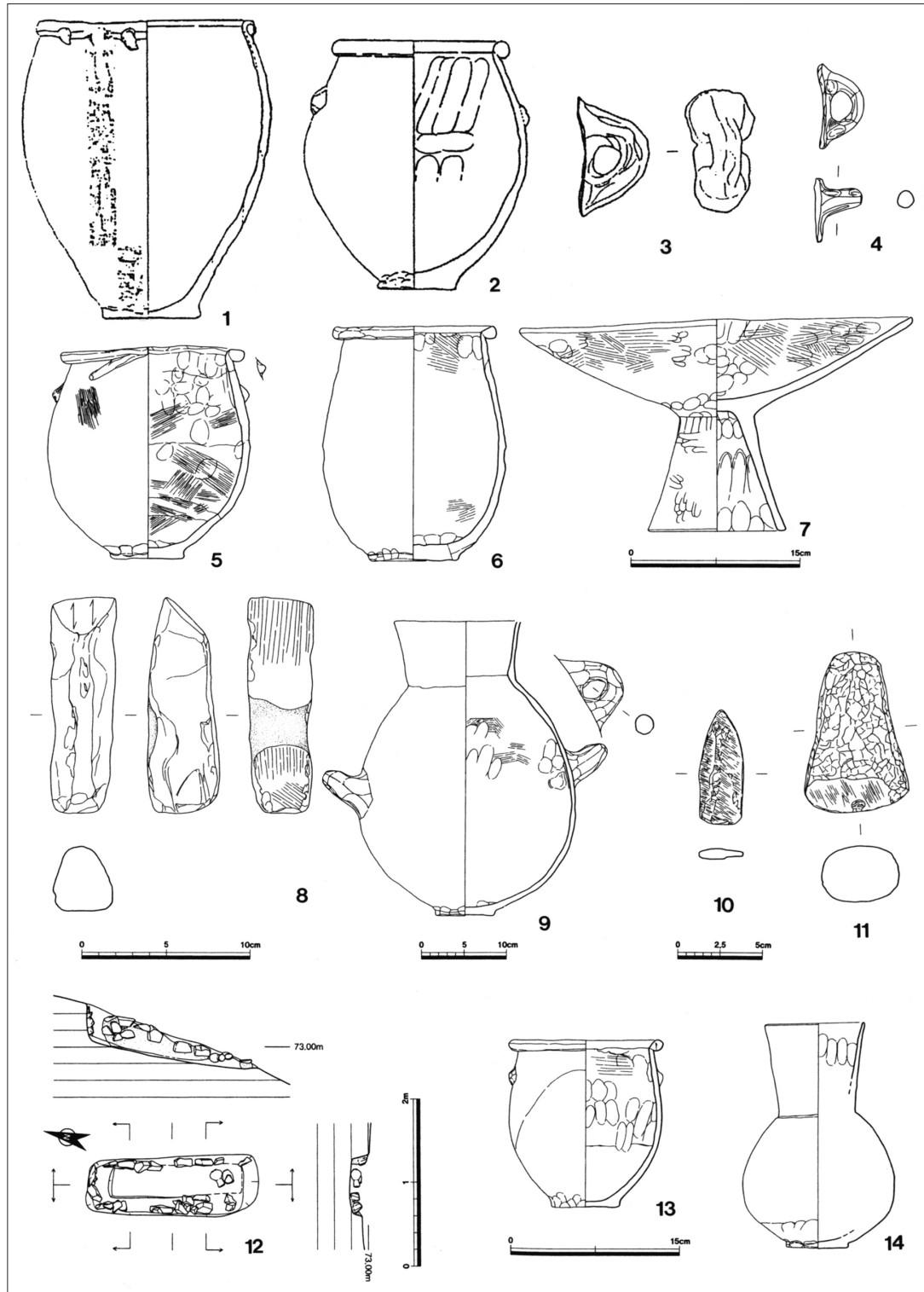
〈표 1〉 전고(박진일 2007)의 단계별 양상 요약

단계	연대	주요 금속기	대표 토기	비고	시대명
1	前5C初~		원점·환상파수	재지석기 無	청동기시대
2	前5C代		원점·환상·조우파	유구석부	
3	前4C初~	한국식동검·방패형동기·조문경	원점·조우파	적석목관묘 등장	초기철기시대
4	前2C初~	동검·동모·동과·동령·3區정문경	삼점·봉상파수	군집목관묘 등장	
5	前1C~	한국식동검·전국계철기·2區정문경	와질토기	진변한 확산	원삼국시대
		진변한식철기·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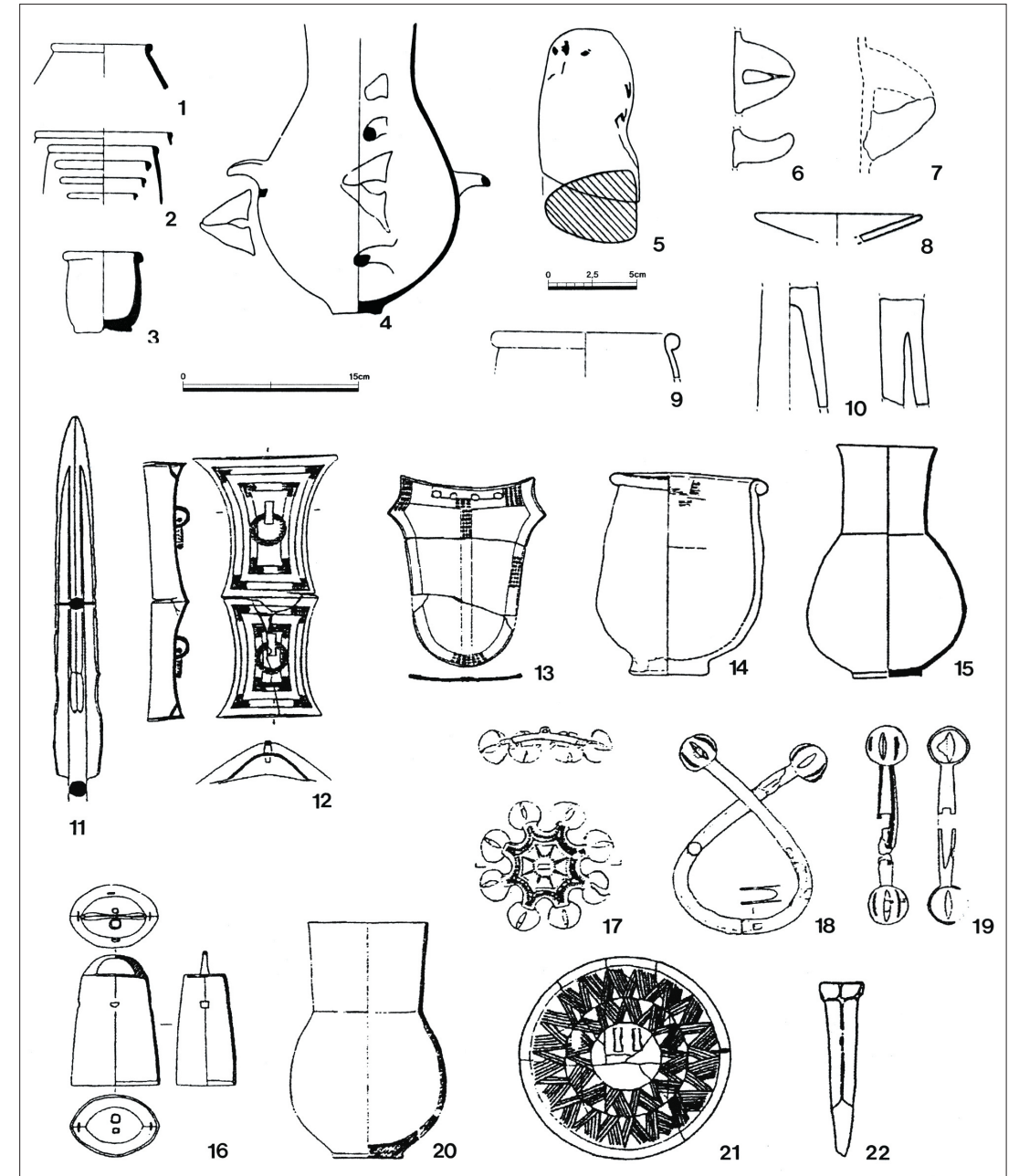
이 중 1~2단계는 청동기시대, 5단계는 원삼국시대, 그리고 3~4단계는 초기철기시대로 설정하였다. 당시 필자는 한반도 남부지역 전국계철기의 등장을 서기전 2세기 초로 보는 입장이어서 준왕이 도착하기 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한문화를 철기 비공반 한국식동검문화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초기철기시대를 선사시대가 아닌 원삼국시대와 함께 원사로 이해하였다. 각 문화상의 연대관이 바뀐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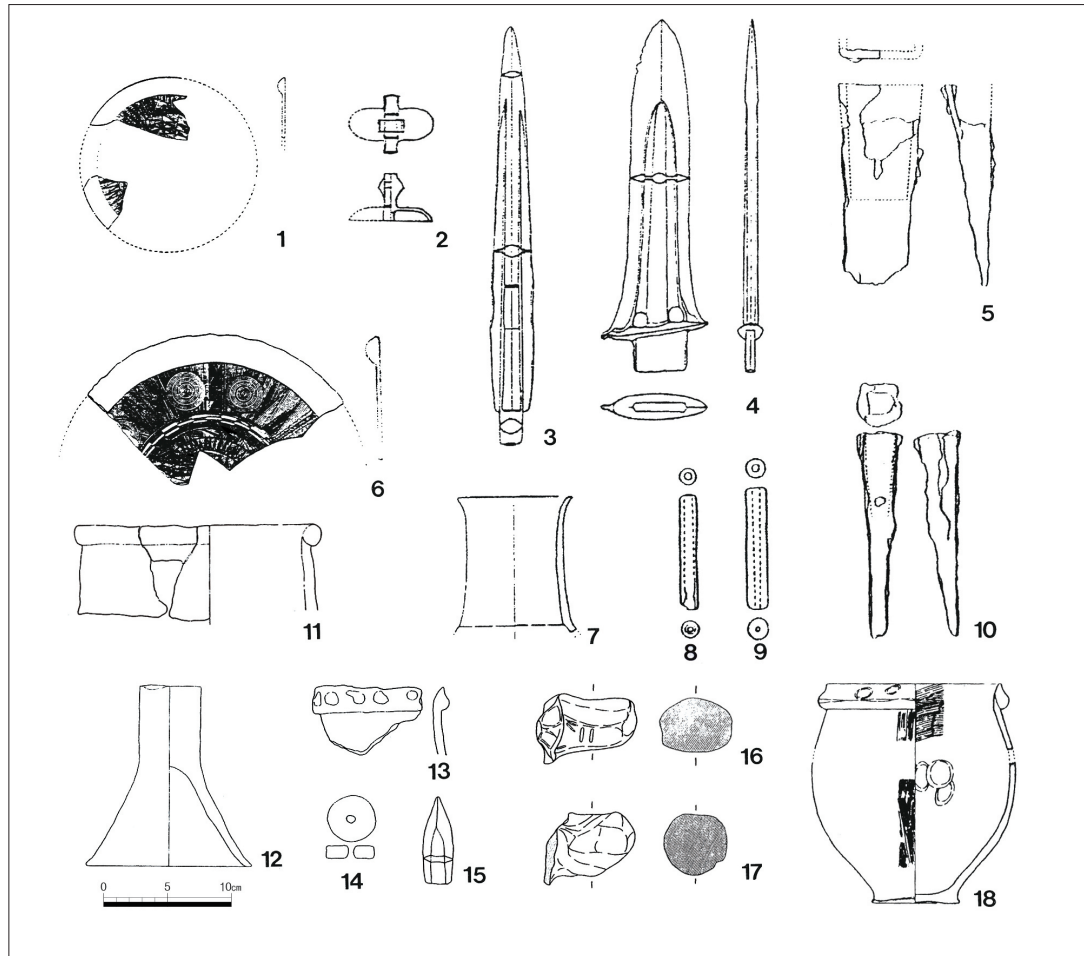
〈그림 1〉 1단계 (1~5. 수석리 3住, 6~8. 수석리 6住, 9. 백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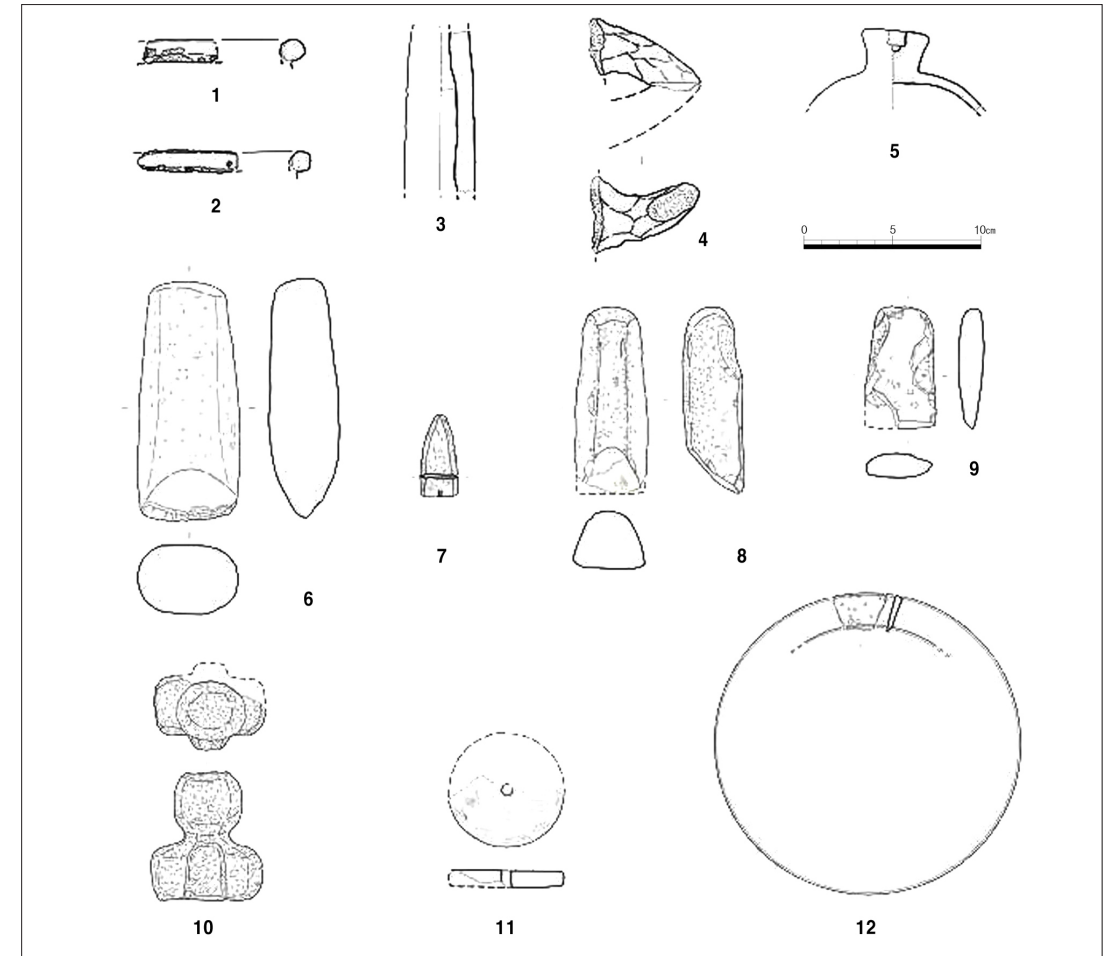
<그림 2> 2단계 (1~3. 교성리 6住, 4·5. 반제리 6·7, 반제리 13住, 8. 반제리 14住, 9. 반제리 21住, 10·11. 반제리 26住, 12~14. 반제리 2묘墓)



<그림 3> 3단계 (1~5. 응봉, 6~10. 아차산, 11~16. 괴정동, 17~19. 傳노산, 20~22. 남성리)



<그림 4> 4단계 (1~10. 소소리, 11~17. 가와지, 18. 오이도)



<그림 5> 5단계 (1~12. 파주 독서리)

III. 청동기시대 이후 시대명의 전제와 원칙

청동기시대 이후의 시대명을 정하기에 앞서 이 시대를 어떤 전제와 원칙에서 이르는 것이 개념적으로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맥락에서 필자의 전제와 원칙을 제안한다.

1. 전제

- 가. 청동기시대에는 금속으로 청동기만 출토된다.
- 나. 기록이 등장하는 시점부터는 역사시대(원사 포함)다.
- 다. 삼국시대의 시작은 서기 300년 무렵이다.

2. 원칙

- 가. 선사시대명이 아니어야 한다.
- 나. 한반도와 요동일대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 다.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IV. 초기철기시대를 둘러싼 분절점 설정

아래의 표는 초기철기시대를 둘러싼 문화적 분절점을 현재 필자의 연대관으로 구성한 것이다.

<표 2> 초기철기문화를 둘러싼 문화적 분절점

분절점	대표 금속기	대표 토기	대표 분묘 양태	대표 분묘
①前5C初	요령식 청동기	원형점토대토기	비군집 목관묘	아산 매곡리
②前4C初	한국식 청동기	원형점토대토기	비군집 (적석)목관묘	대전 괴정동
③前3C中	청동기(韓)+주조철기	원형·삼각형점토대토기	군집 (적석)목관묘	완주 갈동
④前2C初	청동기(韓)+주조·단조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대구 월성동
⑤前1C中	청동기(韓)+주조·단조철기	전기와질토기	군집목관묘+유력개인묘	창원 다호리
⑥後2C中	주조·단조철기	후기와질토기	군집목관묘+유력개인묘	김해 양동리

연대에 대해서는 전고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분절점①은 원형점토대토기의 등장연대는 서기전 6세기 무렵을 상한으로 하는 요중지역 凉泉유형과 시간적 관계를 고려하여 서기전 5세기 초이다(박진일, 2007).

분절점②는 한국식동검 등 한국식 청동기의 등장은 춘추 말이나 전국 초로 생각하는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와의 시간적 관계를 고려하여 서기전 4세기 초이다(박진일, 2007).

분절점③은 완주 갈동 3호 유적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전국계 주조철기(즉 초기철기)는 무순 연화보 유적을 비롯한 중국 요하 중류역 출토품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서기전 28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진개의 활동과 관련하여 서기전 3세기 중엽이다(박진일, 2015).

분절점④는 대구 월성동유적은 갈동 유적의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진변한식 단조철기가 군집목관묘에서 출토되는 것을 마한 군집목관묘와 시차를 근거로 서기전 2세기 초이다. 이 단계까지는 와질토기가 출토되지 않는다(박진일, 2016).

분절점⑤는 진한과 변한 각지에서 유력 개인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가장 이른 곳은 한경의 연대 유적별 목관묘의 시기 조열 등을 근거로 서기전 1세기 중엽이다. 유적별로 등장 연대에 차이가 있으며 와질토기의 등장 시점인 서기전 1세기 전엽(그림 6-7의 3단계)보다 약간 늦은 감이 있다. 와질토기는 전국토기나 전국계토기의 移植이 아니라 재지의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제작자가 전국(계)토기의 제작기술을 받아들여 만들어 낸 것이다(박진일, 2016). 특히 서기 전후 약 50년을 중심으로 진변한 각지에서 유력 개인묘(창원 다호리 1호, 밀양 교동 3호, 경산 양지리 1호, 영천 어은동·용전리, 경주 조양동 38호, 경주 탑동 1호 등)가 등장한다. 유력 개인묘의 등장은 지구국론의 입장에서 小國의 등장과 연계시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박진일, 2019).

분절점⑥은 김해 양동리 162호묘의 연대관을 따라 서기 2세기 중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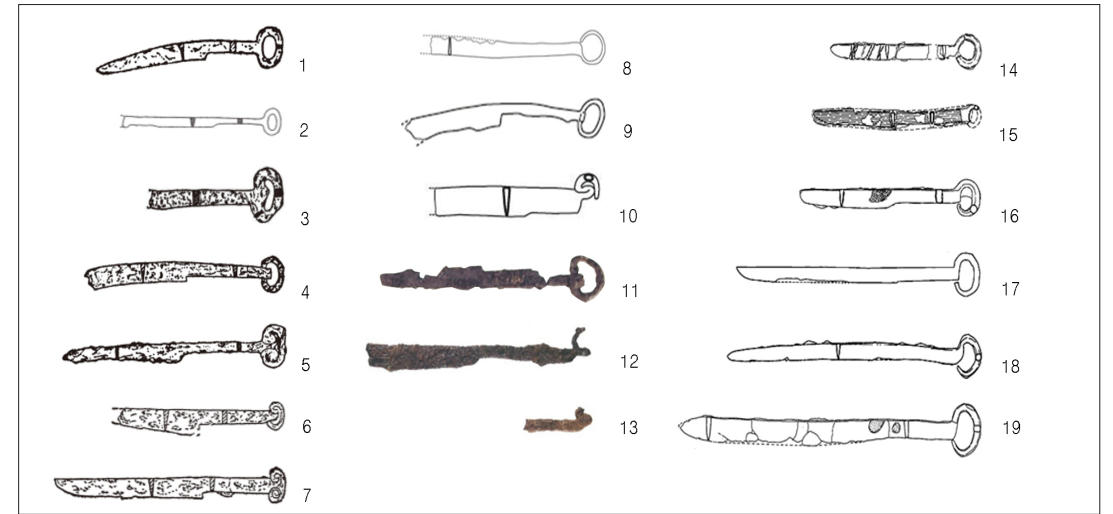
앞선 여러 분절점 중 필자 연대관의 핵심을 이루는 분절점③에 대해 간단히 살피겠다. 그림 8-11은 한반도의 초기철기와 관련된 도자·철부·철착·철검을 하북성과 요령을 포함하여 살핀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서남한 지역 마한의 초기철기는 후기 고조선의 중심지라 여기는 서북한 지역보다 요하 중류역의 철기와 비슷한 것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서남한 철기의 등장을 준왕의 입해 기사와 연계하여 해석하기보다 고조선과 관련한 진개의 활동과 관련하여 해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서기전 300년 경이 아닌 서기전 280년 경으로 설정한 배진영(2001)의 연대를 따른다(그림 8-11).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점토대)용	봉상파수부호	단경호
I	51호, 83호	57호			
II	45호, 94호	45호	90호	90호, 28호	
III	65호, 28호		30호		28호
IV	31호				31호, 41호
V	82호, 85호	85호			82호
VI	96호, 112호	96호		102호, 50호	102호, 111호
VII	111호	106호, 111호	95호	106호, 50호	111호

<그림 6> 팔달동 유적 편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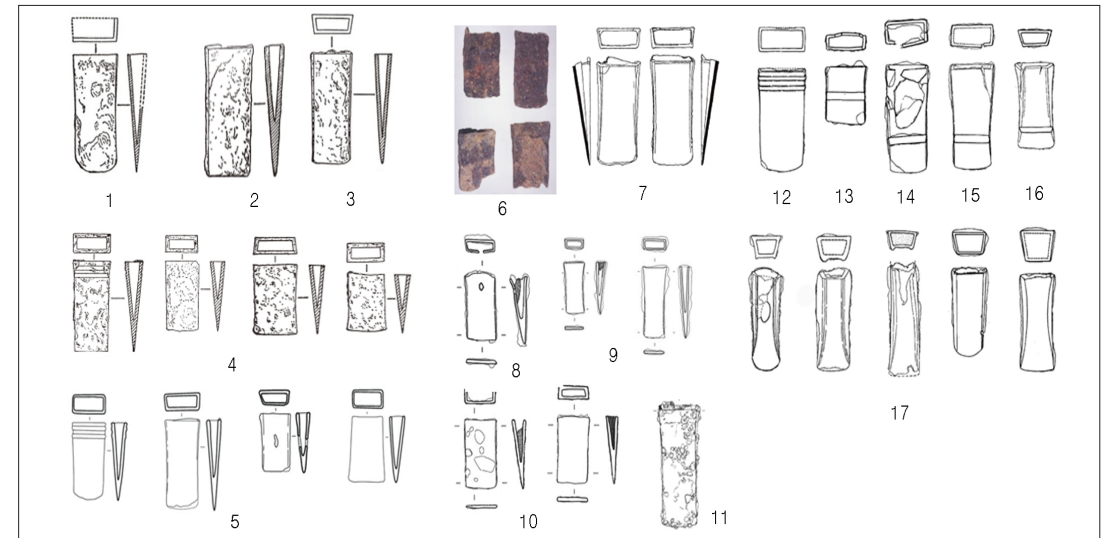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점토대)용	봉상파수부호	단경호	경동파수부호	파수부발
I	81호						
II	77호, 28호	142호	71호				
III	48호, 128호	63호		86호	136호	41호, 40호	
IV	27호, 43호	141호		11호	141호, 32호	40호, 40호	
V	83호	88호, 17호, 47호	42호, 40호, 82호	17호	40호, 38호		
VI	13호	139호	139호, 54호	94호, 13호	94호, 33호	104호	102호
VII	67호, 116호	67호, 113호, 78호	115호	111호	113호, 115호	102호	
VIII	34호, 64호	52호, 64호, 69호	109호, 110호	84호	66호, 119호	34호	

<그림 7> 다호리 유적 편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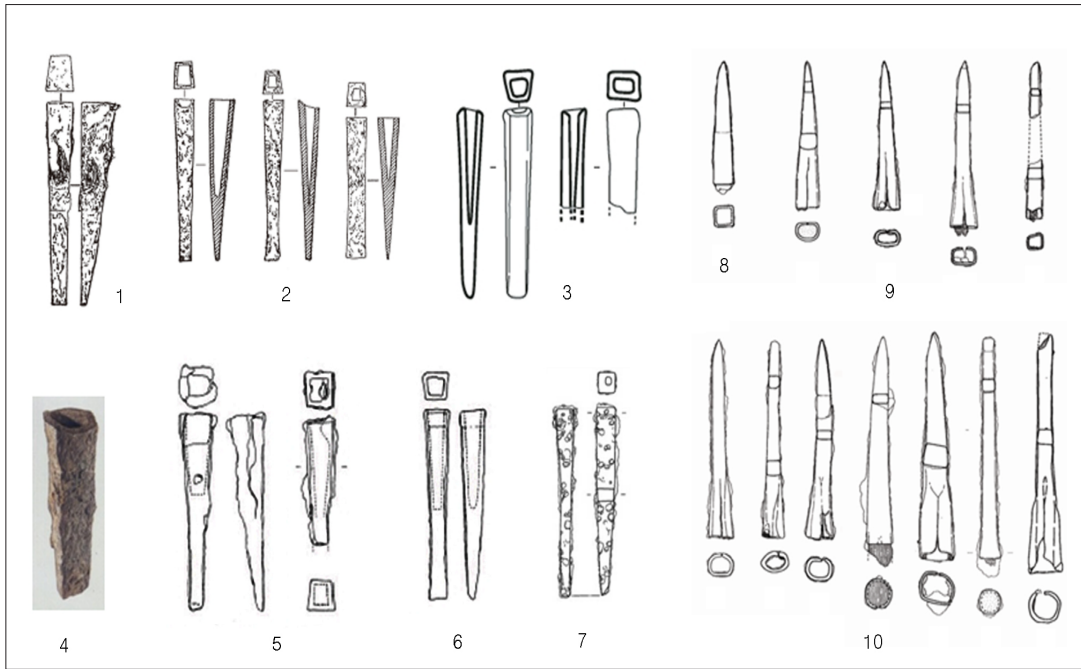
<그림 8> 하북·요령·서북한·남부지역 출토 도자(촉척 부동)

1. 燕下都 北沈村 8號(前期), 2. 同 武陽臺村 44號(後期), 3. 同 郎井村 10號(中期), 4. 同 郎井村 13號(後期), 5. 同 東沈村 6號(中期), 6. 7. 同 郎井村 10號(後期), 8. 鐵嶺 邱台, 9. 本溪 滴塔堡子, 10. 本溪 怪石洞, 11. 영변 세죽리, 12. 13. 완주 신평 가44·46호, 14. 영천 용전리, 15. 경주 조양동 5호, 16. 창원 다호리 74호, 17. 창원 다호리 1호, 18. 창원 다호리 30호, 19. 경산 임당동 A 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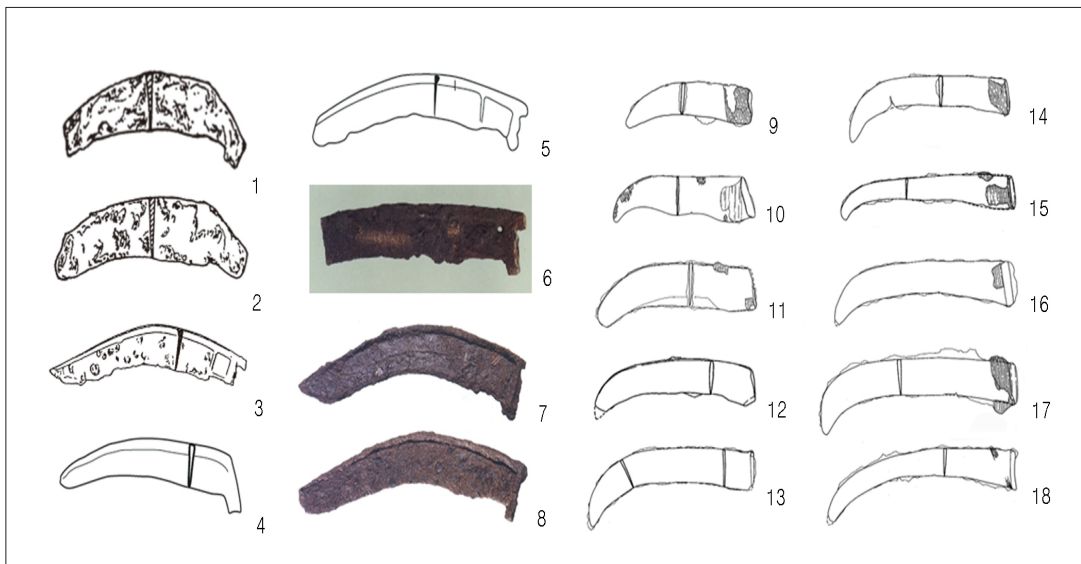
<그림 9> 하북·요령·서북한·남부지역 출토 철부(촉척 부동)

1. 燕下都 東沈村 6號(前期), 2. 同 郎井村 10號(中期), 3. 同 解村 3號(中期), 4. 同 郎井村 10號(後期), 5. 撫順 蓮花保, 6. 영변 세죽리, 7. 위원 용연동, 8. 완주 갈동 3호, 9. 4호, 10. 6호, 11. 장수 남양리 4호, 12. 경산 임당동 F34호, 13~16. 대구 팔달동 49·57·77·48호, 17. 경주 황성동 3호, 창원 다호리 93호, 경주 조양동 38호, 성주 예산리 1호, 同 6호



<그림 10> 하북·요령·서북한·남부지방 출토 철촉(촉석 부동)

1. 燕下都 郎井村 10號(中期), 2. 同 郎井村 10號(後期), 3. 撫順 蓮花保, 4. 영변 세죽리, 5. 부여 합송리, 6. 당진 소소리, 7. 장수 남양리 4호, 8. 대구 팔달동 57호, 9. 대구 월성동 2호, 대구 팔달동 30호, 동 89호, 경산 임당 FII-34호, 10. 경주 황성동 3호, 창원 다호리 79호, 대구 팔달동 31호, 창원 다호리 71호, 경주 조양동 28호, 경주 덕천리 138호, 경산 임당 A1-44호



<그림 11> 하북·요령·서북한·남부지역 출토 철검(촉석 부동)

1. 燕下都 北沈村 8號(中期), 2. 同 西貫城村 9號(中期), 3. 同 武陽臺村 22號(後期), 4. 鞍山 岫岩 城南, 5. 撫順 蓮花保, 6. 영변 세죽리, 7. 완주 갈동 2호, 8.3호, 9. 경주 조양동 5호, 10. 성주 예산리 4호, 11. 경주 황성동 2호, 12. 창원 다호리 30호, 13. 대구 팔달동 74호, 14. 경주 조양동 52호, 15~18. 창원 다호리 69, 71, 70, 67호

V. 청동기시대와 이후 시대의 분절점과 시대명

1. 분절점 검토

앞서 현재의 초기철기문화를 둘러싼 분절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①~⑥의 분절점 중 청동기시대와 이후 시대의 경계로 가장 적당한 곳은 어디인가?

괴정동 유형의 시작을 서기전 4세기 초로, 갈동 유형의 시작을 서기전 3세기 중엽으로 보는 필자의 연대관에서는 준왕이 입해하기 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韓의 최소 상한은 서남한의 초기철기 등장 시점(현재로서는 갈동 3호묘)과 같다. 이 관점에서는 괴정동 유형은 선사로, 갈동 유형부터는 원사(또는 역사)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선사와 역사의 분절점인 ③부터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것이 마땅하다.** 분절점③ 이전은 자연히 청동기시대 후기가 되며 이것은 최근 여러 연구자의 인식에 부합한다. 삼국시대는 서기 300년 무렵에 시작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므로 대략 서기전 250년부터 서기 300년까지 약 550년의 기간을 하나 또는 두 개의 시대로 설정하면 되겠다. 청동기시대 이후 새로운 시대는 군집하는 목관묘와 철기 부장을 기능자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550년의 기간을 어떻게 분기해야 할까?

위의 표에서 보듯이 분절점④부터는 군집 목관묘에 진변한식 단조철기를 다량 부장하기 시작하지만, 토기는 여전히 무문토기이다. 분절점⑤부터는 군집 목관묘 속에서 유력 개인묘(경산 양지리 1호, 창원 다호리 1호 등)가 등장하는데 와질토기 부장과 비슷한 시기이다. 공통된 형식의 와질토기 출현은 國 사이의 연합체 내지는 연맹체로서의 진·변한의 성립을 가리키는 요소 중 한 가지로 해석된 바 있다(이희준, 2002). 분절점⑥부터는 군집하는 목관묘에 후기 와질토기와 함께 질과 양이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철기를 부장한다.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의 원삼국시대는 앞서 살폈듯이 서력기원 전후부터 서기 300년경까지로 설정되었으며 청동기의 소멸, 철기의 발달 및 보급, 농경의 발전, 김해토기의 생산으로 정의된 바 있다. 이후의 연구로 원삼국시대의 문화상이 재정립되었으며 절대연대 역시 꾸준히 상향되었다. 이에 대해

원삼국시대의 문화변동을 ‘지배집단 목관묘의 집단화’, ‘전국계 철기 유입’, ‘외줄고래의 등장¹⁾’과 ‘삼각형점토대토기군에서 고식와질토기군’으로의 변천으로 보고 이 변동의 시작을 원삼국시대의 개시(서기전 100년)보다 훨씬 이르게 볼 이유는 없다는 견해(이성주, 2015)가 있다. 그런데 영남지방에서 ‘지배집단 목관묘의 집단화’, ‘진·변한식 단조철기의 등장’ 시점과 와질토기의 등장 시점과 다르며(이희준, 2004) 필자 역시 이에 동감한다. 다시 말해 영남 지방의 전기(또는 고식) 와질토기군의 개시 연대(분절점③)는 전국계 철기의 유입과 목관묘의 집단화 개시 연대(분절점④)와 대략 150년의 차이가 있다. 대구 월성동 777-2번지 유적이거나 경주 하구리 유적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구 분지나 경주의 초기 목관묘에서 와질토기 없이 무문토기와 함께 짧은 판상철부나 철모, 철검 같은 진변한식 ‘단조철기’가 출토된다. 진변한지역에서 일정 기간 ‘와질토기 비공반 군집 목관묘’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다.

따라서 기존의 원삼국시대의 정의에 비추어 보자면 분절점⑤부터가 원삼국시대다. 전기 와질토기, 진변한식 철기, 군집 목관묘(유력 개인묘 포함)가 주요 구성 요소로 원삼국시대 전기로 설정할 수 있다. 결국 분절점③(서기전 3세기 중엽)부터 ⑤(서기전 1세기 중엽)까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앞서 선사시대 이후로 보아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2. 시대명과 분기

먼저 서기전 대략 250~50년인 200년을 뒤 시대(현재의 원삼국시대)에 포함해야 할지 새로운 시대명을 부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시대명을 부여해야 한다면 앞선 3원칙을 고려하여 북과 남의 대표 정치체인 古朝鮮과 韓을 포함하는 명칭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 방안의 장점은 향후 연구의 진전에 따라 문화상과 기간을, 더해서는 시대의 귀속까지도 조정하기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완주 갈동 유적 3호로 대표되는 ‘군집 목관묘+철기’의 조합은 이내 진·변한 지역으로 파급되어 대구 월성동, 대구 팔달동, 경산 임당, 경주 하구리, 경주 하구리, 경주 조양동, 창원 다호리, 밀양 교동, 김해 구지로 등 수많은 군집 목관묘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진·변한 군집 목관묘의 최소 공통점은 서기전 3세기 무렵에 이미 갈동 유적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서기전 250~50년의 기간을 뒤 시대(현재의 원삼국시대)의 선행 양식으로 파악하고 하나의 시대로 이르는 것이 순리적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어떻게 일러야 할까? 앞서 3원칙을 제안한 바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살펴보자.

가. 선사시대명이 아니어야 한다.

→ ‘철기시대’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초기 정치체가 고려되어야 한다.

나. 한반도와 요동 일대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 북쪽의 고조선·맥·부여 등과 남쪽의 한 등을 포괄하여야 한다.

다.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 사용하고 있는 시대명의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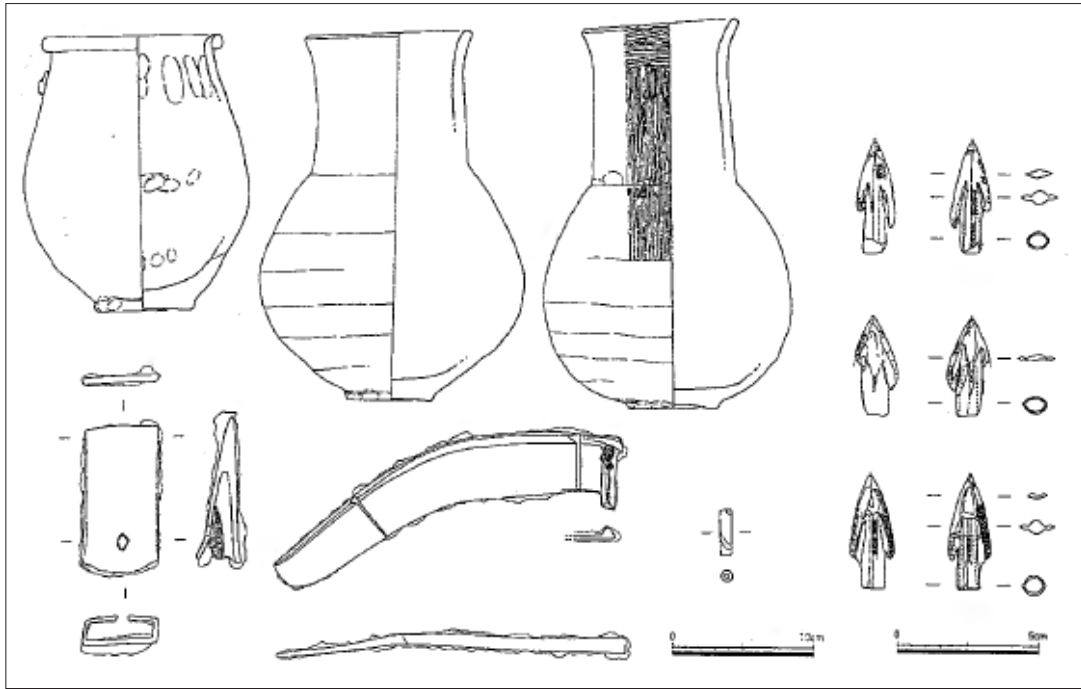
위의 원칙에서 현재 사용하는 초기철기시대는 선사시대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원삼국시대는 선사시대명이 아니고, 한반도와 요동 일대를 포괄하는 시대명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삼국시대의 기간을 확대하여 앞선 200년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다. 이 경우 기존 원삼국시대의 기간과 혼란을 생길 수 있어서 기존의 전기와 중기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기존의 원삼국시대 전기(서기전 50년 ~ 서기 150년)와 후기(서기 150 ~ 300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설정한 갈동과 월성동 유형 단계를 새로운 시기로 설정하면 좋겠다. 조기, 초창기, 성립기, 형성기 등 여러 조어를 고려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조기라 하겠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청동기시대 후기~원삼국시대의 시대 구분(안)

	500	400	250	200	50BC	AD150	300
대표금속	요령식 청동기	한국식 청동기	초기철기(주조)	진변한식 철기(주조+단조)			
대표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전기와질토기	후기와질토기	
대표분묘	단독(무적석)묘 아산 매곡동	단독(적석)묘 대전 괴정동	군집 목관묘 완주 갈동	군집 목관묘 대구 월성동	군집 목관묘 창원 다호리	군집 목관묘 울산 하대	
시대	청동기시대			원삼국시대			
시기	후기			조기	전기	후기	

위의 관점에서 완주 갈동 3호묘(그림12)는 최초의 韓墓이자 원삼국시대 최초의 무덤이다.

1) 외줄고래의 등장은 녹도 유적 등 원삼국시대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분묘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시기 삼한의 고고자료의 틀에서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림 12〉 완주 갈동 3호묘 출토품

VI. 맺음말

필자는 이전 논의(2007)에서 청동기시대와 구분되는 초기철기시대의 사용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의 발굴과 연구의 진전에 따라 이제는 초기철기시대가 지금까지 해 왔던 선사와 역사를 잇는 경계에서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에서 설정한 초기철기시대는 지금의 학문적 성과에서는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개념과 시기폭을 조정하여 폐기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대와 시기는 설사 과도기라 하더라도 분리하기 쉬운 구도로 설정하면 좋겠다.

초기철기시대를 폐기하고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기간을 늘려 설정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이 역시 경과 조치이면 좋겠다. 우리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고조선을 개념적으로 포함하는 시대명은 고고학계와 사학계가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보고서 제외)


- 金元龍, 1973, 『韓國考古學概說 第一版』, 一志社
- ___, 1977, 『韓國考古學概說 第二版』, 一志社
- ___, 1986, 『韓國考古學概說 第三版』, 一志社
- 박진일, 2007, 「粘土帶土器, 그리고 靑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 『韓國靑銅器學報』創刊號
- ___, 2015,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전국식철기의 한반도 남부 등장 연대 고찰」, 『友情의 考古學』, 고손명조선생추모논문집간행위원회
- ___, 2016, 「大邱 八達洞 遺蹟 無文土器의 瓦質化와 그 意味」, 『八達洞遺蹟과 初期鐵器~原三國時代의 大邱』, 嶺南文化財研究29
- ___, 2019, 「사료국과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토론문」, 『목관묘로 본 사료국의 형성과 전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裴眞永, 2001, 『中國古代燕文化研究:燕文化의 形成과 展開』,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 申敬澈, 1995, 「三韓·三國時代의 東萊」, 『東萊區誌』
- 이성주, 2015, 「원삼국시대와 와질토기」, 『영남의 고고학』, 226~227쪽, 사회평론
- 이청규, 2007, 「先史에서 歷史로의 전환-原三國時代 개념의 문제-」, 『韓國古代史研究』46
- 李熙濬, 2002, 「초기 진·변한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___, 2004,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再論」, 『韓國考古學報』52
- 영남고고학회, 2015, 『영남의 고고학』, 사회평론
- 鄭仁盛, 2019, 「韓國考古學에서 ‘初期鐵器時代’ 그리고 ‘古朝鮮時代」, 『한국상고사학보』105
- 崔夢龍, 1993, 「韓國 鐵器時代의 時代區分」, 『國史館論叢』50
- 최병현, 2017, 「제2장 한국고고학 시대 구분론」,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고고학·민속학·인문지리학·문화인류학』, 대한민국학술원
- 崔盛洛, 1998, 「時代區分論」, 『한국고고학의 방법과 이론』, 학연문화사
- 한국고고학회, 2015, 『한국 고고학 강의』, 사회평론아카데미



제5발표

일본 야요이시대의 분기

다케스에 준이치[武末 純一]
후쿠오카[福岡]대학



-
- I. はじめに
 - II. 弥生時代の開始と時代区分および早期の設定
 - III. AMS年代測定値の衝撃と弥生時代の時期区分
 - IV. おわりに
-

I. はじめに

日本の考古学では現在、原始・古代を一般的に旧石器時代、縄文(じょうもん)時代、弥生(やよい)時代、古墳(こふん)時代、飛鳥(あすか)時代、奈良(なら)時代、平安(へいあん)時代に区分する。この中で飛鳥時代以降は、中世、近世、近現代も含めて首都の所在地による文献史学の時代区分にそのまま従っており、古墳時代までが考古学の資料による区分である。弥生時代は第二次世界大戦前には、縄文式土器とは異なる弥生式土器の時代という意味で弥生式時代(以下では現行に従って弥生時代)と呼ばれ、土器が時代区分の指標であった。また、その中の時期区分も土器の様式によって前期、中期、後期と設定された。そして、弥生式時代の内容は、戦前の奈良(なら)県唐古・鍵(からこ・かぎ)遺跡の農具をはじめとする木器の発掘や戦後の静岡(しずおか)県登呂(とろ)遺跡での水田の発掘を通じて、水田稲作農耕(農業)が始まった時代と理解されるようになり、水田稲作農業の有無が縄文時代と弥生時代を分ける根拠と考えられ、日本の水田稲作農業は弥生時代前期初頭に始まったとされてきた。その時代区分が揺らいだのは1978年に発掘された福岡(ふくおか)市板付(いたづけ)遺跡のいわゆる「縄文水田」の調査成果で、それまで縄文時代晩期末とされた刻目突帯文土器(現在の夜

白(ゆうす)Ⅰ式・Ⅱa式)単純期(以下、夜白式期)の水田(図2)の存在が明らかになり、時代区分に関する議論が巻き起こって、夜白式期を弥生時代早期とする説が提起された。

本稿では、そうした経緯を踏まえて、弥生時代の開始に関する時代区分を中心に筆者の考えを述べる。また、2000年代以降、国立歴史民俗博物館のAMS年代測定値の公表から始まった弥生時代暦年代の再検討と全体的な朔上を見据えながら、日本の弥生時代への世界史的な三時代区分法適用にも触れる。なお、韓半島の時代区分は青銅器時代、鉄器時代、原三国時代を用いて、青銅器時代を早期、前期、後期、晩期に区分する考え(李 健茂2018)に従う。

Ⅱ. 弥生時代の開始と時代区分および早期の設定

1. 弥生時代の開始を巡る研究略史(戦後から1970年代まで)

戦前の段階ですでに弥生時代は水田稲作農業が始まった時代であることは、唐古・鍵遺跡で発掘された農耕用の木器から認識されており、弥生土器も唐古編年によって、第Ⅰ様式が前期、第Ⅱ～Ⅳ様式が中期、第Ⅴ様式が後期という時期区分の大枠がつけられた。そして九州から全国に広がる前期の遠賀川(おんががわ)式土器の中でも最古の弥生土器が探究され、北部九州の福岡市藤崎(ふじさき)遺跡や福岡県飯塚(いづか)市東菰田(ひがしこもだ)遺跡で出た東菰田式(のちの板付Ⅰ式土器)壺が最古の弥生土器と宣言されて(森 貞次郎1942)、最新の縄文土器は福岡県中間(なかま)市下底井野(しもそこの)の遠賀川河床発見の灰色粗製で刻目突帯をもつ条痕文調整の深鉢(のちの夜白式土器)とされた。

1970年代までの戦後の研究史は4期に分かれる。

第1期は縄文時代晩期土器と弥生時代前期土器の関係を探る時期である。特に1951年から1954年にかけて実施された福岡市板付遺跡の調査では、当時弥生時代最初期の板付Ⅰ式土器と縄文時代最末期の夜白式土器が明確に共存した(図8)。また、炭化米や粘痕土器、大陸系磨製石器(石庖丁、抉入石斧、扁平片刃石斧、磨製石剣・石鏃など)も共伴して、稲作農業文化が弥生文化を形成したとの認識が定着した。

第2期は必然的に、そうした農業関連要素が縄文最末期(夜白式期)にどの程度みられるかが探求の主体となった。舞台は長崎(ながさき)県島原(しまばら)半島の縄文時代晩期遺跡へと移り、原山(はらやま)遺跡の支石墓や山ノ寺(やまのてら)遺跡などが調査された。その結果、夜白式期での支石墓(弥生文化の要素)の存在が確認され、夜白式土器よりわずかに古いとされた山ノ寺式(のちの夜白Ⅰ式土器)土器でも粘痕土器が確認された。

これらの成果を受けて森 貞次郎(もり ていじろう)は、「これまで、九州の弥生文化を構成する重要な文化要素を、定型化された土器、大陸系磨製石器を含む農具、米、紡錘車、金属器、支石墓などの組み合わせに求めた」と述べ、「弥生文化成立の過程は意外に複雑で、決して短い時期に一举に成立したものではなく、弥生文化を構成する要素が積み重ねられていき、それらが緊密に組合わされて完全な形を備えたときに弥生文化成立の時期とみられるのではあるまいか」との定義を打ち出した(森 貞次郎1960)。

ただし、島原半島は弥生文化の中心地である玄界灘(げんかいなだ)沿岸地域から離れているため、島原半島の夜白式期は玄界灘沿岸地域の板付Ⅰ式期と併行するのではないかとの疑念を完全には払拭できず、問題は再び玄界灘沿岸地域に差し戻された。

第3期の中心は玄界灘沿岸地域の佐賀(さが)県唐津(からつ)市宇木汲田(うきくんでん)貝塚の調査である。この貝塚は久しく幻の貝塚となっていたが、1965・1966年の日仏合同調査の際に再発見され、宇木川左岸の低地にあつて十分に水田経営ができる立地である。発掘の結果は「第三層は板付Ⅰ式と夜白式土器の共伴層であり、第四層に夜白式土器の単純層を認め、抉入石斧を含む磨製石器および炭化米が発見され、縄文稲作農耕の存在の可能性が強められた」と報告された(森 貞次郎1999)。

第4期には実際に夜白式期の水田が、福岡市板付遺跡のG-7a・7b区で1978年に発掘された(図2)。ここでは板付Ⅰ式期の2枚の水田の下に夜白式期の層があつて、さらにその下に間層の砂層を挟んで夜白Ⅰ式の水田が確認された。発掘当時のいわゆる「縄文水田」である。この水田には、幹線水路に直交する井堰と、その南側(上流側)にある排水溝(水路と水田の畦畔の間を流れて排水を給水に切り替える溝)にもやはり直交する堰があり、さらにこの堰の南側では水田の畦畔の一部が切れて堰を伴う取排水口を設けており、三重の堰を持つ。水田は幹線水路に沿った大型(一枚の幅が6～10m、長さ50m以上)の長方形で、水田と幹線水路の間の幅1m、高さ0.3mの畦畔には両側に矢板や杭を打ち込み横木を渡して固定するなど、全体的に本格的で整備されたつくりである。また、木製農具や石庖丁、炭化米も伴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山崎 純男2008)。

こうした夜白式期水田の存在自体は、第3期の宇木汲田貝塚の立地や炭化米の確認などから予測できたことであつた。しかし、その水田が予想外に完備されていたことや、唐津市菜畑(なばたけ)遺跡や糸島(いとしま)市曲り田(まがりた)遺跡でも夜白Ⅰ式に様々な農業文化の要素が揃うことが実証されて、急速に時代区分論議が巻き起こり、従来のように弥生土器の時代を弥生時代とするのではなく、弥生時代の土器を弥生土器とみる立場から、これまで縄文

時代晩期末とされた夜臼式期を弥生時代早期とする説が提唱される(佐原 真1986)に至った。

なお、弥生時代になぜ三時代区分法が適用されなかったのかについては、戦前の段階で中山 平次郎(なかやま へいじろう)が金石併用期を提唱し、1931年に踏査し調査した長崎県対馬(つしま)市ガヤノキB地点での有柄式磨製石剣と銅剣・鉄剣の共伴例をその証拠に挙げた(中山 平次郎1950)ことが強く作用した。また、1951年からの板付遺跡の調査と共に進められた熊本(くまもと)県齋藤山(さいとうやま)遺跡の貝塚の発掘で鉄斧が板付I式に伴うとされた結果(乙益 重隆1961)、弥生時代前期初頭から鉄器が存在し、逆に青銅器は弥生時代前期末以降の甕棺に副葬されるまで出現しないと認識されたことも大きい。これによって、日本の弥生時代では世界史的な流れとは異なって、石器の後にまず鉄器が登場しその後に青銅器が出現するという説が通説となった。その後、1970年の対馬の浅茅(あそう)湾周辺の考古学的調査の際に、ガヤノキB地点出土とされた遺物の中で磨製石剣と銅剣は別の地点(H地点)に置かれていたことが判明し(小田 富士雄1973)、福岡県福津(ふくつ)市今川(いまがわ)遺跡では前期初頭に遡る遼寧式銅剣加工の銅鏃・銅鏝(図3-3・4)が知られたが(津屋崎(つやざき)町教育委員会1981)、曲り田遺跡の16号住居跡から夜臼I式に伴う板状鉄斧片が出土したと報告されて(福岡県教育委員会1984)、この通説は維持・強化された。

2. 弥生時代の開始と時代区分論

板付遺跡の「縄文水田」にも触発されて盛んになった時代区分論議のうち重要なのは、近藤 義郎(こんどう よしろう)の論考(近藤 義郎1985)である。ここでは先ずその論考の概要を紹介し、次にそれに触発されて発表した筆者の考え(武末 純一1991)の概要を述べる。

近藤 義郎の論を箇条書きにすれば、次の通りである。

1. 近藤 義郎は「なぜ時代区分か」の項で「時代区分はつねに2つ、すなわち全人類史的区分と集団ごとの区分によって成立します」と述べる。これは時代区分に2つのレベルがあることを示す。

2. 次に「考古学の時代区分と歴史の区分」の項では、さまざまな区分があるが一切を包括した区分として「支配的な生産様式に基く社会構成区分」があり「考古学の時代区分は物の変化の区分であり、ものの示しうる限界がありますので社会全体を評価することに耐えられません。だから文献が出てくるとそれにゆずる」と述べ、「考古資料による時代区分は文献以前に限られてよく、「考古学的時代区分は文献以前に限られて意味がある」という。

3. 「日本の時代区分」の章では、何をもって時代区分とするかと自問し、「特徴的で、重要で、普遍化していく考古資料」という答えを出す。「重要な」とは人間の社会にとって重要ということ、「普遍的」とは各集団に伝わり普及していく、あるいは支配的になっていくという意味であるという。「特徴的」とは「考古資料の形態の特徴性」で、「たとえば土器は明らかに石器や骨角器とはひじょうにちがった形態の特徴をもっている」とした。

4. そして、具体的な区分指標を「特徴的で、重要で、普遍化していく考古資料という観点で見ると、縄文時代の開始は土器で、そして弥生時代の開始は水田遺構、木製農具、石庖丁、木製農具をつくる石製ないし鉄製工具、稲刈のうちのすべて又はいくつかの組合せの出現をもって、弥生時代の終わり、つまり古墳時代の開始は前方後円墳の出現をもって、前方後円墳時代ないし古墳時代の終わりは前方後円墳の廃絶、あるいはその影響下に成立してきた古墳一般の廃絶」と述べた。

これらに対して筆者は1991年に次のように論じた。

1では全人類史的区分と集団ごとの区分に同意するが、個別集団をどう設定するかは言及がないため、個別集団の範囲はその時代が適用される範囲全体と考えた。弥生時代の場合、沖縄を中心とした貝塚時代の「南の地域」と北海道を中心とした続縄文時代の「北の地域」が日本列島から除外されて、弥生文化が展開した「中の地域」(九州、四国、本州島を主体とする地域)がその対象範囲となる。

2では、考古学も歴史学の構成者と考える。なされるべきは歴史の時代区分であり、そのために考古資料や文献資料を用いるにすぎない。この前提を踏まえた上ならば、「考古学的な時代区分を行うこと」には意味がある。

また、我々は単純に「もの」によって時代を区分しているのではない。むしろ認識の順序は、前後の境界は曖昧ながらも、ある一まとまりの時代を漠然と認識し、次にその時代の特質とは何かを考え、最も適合する事象で区分しているのが実態であろう。したがって時代観の形成が先で、時代区分の指標に選出される「もの」は、常に時代観によって批判・検証され、時には置き換えられると考える。

3では、「重要な」と「普遍的」に異論はない。しかし、「特徴的」については、どの考古資料もそれぞれが「ちがった形態の特徴をもつ」ため、このままでは従えず、「特徴的」を「時代に特徴的」という意味に読み替えて、「その時代を前後の時代に分かつような特徴を端的にあらわし、前の時代にみられない資料」と定義した。

4では、縄文時代の開始には異論はないが、弥生時代の開始も単一の指標によるべきだと

考えた。単一の指標の方が複数の指標よりも明快であり、区切るという立場に立つ限りは、明快さが要求されるからである。また、新しい時代にも前の時代の遺制は残りうるから、時代区分の際には時代と文化を厳然と区別するべきである。つまり、古墳時代の終わりは古代国家の成立や完成といった新しい事象で画されるべきで、前方後円墳の廃絶に求めるべきではない。前方後円墳の廃絶は古墳文化の終わりではあっても、それが古墳時代の終わりの指標にはならないと考えた。

以上を踏まえて、土器で時代を区分するのではなく弥生時代の土器を弥生土器とする立場に賛意を表するとともに、縄文時代以前を採集経済の時代、弥生時代を水田稲作農業主体の生産経済が始まり日本列島の「中の地域」のほとんどの人々が農民になっていった時代と捉えた。その場合、稲粃や水田は採集経済の段階でもありうるから時代区分の指標とみなさず、環溝集落の出現を指標とした。

それは、環溝集落が縄文時代にはなく、弥生時代に主にみられて特徴的であり、各地域に拡大して普遍化する。また、環溝集落で人々は自然と切り離されて対立し、母なる森や大地は人々が水田を作り管理するための資源や素材となる。縄文時代以前ではヒトが水平に移動して泉で水を汲むのに反して、弥生時代になると井戸が出現して自分は動かずに大地を深く穿って水を汲み上げることも同様で、環溝集落とともに、自然を自己のために改造する農民の思想の表れと言える。また、環溝集落はその内部の人々と外部の人々も分け隔てて対立させる。人々間の関係にまさに溝ができるのであり、人々は分裂・競合し再統合され、共に働いた指導者は人々を支配する首長(王)へと変わっていく。したがって、環溝集落の出現は農村のはじまりと言えるし、形で示す農民宣言で重要であり、環溝集落は弥生時代と縄文時代を区分する指標にしてよいと考えたためである。

ただし、1991年の時点では板付遺跡の板付I式期の環溝集落が日本最古であったため、弥生時代早期は認めず従来通り弥生時代は板付I式期からとした。その後、福岡市那珂(なか)遺跡(図8)や福岡県粕屋(かすや)町江辻(えつじ)遺跡(図9)でそれまでの晩期末である夜臼式期の環溝集落が発掘されたため、筆者も自身が設定した時代区分の指標に従って、夜臼式期を弥生時代早期とする立場に変更した(武末 純一1998)。那珂遺跡の弥生時代早期の二重環溝は円形に巡って同時存在したとみられ、内溝の内径は125mである。その内部は高さ2mほど削平されて、居住施設は消滅しており、最古の農村の内容は江辻遺跡で明らかになった。江辻遺跡の溝は何度も掘り直され、円弧を描いて浅い。この環溝開始期の早期には松菊里型住居が溝に沿ってその内側に配され、中央部は広場になって高床倉庫や大型建物が位置

する。重要なのは溝の外に松菊里型住居がない点で、この溝は内部の人々と外部の人々(ヨソモノ)を区別し分け隔てる「全員のための円形環溝」であり、那珂遺跡など早期～前期初頭の集落も同様な構造であったとみられる。

その後、現在に至るまで弥生時代の開始を巡る時代区分論はあまり進展せず、一部に異論はあるが、夜臼式期を弥生時代早期とする説が次第に賛同を得つつある。また弥生時代の早期から前期初頭にかけて、韓半島青銅器時代後期の文化(図6)とヒトを大きく受容して水田稲作農業社会が始まったことも明らかになってきた。北部九州以外は早期としない説もまだあるが、弥生時代は日本列島の「中の地域」全体に適用される時代名称であり、その一部の地域だけが弥生時代でほかの地域は縄文時代という事態はあり得ない。一部でも指標が出現すればそこから弥生時代で、指標が見られない地域は弥生時代に縄文文化が引き続いた地域とするべきである。

なお、刻目突帯文土器自体は夜臼式期よりも前に出現しており、刻目突帯文土器の出現と弥生時代早期の開始は一致せず、夜臼式土器の出現が弥生時代早期の始まりである。

一つ問題なのは、コメとされた縄文土器表面の圧痕が近年のレプリカ法で再検討された結果、ほとんどがコメではないと判明し、コメ存在の上限は夜臼式期の直前、縄文時代晩期後半である黒川(くろかわ)式期とみられるようになった点である(那須 浩郎2019)。この黒川式期には韓半島青銅器時代前期にみられる孔列文系土器があり、低地に立地する北九州(きたきゅうしゅう)市貫川(ぬきがわ)遺跡では長舟形石庖丁(図7-1)が出ている(前田 義人・武末 純一1994)から、韓半島青銅器時代前期の農業文化が及んだとみられ、貫川遺跡では水田の存在も十分に想定できる。それでは、黒川式期も弥生時代とするべきなのか。現時点で筆者は黒川式期を弥生時代とは考えない。それは、第一に、黒川式期の環溝集落がまだ発見されていないからであり、第二に、そうした韓半島青銅器時代前期の農業文化を受容して弥生時代が始まったとは言えないからである。弥生時代早期の考古資料には、抉入石斧や無段柄(一段式有柄)石剣、三角形を含む短舟形石庖丁、松菊里型竪穴住居などが存在するから(図6)、韓半島青銅器時代後期の系統にあることは明確で、渡来した韓半島青銅器時代前期文化の延長線上にはない。したがって、黒川式期にもたらされた農業文化は定着に失敗した試みと考えている。

Ⅲ. AMS年代測定値の衝撃と弥生時代の時期区分

1. 歴博AMS年代と弥生時代における青銅器・鉄器の出現時期

2000年代以降の弥生時代時間論で最も衝撃的な出来事は、国立歴史民俗博物館によるAMS年代測定値(以下、歴博AMS年代)の公表であった。筆者はそれより前に韓半島南部と北部九州の併行関係や松菊里遺跡出土の遼寧式銅剣などに基づいて早期の暦年代を紀元前(以下、前)6～5世紀、前期を前5～4世紀と推定したことがあったが(武末 純一2002)、2003年発表の歴博AMS年代では、弥生時代早期のはじまりが前10世紀、前期のはじまりが前8世紀、中期のはじまりが前5世紀(現在では前380年頃とする)、中期前半が前3世紀で、さらに大きくさかのぼる測定値であった。この歴博AMS年代は、それまでの通説よりもはるかに古かったため、大きな議論を呼んだ。この議論は現在も継続中で、日本だけでなく韓国の考古学研究にもかなり影響を与えており、韓国での研究の進展に期待する部分も大きい。

歴博AMS年代が「考古学者に従来年代の見直しをする機会を与えてくれたことは重要である」との大貫 静夫(おおぬき しずお)の指摘(大貫 静夫2005)には筆者も同意するが、無批判に歴博AMS年代に追随するとか、暦年代はAMS年代さえあればよくて考古学による暦年代の推定や型式学は不要であるかのような言動は、考古学の発展には寄与しないと考える。

弥生時代中期前半以前の考古資料には暦年代を直接推定できる資料がないため、同時期の韓半島で出土した遼寧式銅剣関連資料や中国鏡から間接的に推測するしかない。近年明らかにされた可楽洞式土器や欣岩里式土器に伴う清州鶴坪里住居跡、春川牛頭洞A地区石棺墓出土の初期遼寧式銅剣(韓国文化財財団2018、江原文化財研究所2011)は中国東北部の事例から見て、その時期が前10世紀を大きく遡るのは困難とみられ(李 厚錫2019)、可楽洞式土器や欣岩里式土器は弥生時代早期よりも前で縄文時代晩期の黒川式土器に併行する。また、今川遺跡の無文土器から見ると、板付I式土器には松菊里式の最新段階が併行し、この時期の暦年代は松菊里遺跡55—8号住居上層で出土した上下に広がる扇形銅斧の鑄型からみて、やはり前5世紀頃とみられる。弥生時代中期前半に見られるような幅狭長鋒の細形銅矛と共伴した益山平章里の前漢鏡の暦年代は前2世紀前半だから、中期前半も前2世紀と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に歴博AMS年代をそのまま真正の暦年代とは出来ないが、重要なのはこれを契機に、これまでの鉄器の所属時期が再検討されたこと(春成 秀爾2003など)で、齋藤山遺跡の鉄器は板付I式期とは断定出来ず(池田 榮史2011)、曲り田遺跡の鉄器も上層での混在の可能性を否定できなくなった。

そして、時期が確実な弥生時代の鉄器は、いまのところ弥生時代前期末で、福岡県行橋(ゆくはし)市矢留堂ノ前(やどめどうのまえ)遺跡環濠内出土の鑄造鉄斧片(福岡県教育委員会2015)、福岡県春日(かすが)市平若(へいじゃく)A遺跡4次3号土壇墓出土の鑄造鉄斧片(図5—1)などの例がある。平若A遺跡の鑄造鉄斧片に共伴した土器片は小型壺の胴部上半に有軸羽状文を持ち(図5—2・3)、下限は前期末(板付II C式)である。この前期末から中期初頭は、韓半島南部の円形粘土帯土器期(水石里式期)の末期に併行して、韓半島南部の青銅器編年では細形銅剣・銅矛・銅戈が揃う3期古段階でも後半、つまり初めて鉄器が出現する長水南陽里段階に相当する。これはこの時期に北部九州で出土する幅広短鋒の細形銅矛などの青銅器からみても矛盾がなく、その暦年代はおおよそ前3世紀とみられる。

いっぽう、鉄器出現より前の青銅器の場合、前期後半(板付II B式)以前ではまず、今川遺跡で松菊里石棺墓出土例(図3—1・2)と同様な遼寧式銅剣を加工したとみられる銅鏃と銅鑿(図3—3・4)が出ており、弥生時代前期初頭(板付I式期)に属する。また、福岡県小郡(おごおり)市三沢北中尾(みつさわきたなかお)第2地点127号貯蔵穴(SK127)の長方形銅斧の破片(図4—1)には板付II A式新段階～板付II B式古段階の土器(図4—2)が共伴する(山崎 頼人2015)。こうした長方形銅斧は今のところ韓半島南部では3期古段階前半でまだ鉄器が見られない扶余九鳳里段階にみられ(図4—3)、次の長水南陽里段階には見られないようである。

したがって現在では日本列島の弥生時代でも、韓半島と歩調を合わせて、弥生時代早期から前期後半にはまず青銅器が伴い、前期末になって鉄器が出現すると認識できた。これは大きな成果である。

2. 弥生時代の時期区分

弥生時代の中をどう区分するかは、区分する目的によっていくつかの案が考えられる。しかもそれらは議論の存立基盤が異なるため、それぞれ妥当性があるが同時に併存可能である。

まず、早期・前期・中期・後期の4時期区分は、基本的に土器の様式変化による区分である。九州では甕・壺の口縁部断面形などの変化をもとに、早期は刻目突帯文甕と赤色磨研壺などの組合せ、前期は緩やかな外開きの如意形口縁と頸部が内傾する壺、中期は水平口縁と頸の付け根から口頸部が外に開く壺、後期は「く」字形口縁甕と複合口縁壺などで大別し、各時期はさらに土器相の微細な変化で細別される(図11・図12)。この分期は時間の尺度の意味合いが強くて、考古資料の展開と関係性を詳細に検討するための基礎を提供する。しかしそれだけでなく、後期には石製や青銅製の利器はほとんど消滅して鉄器が顕在化し、中国鏡

の副葬では中期後半の前漢鏡が後期には後漢鏡となり、韓半島系青銅武器の副葬は中期を主体とするなど、尺度を超えた意味合いも看取できる。前期初頭の板付I式を母体にした、いわゆる遠賀川式土器は本格的な弥生文化を他の地域へと拡散・定着させており、早期と前期の区分にも意味がある。

しかし、弥生時代の社会構造の変容や歴史的評価を見据えた場合は、中期前半の須玖(すぐ)I式と中期後半の須玖(すぐ)II式のあいだに太い線を引いて、弥生時代を前半期と後半期に二分するのが妥当である。弥生時代前半期には水田稲作農業が始まって、平野や河川流域などの単位小地域ごとに国(古代国家ではない)という地域政治組織や国の中心である国邑が出現し、古朝鮮の権威を拠り所にして対外的には韓半島南部との関係が強く、首長層が析出し階層社会が形成される。いっぽう、弥生時代後半期は韓半島の原三国時代とほぼ併行し、対外的な権威の拠り所は最上層を中国の漢帝国が占めて、韓半島南部だけでなく楽浪郡(のちには帯方郡)との関係の比重が高くなり、国々の連合体である初期地域政権が西日本を中心に各地に形成されて王が顕在化する。また、拠点集落では全員のための円形環溝の中に一部の首長層のための方形環溝が出現して首長層居宅へと成長する。このように前半期と後半期の間には大きな画期が存在する。なお、弥生時代前半期は、水稻農業社会の定着初期で韓半島南部との類似様相が強く有力者はいるが顕在化しない古段階(弥生時代早期～前期後半)と、韓半島南部との関係は強いが類似した様相からは脱して首長層が現れ独自の弥生文化と階層社会を本格化させ始める新段階(前期末～中期前半)に細分できる。

一方、先述したように弥生時代の鉄器は前期末以降に出現・展開する。それ以前には青銅器だけが見られ、しかもそれらは武器や工具であって決して一過性ではないから、世界史的な三時代法の適用も可能になった。つまり、弥生時代早期～前期後半は日本青銅器時代あるいは青銅器弥生時代、弥生時代前期末以降は日本鉄器時代あるいは鉄器弥生時代ともいえよう。早期の青銅器の確実な例はまだないが、弥生時代早期に併行して大きく影響を与えた韓半島南部の青銅器時代後期では青銅器が一定程度普遍化していることを勘案すれば、将来出土する可能性は大いにある。

この点について、九州での青銅器は除外し、多くの地域で石器しか見られないことから、弥生時代早期～前期後半を新石器弥生時代とする説(森岡 秀人2018、寺前 直人2020)も提起された。しかし、すでに述べたように時代を区分する場合、弥生時代の範囲は弥生文化が展開した「中の地域」全体が対象範囲であり、一部でもその時代に継続する指標が新しく出現したならば、全体をその時代とするべきで、そうした指標がみられない地域は前時代の

文化が継続すると考える。つまり、九州でだけ青銅器が存在し、他の地域では石器しかみられないとしても、「中の地域」全体を青銅器時代とするのが妥当だと考える。こうした三時代区分法の適用は、弥生時代と韓半島の青銅器時代や鉄器時代との比較検討をより一層促進する役割を果たすであろう。

それでは、弥生時代は青銅器時代と鉄器時代に分割され消滅してしまうのか。筆者は、そうは考えない。弥生時代は道具の材質で設定された時代ではなく、縄文時代以前の採集経済に対して、水田稲作農業による生産経済が始まった時代として設定され、コメ本位制といってもよいくらいに、コメを貯蔵して自己が属する集団の力に変えていき、各集団がどんどん大きくなっていく社会である。弥生時代が始まって水田農業が拡散し整備され、前半期新段階には単位小地域ごとに国という政治組織ができて、後半期には国々の連合体である初期地域政権が日本列島の各地に出現し競合するに至るまで、その展開は一貫した歴史的脈絡の中における。そして、弥生時代の終わりには各地の初期地域政権が連合し「中の地域」のほぼ全域にわたる統一的な倭政権が登場して、古墳時代が始まる。したがって、縄文時代と弥生時代の間、および弥生時代と古墳時代の間には、弥生時代の中のどのような時期区分とも比較にならないほど大きな画期が存在し、社会構成史・政治史的な時代区分では、弥生時代は一まとまりの時代でよいと考える。

IV. おわりに

以上、日本弥生時代の分期について、どこまで主催者の要望に応えられたか心もとないが、現在の筆者の考えを述べた。時代区分や時期区分はそれ自体が目的ではなく、歴史をより良く理解するための手段に過ぎないと認識している。また、「いつから〇〇時代か」という時代区分の問題は、様々な研究を重ねた後に判断されるべきで、「いつからか」が主題の議論は、ともすれば言葉の遊びや不毛な議論に陥る危険性があることも強調しておきたい。むしろ我々は、時代観・時代像の確立を優先させ、「どのようにあったか」の追求に力を注ぐべきであることを述べて、拙稿を閉じ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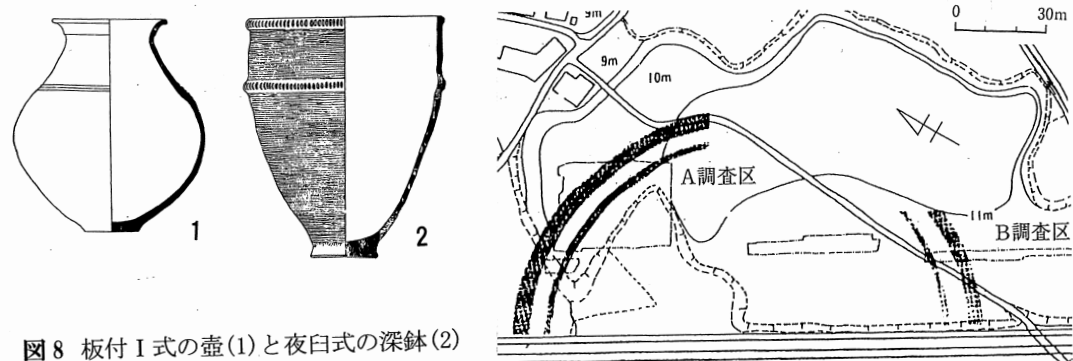


図8 板付I式の壺(1)と夜臼式の深鉢(2)

図9 福岡市那珂遺跡の二重環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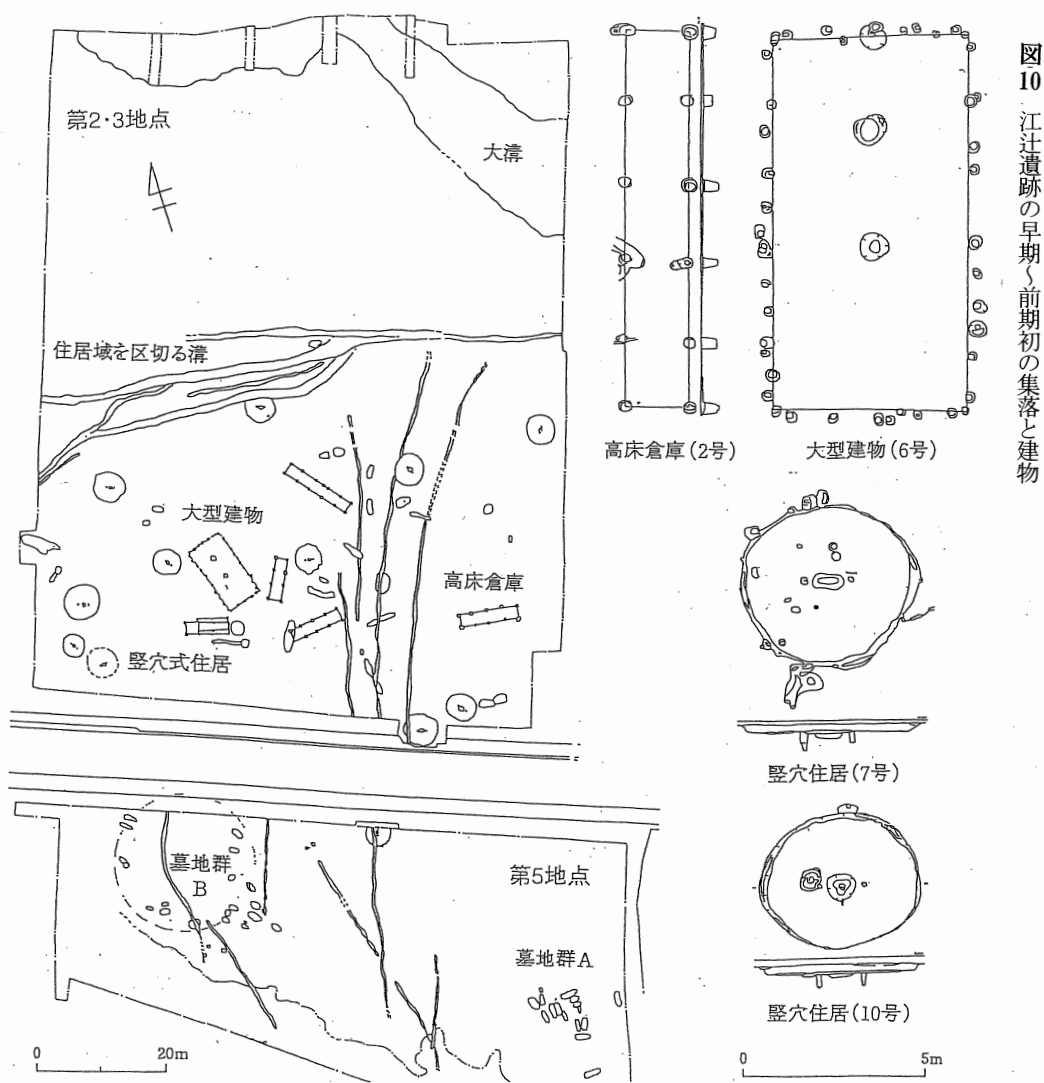


図10 江辻遺跡の早期〜前期初の集落と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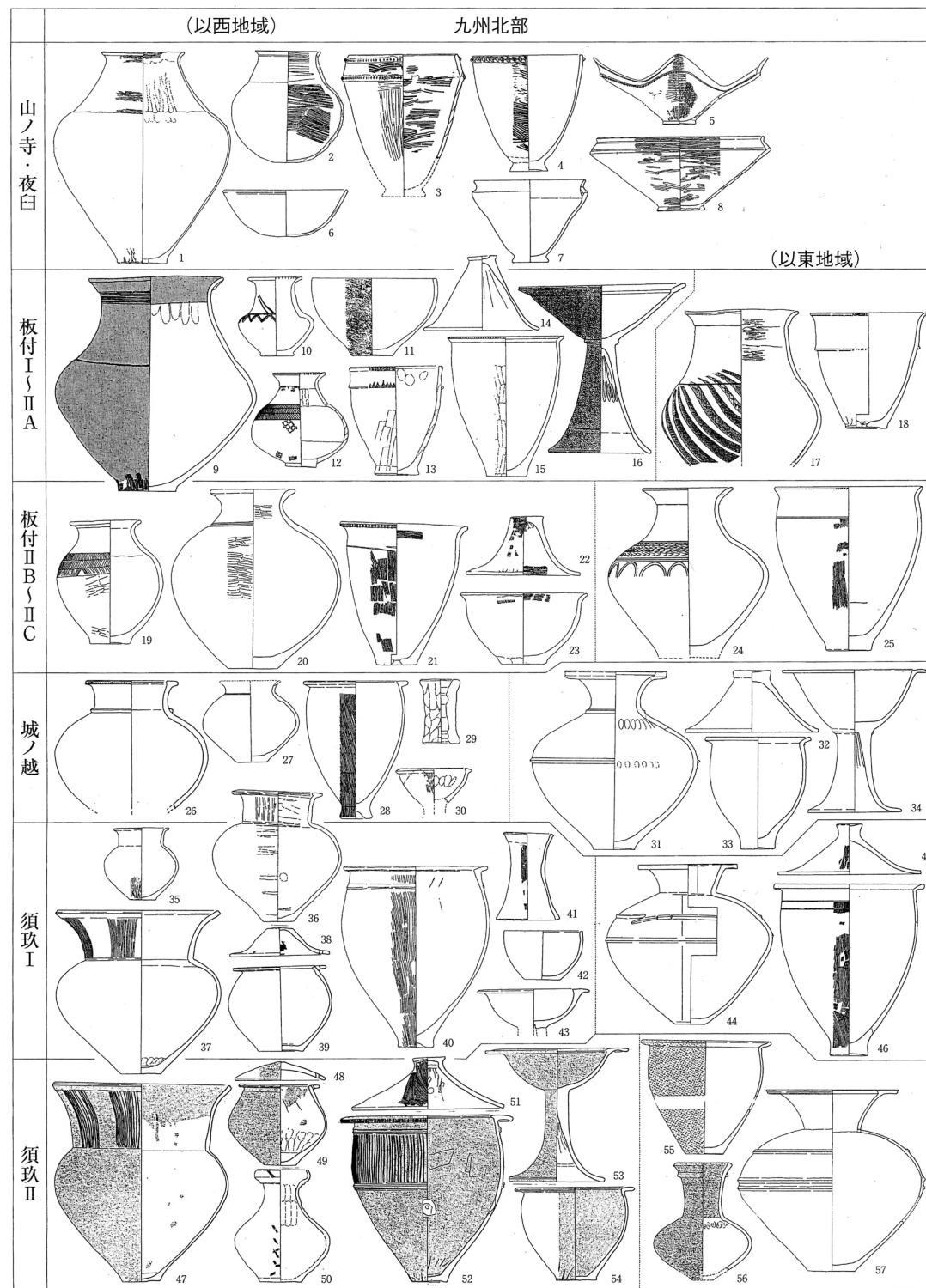


図11 北部九州の弥生時代早期〜中期の土器編年

1:板付SC01 2,5,6,8:栗畑9-12層 3,4,7:板付G7a-b下層 9:板付G7a-b上層 10,13:栗畑8上層 11,12,15:板付塚塚 14,16:今川 17,18:辻垣マサマル 19-21,23:比恵37次SU037 22:比恵30次SU010
24,25:下舞田L-67号新蔵穴 26,27,29,30:吉武IV区SC-65 28:飯氏馬場59号土壘 31,32:馬場山2次33号壘穴 33,34:下舞田F-152 35,36,40:東入部1次II区SK04 37-39,41-43:那の後土器淵
44:下舞田F-6 45:下舞田D-417 46:下舞田A-95 47-49,51-54:三養八反田II-3住居 50:那珂41次SE016 55,57:馬場山2次51号祭祀 56:下舞田C-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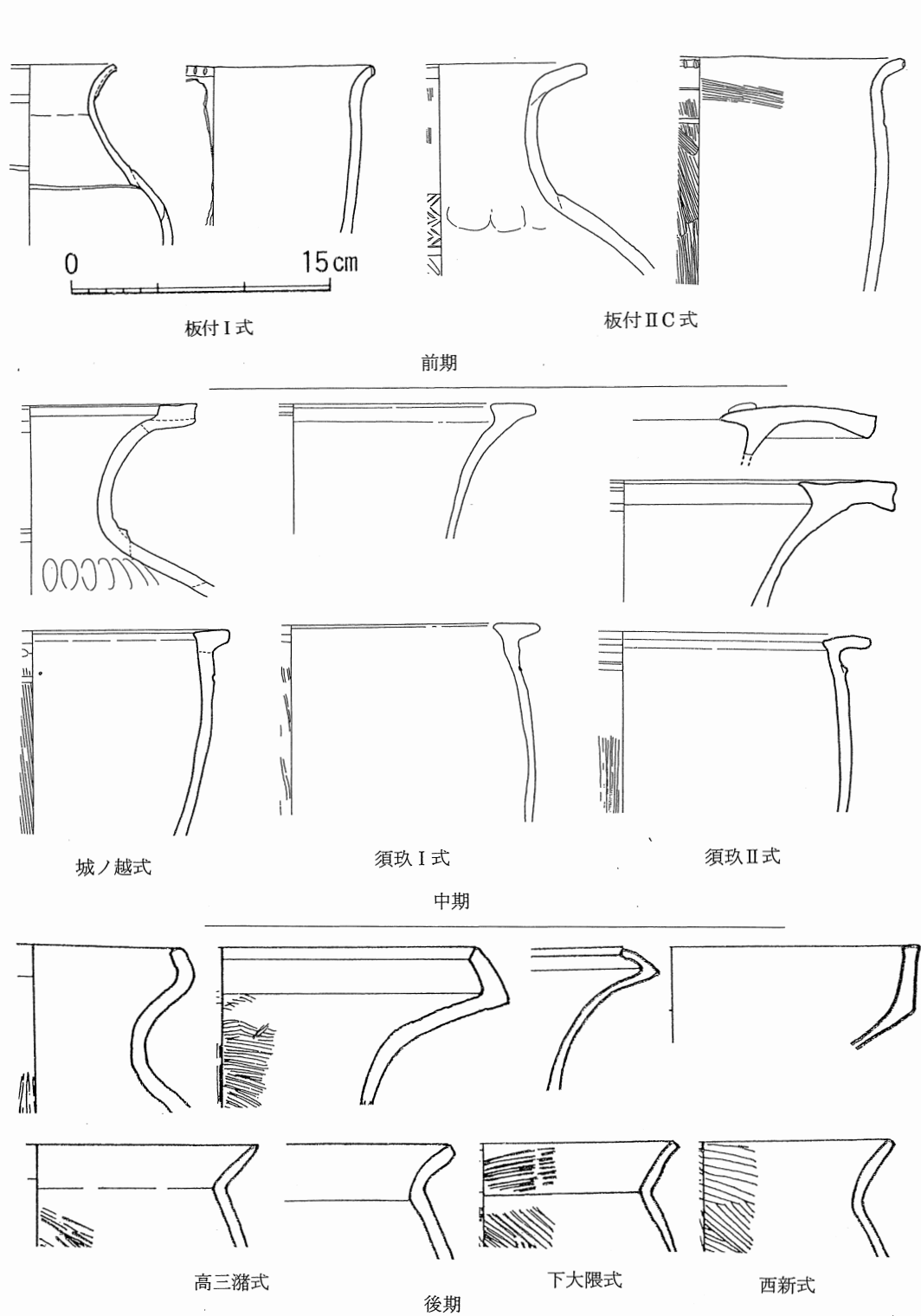


図12 北部九州の弥生土器壺・甕の口縁部形態変化

〈引用参考文献〉

池田 榮史2011「乙益重隆論(1919~1991)」『弥生時代の考古学』9 弥生研究の歩みと行方 25-40頁 同成社

大貫 静夫2005「最近の弥生時代年代論について」『人類学雑誌』113

小田 富士雄1973「対馬・ガヤノキB地点遺物の再発見」『史学論叢』第6号(のちに『九州考古学研究 弥生時代篇』所収 454-465頁 学生社)

小田 富士雄・韓 炳三1991『日韓交渉の考古学 弥生時代篇』六興出版

乙益 重隆1961「熊本県齋藤山遺跡」『日本農耕文化の生成 本文編』119-131頁 東京堂

近藤 義郎1985「時代区分の諸問題」『考古学研究』第32巻第2号(通巻126号) 23-33頁 考古学研究会

佐原 真1986「総論」『弥生文化の研究』3 弥生土器Ⅰ 5-10頁 雄山閣

新宅 信久1994「江辻遺跡の調査」『九州考古学会・嶺南考古学会第1回合同学会-資料編-』118-131頁

新宅 信久2001「江辻遺跡第5地点の調査成果について」『平成13年度九州考古学会総会研究発表資料集』

武末 純一1991「近年の時代区分論議—特に弥生時代の開始を中心に—」『日本における初期弥生文化の成立』横山 浩一先生退官記念論文集Ⅱ 173-185頁 文献出版

武末 純一1998「日本の環溝(濠)集落—北部九州の弥生早・前期を中心に—」『環濠集落と農耕社会の形成』115-139頁 九州考古学会・嶺南考古学会第3回合同考古学大会

武末 純一2002『弥生の村』日本史リブレット3 山川出版社

武末 純一2003「九州地方の土器」『考古資料大観』1 弥生・古墳時代 土器Ⅰ 101-112頁 小学館

武末 純一2010「九州の弥生土器—北部九州を中心に—」『第12回研究院教育講座教材』20-98頁 蔚山文化財研究院

武末 純一2011「森貞次郎論(1910~1998)」『弥生時代の考古学』9 弥生研究の歩みと行方 86-100頁 同成社

津屋崎町教育委員会1981『今川遺跡』(津屋崎町文化財調査報告書第4集)

寺前 直人2020「弥生時代:新石器弥生時代と初期金属器弥生時代」『季刊考古学』150 雄山閣

中山 平次郎1950「銅剣鉄剣石剣の共伴を示せる組合式石棺」『考古学雑誌』第36巻3号 1-17頁

那須 浩郎2019「植物利用の変遷」『日本考古学協会2019年度岡山大会研究発表資料集』41-46頁

春成 秀爾2003「弥生時代早・前期の鉄器問題」『考古学研究』第50巻第3号 11-17頁

福岡県教育委員会1984『石崎曲り田遺跡—Ⅱ—』今宿バイパス関係埋蔵文化財調査報告第9集

福岡県教育委員会2015『矢留堂ノ前遺跡』東九州自動車道関係埋蔵文化財調査報告第19集

福岡市教育委員会1994『那珂11 二重環濠の調査』福岡市埋蔵文化財調査報告第366集

前田 義人・武末 純一1994「北九州市貫川遺跡の縄文晩期の石庖丁」『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第39号 65-90頁

森岡 秀人2018「近畿初期農耕社会の成立にみられる諸変動と画期」『初期農耕活動と近畿の弥生社会』雄山閣

森 貞次郎1942「古期弥生式文化に於ける立岩文化期の意義」『古代文化』13巻2号 1-39頁 東京考古学会

森 貞次郎1960「島原半島(原山・山ノ寺・礫石原)及び唐津市(女山)の考古学的調査—おわりに—」『九州考古学』10号 10頁 九州考古学会

森 貞次郎1999「縄文晩期の稲作研究少史」『東アジア的世界・九州』25-44頁 森貞次郎先生著書刊行会

森 貞次郎・岡崎 敬1961「福岡県板付遺跡」『日本農耕文化の生成 本文編』37-77頁 東京堂

山崎 純男2008『最古の農村・板付遺跡』シリーズ「遺跡を学ぶ」048 新泉社

山崎 頼人2015「日韓青銅斧の研究—三沢北中尾遺跡出土銅斧片の意義」『古文化談叢』第74集

李 健茂2018「日韓交渉考古学研究方向の模索—いくつかの事例を中心に—」『新・日韓交渉の考古学—弥生時代—』第1回共同研究会 31—35頁 「新・日韓交渉の考古学—弥生時代—」研究会

(韓国語)

江原文化財研究所2011『春川牛頭洞遺蹟I』江原文化財研究所學術叢書112冊

李 厚錫2019「遼寧地域琵琶形銅劍の登場とその背景」『韓国考古學報』111

韓國文化財財團2018「清州鶴坪里2019—5・222—1番地遺蹟」『2016年度小規模発掘調査報告書VI 忠南(2) 忠北(1)』

【図出典】

図1：筆者作成、図2：山崎 純男2008、図3・図6：小田 富士雄・韓 炳三1991より作成、図4：山崎 頼人2015より作成、図5：春日市教育委員会の許可を得て筆者作成、図7：前田 義人・武末 純一1994より作成、図8：森 貞次郎・岡崎 敬1961より作成、図9：福岡市教育委員会1994、図10：新宅 信久1994・新宅 信久2001より作成、図11：武末 純一2003、図12：武末 純一2010

일본 야요이시대의 분기

다케스에 준이치 후쿠오카대학

譯: 이동관 국립경주박물관

I. 머리말

II. 야요이시대 개시와 시대 구분 및 조기의 설정

III. AMS연대 측정법의 충격과 야요이시대 시대 구분

IV. 맺음말

I. 머리말

일본 고고학에서는 현재 원시·고대를 일반적으로 구석기시대, 죠통(繩文)시대, 야요이(弥生)시대, 고큰(古墳)시대, 아스카(飛鳥)시대, 나라(奈良)시대, 헤이안(平安)시대로 구분한다. 이 중 아스카 시대 이후는 중세·근세·근현대까지 포함하여 수도 소재지에 따른 문헌사학의 시대 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고큰시대까지가 고고학 자료에 의한 구분이다. 야요이시대는 제2차 대전 전에는 죠통식 토기와는 다른 야요이식 토기의 시대라는 의미에서 야요이식 시대(이하, 현행에 따라 야요이시대)라고 불리며, 토기가 시대 구분의 지표였다. 또 세부 시기 구분도 토기 양식에 따라 전기·중기·후기로 설정되었다. 야요이시대는 2차 대전 이전 나라(奈良)현 가라코카기(唐古·鍵) 유적에서 농기구를 비롯한 목기의 발굴과 2차 대전 이후 시즈오카(静岡)현 토로(登呂)유적의 수전(논, 이하 수전) 발굴을 통해 수전도작농경(농업)이 시작된 시대로 이해되고 있으며, 도작농업의 유무로 죠통시대와 야요이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수전도작농업은 야요이시대 전기 초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대 구분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78년에 발굴된 후쿠오카시(福岡市) 이타즈케(板付) 유적의 이른바 ‘죠통 수전’의 조사 성과로, 그때까지 죠통 시대 만기 말로 생각했던 각목돌대문토기(현재의 유스夜白Ⅱ식·

IIa식) 단순기(이하, 유스식기)의 논(그림 2)의 존재가 밝혀짐으로써 시대 구분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유스식기를 야요이시대 초기로 보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경위를 바탕으로 야요이시대 개시에 관한 시대 구분을 중심으로 필자의 생각을 서술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AMS연대측정치 공표로 제기된 야요이시대 역연대의 재검토와 전체적인 연대 역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일본 야요이시대의 세계사적 3시대 구분법 적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또 한반도의 시대 구분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원삼국시대를 이용하고 청동기 시대를 초기·전기·후기·말기로 구분하는 의견(이건무 2018)에 따른다.

II. 야요이시대 개시와 시대 구분 및 초기의 설정

1. 야요이시대 개시를 둘러싼 연구약사(전후부터 1970년대까지)

2차 대전 이전 단계에서 이미 야요이시대가 수전도작농업이 시작된 시대라는 것은 가라코카기유적에서 발굴된 농경용 목기로써 인식되었으며, 야요이토기도 가라코편년에 의해 제 I 양식이 전기, 제 II~IV양식이 중기, 제 V 양식이 후기라는 시기 구분의 대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규슈(九州)로부터 전국으로 확장되는 전기의 웅가가와(遠賀川)식 토기 중에서도 최고(最古)의 야요이토기가 연구되면서, 북부규슈의 후쿠오카시(福岡市) 후지사키(藤崎)유적과 후쿠오카현(福岡県) 이즈카시(飯塚市) 히가시코모다(東菰田)유적에서 출토된 히가시코모다식(이후의 이타즈케 I 식토기) 호가 가장 이른 시기의 야요이토기로 인정되었다(森 貞次郎 1942), 가장 늦은 시기의 죠평토기는 후쿠오카현 나카마시(仲間市) 시모소코이노(下底井野)의 웅가가와 하천 바닥에서 발견된 회색 조질 각목돌대를 가진 조흔문 정면의 심발(이후의 유스식 토기)가 되었다.

1970년대까지 전후의 연구사는 4기로 나누어진다.

제1기는 죠평시대 만기 토기와 야요이시대 전기 토기의 관계를 탐구하는 시기이다. 특히 1951년부터 1954년에 걸쳐 실시된 후쿠오카시 이타즈케유적의 조사에서는 당시 야요이시대 최초기의 이타즈케 I 식 토기와 죠평시대 종말기의 유스식 토기가 명확히 공존하였다(도 8). 또 탄화미와 볏집흔(糶痕) 토기, 대륙계 마제석기(반월형 석도, 유구석부, 편평편인석부, 마제석검, 석촉 등)도 공반되어 도작농업문화로 야요이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인식이 정착하였다.

제2기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농업 관련 요소가 죠평 종말기(유스식기)에 어느 정도 관찰되는가 하는 연구가 주체가 된다. 그 무대가 된 것은 나가사키현(長崎県) 시마바라(島原)반도의 죠평시대 만기 유적으로 이행하는 하라야마(原山)유적의 지석묘와 야마토데라(山ノ寺)유적 등의 조사이다. 조사 결

과, 유스식기 지석묘(야요이문화의 요소)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유스식 토기보다 조금 이른 것으로 보았던 야마노데라식(이후의 유스 I 식 토기)토기에서도 볏집흔 토기가 확인되었다.

이 성과들을 수용하여 모리 테이지로는 ‘지금까지 규슈의 야요이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요소를 정형화된 토기, 대륙계 마제석기를 포함한 농공구, 벼, 방추차, 금속기, 지석묘 등의 조합에서 찾았다.’고 서술하면서, ‘야요이문화 성립의 정도는 의외로 복잡하며, 결코 짧은 시기에 일거에 성립된 것이 아니라 야요이문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축적되어 가면서, 각각이 밀접하게 조합되어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때가 야요이문화 성립의 시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의하였다(森 貞次郎 1960).

다만, 시마바라반도는 야요이문화의 중심지인 겐카이나다(玄界灘) 연안지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마바라반도의 유스식기는 겐카이나다 연안지역의 이타즈케 I 식기와 병행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완전히 불식할 수는 없으며 문제는 재차 겐카이나다 연안지역으로 반려했다.

제3기의 중심은 겐카이나다 연안지역의 사가현(佐賀県) 가라쓰시(唐津市) 우키쿤텐(宇木湊田) 패총의 조사이다. 이 패총은 오랜 기간 수수께끼의 패총으로 남아 있었으나 1965, 1966년의 일·불(일본·프랑스)합동 조사 시에 재발견되었는데 우키가와(宇木川) 좌안의 저지는 충분히 수전경영이 가능한 입지이다. 발굴의 결과는 ‘제3층은 이타즈케 I 식과 유스식 토기의 공반층이며, 제4층에서 유스식토기 단순층을 확인하였다. 유구석부를 포함한 마제석기 및 탄화미가 발견된, 죠평도작농경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森 貞次郎 1999)

제4기에는 실제로 유스식기 수전이 후쿠오카시 이타즈케유적의 G-7a·7b구에서 1978년 발굴되었다(도 2). 여기에서는 이타즈케 I 식기의 2기의 수전 밑에 유스식기 층이 있었으며, 그 하단 중간 모래층을 끼고 유스 I 식의 수전이 확인되었다. 발굴 당시의 이른바 ‘죠평수전’이다. 이 수전에서는 간선수로에 직교하는 보와 그 남쪽(상류측)에 있는 배수구(수로와 수전의 독 사이를 흐르는 배수를 급수로 전환하는 구)에도 역시 직교하는 보가 있으며, 또 이 보 남측에서는 수전의 독 일부가 잘린 보와 함께 취배수구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3중의 보로 볼 수 있다. 수전은 간선수로를 따라 대형(1기의 폭이 6~10m, 길이 50m이상)의 장방향으로 수전과 간선수로 사이 폭 1m, 높이 0.3m의 독에는 양쪽으로 널 말뚝과 말뚝을 박아 넣고 횡목을 걸쳐서 고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비된 제작형태이다. 또 목제농구나 반월형석도, 탄화미도 공반되는 것이 명확해졌다(山崎 純男 2008).

이러한 유스식기 수전의 존재자체는 제3기의 우키쿤텐 패총의 입지나 탄화미의 확인 등으로 볼 때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수전이 예상 외로 완비된 것이라든지, 가라쓰시 나바타케(菜畑)유적과 이토시마시(糸島市) 마가리타(曲り田)유적에서도 유스 I 식에 다양한 농업문화 요소가 갖춰진다는 것이 실증됨으로써 급속히 시대 구분론이 대두되고 종래와 같이 야요이토기의 시대를 야요이시

대라 할 것이 아니라, 야요이시대의 토기를 야요이토기라고 보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죠평시대 만기 말로 보던 유스식기를 야요이시대 조기로 하는 설이 제창되기에(佐原 真 1986) 이르렀다.

또, 야요이시대에 삼시대구분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2차대전 이전 나카야마 헤이지로(中山 平次郎)가 금석병용기를 제창하며, 1931년 답사하고 조사한 나가사키현 쓰시마시(津島市) 가야노키(ガヤノキ) B지점에서 유병식 마제석검과 동검, 철검의 공반 예를 그 증거로 들었던(中山 平次郎 1950) 것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1951년부터 이타즈케유적의 조사와 함께 진행된 구마모토현(熊本県) 사이토야마(齋藤山)유적 패총의 발굴에서 철부가 이타즈케 I 식에 공반된다고 하는 결과(乙益 重隆 1961), 야요이시대 전기 초부터 철기가 존재하며, 반대로 청동기는 야요이시대 전기 말 이후의 옹관에 부장되기까지 출현하지 않는다고 보는 인식된 것도 큰 요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야요이시대의 경우 세계사적인 흐름과는 달리 석기보다 먼저 철기가 등장하고 그 후에 청동기가 출현한다는 의견이 통설이 되었다. 그 후 1970년 쓰시마의 아소(浅茅)만 주변의 고고학적 조사에서는 가야노키 B지점에서 출토되었다고 본 유물 중에서 마제석검과 동검은 서로 다른 지점(H지점)에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小田 富士雄 1973). 그리고 후쿠오카현 후쿠쓰시(福津市) 이마가와(伊川)유적의 경우 전기 초까지 올라가는 요령식 동검을 가공한 동촉·동착(도3-3, 4)이 알려지고(津屋崎町教育委員会 1981), 마가리타유적의 16호 주거지에서 유스 I 식에 공반되는 관상철부편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면서(福岡県教育委員会 1984), 이 통설은 유지·강화되었다.

2. 야요이시대의 개시와 시대 구분론

이타즈케유적의 '죠평 수전'에서 촉발되어 왕성하게 논의된 시대 구분론 중 중요한 것은 곤도 요시로(近藤 義郎)의 논고(近藤 義郎 1985)이다. 여기서는 먼저 그 논고의 대강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그것으로 촉발되어 발표한 필자의 견해(武末 純一 1991)의 대략을 언급한다.

곤도 요시로론을 개조식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곤도 요시로는 '왜 시대 구분인가'의 항에서 '시대 구분은 항상 2가지, 즉 전인류사적 구분과 집단별 구분에 의해 성립한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시대 구분에 2가지 레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다음으로 '고고학의 시대 구분과 역사의 구분'의 항에서는 다양한 구분이 있지만, 모두를 포괄한 구분으로서 '지배적인 생산양식에 근거한 사회구성구분'이 있으며 '고고학의 시대 구분은 물질 변화의 구분이며, 물질이 시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평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헌이 등장하면 그것을 넘긴다'며, '고고자료에 의한 시대 구분은 문헌 이전에 한정되는 것이 좋으며', '고고학적 시대 구분은 문헌 이전에 한정될 때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3. '일본의 시대 구분'의 장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시대 구분을 하는가라고 자문하면서 '특징적이며, 중요하며, 보편화되어 가는 고고자료'라는 답을 내린다. '중요한'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중요라는 것, '보편적'이라는 것은 각 집단에 전해져 보급되어 가거나 지배적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특징적'이라는 것은 '고고자료 형태의 특징성'이며, '예를 들어 토기는 명확히 석기나 골각기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4. 그리고 구체적인 구분지표를 '특징적이며, 중요하고, 보편화되어 가는 고고자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죠평시대의 개시는 토기이며, 야요이시대의 개시는 수전 유구, 목제농구, 반월형석도, 목제농구를 만드는 석제 또는 철제공구, 범씨 중에서 모두 또는 몇 개가 조합되어 출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야요이시대의 종말, 즉 고훈시대(古墳時代)의 개시는 전방후원분의 출현을 바탕으로 전방후원분시대 또는 고훈시대의 종말은 전방후원분의 단절, 또는 그 영향 하에서 성립된 고분 일반의 단절'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1991년에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1의 전인류사적 구분과 집단별 구분에 동의하지만 개별집단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개별집단의 범위는 그 시대가 적용되는 범위 전체라고 생각하였다. 야요이시대의 경우는 오키나와(沖縄)를 중심으로 한 패총시대 '남쪽 지역'과 홋카이도(北海道)를 중심으로 하는 속(續) 죠평시대의 '북쪽 지역'이 일본열도에서 제외되며 야요이문화가 전개되는 '중간 지역'(규슈, 시코쿠, 혼슈를 주체로 하는 지역)이 그 대상범위가 된다.

2에서는 고고학도 역사학의 구성자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구분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 고고자료나 문헌자료를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 전제를 근거로 한 후에 '고고학적인 시대 구분을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

또, 우리는 단순히 '물질'에 의해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식의 순서는 전후의 경계는 모호하면서도 어느 일정 시대를 막연히 인식하고 다음으로 그 시대의 특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가장 적합한 현상(事象)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실태일 것이다. 따라서 시대관의 형성이 먼저이며, 시대 구분의 지표로 선출되는 '물질'은 항상 시대관에 의해 비판·검증되며 때로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에서 '중요한'과 '보편적'에 이론(異論)은 없다. 그러나 '특징적'에 대해서는 어떤 고고학 자료도 각각 '다른 형태의 특징을 지닌다'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를 수 없고 '특징적'을 '시대에 특징적'이라는 의미로 대체하여 '그 시대를 전후 시대로 나눌 수 있는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며, 이전 시대에 보이지 않는 자료'로 정의한다.

4의 경우 죠평시대 개시에 이론은 없지만, 야요이시대의 개시도 단일 지표에 의해야 한다고 생각하

였다. 단일 지표가 복수의 지표보다 더욱 명쾌하고, 단락을 짓는다는 입장에 서는 이러한 명쾌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시대에도 전 시대의 유제(遺制)는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시대를 구분할 시에는 시대와 문화를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 즉, 고훈시대의 끝은 고대국가의 성립이나 완성이라는 새로운 사상으로 그려져야 하며, 전방후원분의 단절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전방후원분의 단절은 고분문화의 끝이긴 하지만 그것이 고훈시대 종말의 지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토기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야요이시대의 토기를 야요이토기로 보는 입장에 찬성하며 동시에 죠평시대 이전을 채집경제의 시대, 야요이시대를 수전도작농업 주체의 생산경제가 시작되는 일본열도 '중간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민이던 시대로 파악하였다. 이 경우 범씨와 수전은 채집경제 단계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대 구분의 지표로 보지 않으며 환구 취락의 출현을 지표로 삼았다.

이것은 환구 취락이 죠평시대에는 없으며, 야요이시대에 주로 보이기에 특징적이며, 각 지역으로 확대되어 보편화된다. 또 환구 취락으로 사람들은 자연과 분리되며, 모태가 되는 숲과 대지는 사람들이 수전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자원이나 소재가 된다. 죠평시대 이전에는 사람이 수평으로 이동하여 샘에서 물을 길는데 비하여 야요이시대가 되면 우물이 출현하고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며 대지를 깊게 파서 물을 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구취락도 자연을 자신을 위하여 개조하는 농민의 사상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환구취락은 그 내부의 사람과 외부의 사람도 갈라놓고 대립시킨다. 사람간의 관계에 곧 틈이 생기고, 사람들은 분열·경합하고 재통합되며, 함께 일했던 지도자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장(왕)으로 변해간다. 따라서 환구 취락의 출현은 농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형태로 나타내는 농민선언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환구 취락은 야요이시대와 죠평시대를 구분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1991년 시점에서 이타즈케유적의 이타즈케 I 식기 환구취락이 일본 최고(最古)였기 때문에, 야요이시대 초기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종래와 같이 야요이시대는 이타즈케 I 식기부터로 보았다. 그 후, 후쿠오카시 나카(那珂)유적(도 8)과 후쿠오카현 카스야마치(粕屋町) 에쓰지(江辻)유적(도 9)에서 그때까지 만기 말로 보았던 유스식기의 환구취락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필자도 자신이 설정한 시대 구분의 지표에 따라서 유스식기를 야요이시대 초기로 하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武末 純一 1998). 나카유적의 야요이시대 초기 이중환구는 원형으로 돌아가며 동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내측 구의 내경은 125m이다. 그 내부는 높이 2m 정도 삭평되어 거주시설은 소멸되어, 가장 이른 시기 농촌의 내용은 에쓰지유적에서 밝혀졌다. 에쓰지유적의 구는 몇 번에 걸쳐 재굴착되었으며 원호를 띠며 깊이가 얕다. 이 환구 개시기인 초기에는 송국리형 주거지가 구를 따라서 그 내측에 배치되며 중앙부는 광장으로 고상창고나 대형건물이 입지한다. 중요한 것은 구 외부에 송국리형 주거지가 없는 점이다. 이

구는 내부의 사람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전원을 위한 원형환구'이며, 나카유적 등 초기~전기 초의 취락도 동일한 구조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야요이시대 개시를 둘러싼 시대 구분론은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으며, 일부에 이론이 있지만, 유스식기를 야요이시대 초기로 보는 설이 서서히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또 야요이시대 초기부터 전기 초 걸쳐 한반도 청동기시대 후기의 문화(도 6)와 사람을 많이 수용하여 수전도작농업사회가 시작된다는 것도 명확해졌다. 북부규슈 이외에는 초기로 보지 않는 설도 아직 남아 있지만, 야요이시대는 일본열도 '중간 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시대명칭이기에 그 일부 지역만이 야요이시대이며 다른 지역은 죠평시대라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 일부라도 지표가 출현한다면 그때부터가 야요이시대이며 지표가 보이지 않는 지역은 야요이시대에 죠평문화가 계속되었던 지역으로 봐야 한다.

또, 각목돌대문토기 자체는 유스식기 이전에 출현하고 각목돌대문토기의 출현과 야요이시대 초기의 개시는 일치하지 않으며, 유스식 토기의 출현이 야요이시대 초기의 시작이다.

한 가지 문제는 쌀로 분류된 죠평토기 표현의 압흔이 최근 replica법으로 재검토된 결과, 대부분이 쌀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쌀 존재의 상한은 유스식기 직전, 죠평시대 만기 후반인 구로카와(黒川) 식기로 여겨지게 된 점이다(那須 浩郎 2019). 이 구로카와식에는 한반도 청동기시대 전기에 보이는 공열문계 토기가 있으며, 저지에 입지하는 기타규슈시(北九州市) 누키가와(貫川)유적에서는 장주형 반월형석도(도 7-1)이 출토되었기 때문에(前田 義人·武末 純一 1994) 한반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업문화의 영향으로 보이며, 누키가와에서는 수전의 존재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로카와 식기도 야요이시대로 볼 수 있는가? 현 시점에서 필자는 구로카와식을 야요이시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첫째로 구로카와식기의 환구취락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로 그러한 한반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업문화를 수용하였다고 하여 야요이시대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요이시대 초기의 고고자료에는 유구석부나 무단병(일단식유병)석검, 삼각형을 포함한 단주형 반월형석도, 송국리형 수혈주거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도 6), 한반도 청동기시대 후기의 계통에 있는 것은 명확하며, 도래한 한반도 청동기시대 전기문화의 연장선상은 아니다. 따라서 구로카와식기에 반입된 농업문화는 정착에 실패한 시도로 생각하고 있다.

Ⅲ. AMS연대 측정법의 충격과 야요이시대 시대 구분

1. 역박 AMS연대와 야요이시대 청동기·철기의 출현시기

2000년대 이후 야요이시대 시간론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 의한 AMS연

대축정치(이하, 역박 AMS연대)의 공표였다. 필자는 그보다 이전에 한반도 남부와 북부규슈의 병행관계와 송국리유적 출토 요령식동검 등을 바탕으로 조기의 역연대를 기원전(이하 전) 6~5세기, 전기를 전 5~4세기로 추정하였는데(武末 純一 2002), 2003년 발표된 역박 AMS연대에서는 야요이시대 조기의 시작이 전 10세기, 전기의 시작이 전 8세기, 중기의 시작이 전 5세기(현재에는 전 380년경으로 본다), 중기 전반이 전 3세기로, 대폭 상향된 측정치였다. 이 역박 AMS연대는 지금까지의 통설보다도 훨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 이 논의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고학연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연구 진전을 기대하는 부분도 크다.

역박 AMS연대가 ‘고고학자에게 기존 연대를 재검토할 기회를 부여한 것은 중요하다.’는 오누키 시즈오(大貫 静夫)의 지적(大貫 静夫 2005)에는 필자도 동의하지만, 무비판적으로 역박 AMS연대를 따라간다면, 역연대는 AMS연대만 있으면 되며 고고학에 의한 역연대 추정이나 형식학은 불필요하다는 식의 언동은 고고학의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야요이시대 중기 전반 이전의 고고자료에서는 역연대를 직접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동 시기의 한반도에서 출토된 요령식 동검 관련 자료나 중국거울에서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밝혀진 가락동식 토기나 혼암리식 토기에 공반되는 청주 학평리 주거지, 춘천 우두동 A지구 석관묘 출토 초기 요령식 동검(한국문화재단 2018,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은 중국 동북부의 사례로 볼 때, 그 시기가 전 10세기를 크게 상회하기는 곤란하며(이후석 2019), 가락동식 토기나 혼암리식 토기는 야요이시대 초기보다도 전인 죠몽시대 만기 구로카와식 토기에 병행한다. 또 이마가와 유적의 무문토기로 보면 이타즈케 I 식 토기에서는 송국리식의 최신단계가 병행하고 이 시기의 역연대는 송국리유적 55-8호 주거지 상층에서 출토된 상하로 펼쳐지는 선형동부의 용범으로 볼 때 역시 전 5세기경으로 보인다. 야요이시대 중기 전반으로 보이는 폭이 좁고 긴 봉(幅狹長鋒)을 가진 세형동모와 공반되는 익산 평장리 전한경의 역연대는 전 2세기 전반이기 때문에 중기 전반도 전 2세기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역박 AMS연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철기의 소속시기가 재검토된 것(春成 秀爾 2003 등)으로 사이토야마유적의 철기는 이타즈케 I 식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池田 榮史 2011), 마가리타유적의 철기도 상층에서 혼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시기가 확실한 야요이시대의 철기는 현재로서 야요이시대 전기 말로 후쿠오카현 유쿠하시시(行橋市) 야도메도노마에(矢留堂ノ前)유적 환호 내부에서 출토된 주조철부편(福岡県教育委員会 2015), 후쿠오카현 카스가시(春日市) 헤이작(平若) A유적 4차 3호 토광묘 출토 주조철부편(도 5-1) 등의 예가 있다. 헤이작 A유적의 주조철부편에 공반되는 토기편은 소형호의 동부 상반에 유축우상문

(有軸羽状文)을 가지며(도 5-2, 3), 하한은 전기 말(이타즈케 IIc식)이다. 이 전기 말부터 중기 초는 한반도 남부의 원형점토대토기(수석리식기)의 말기에 병행하며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편년에서는 세형동검, 동모, 동과가 갖추어지는 3기 고단계 중에서도 후반, 즉 처음 철기가 출현하는 장수 남양리 단계에 해당한다. 이것은 이 시기에 북부규슈에서 출토된 폭이 넓고 짧은 봉(幅広短鋒) 세형동모 등 청동기로 봐도 모순되지 않으며, 이 역연대는 대략 전 3세기로 보인다.

한편, 철기 출현 이전 청동기의 경우 전기 후반(이타즈케 II B식) 이전에는 이마가와유적에서 송국리 석관묘 출토예(도 3-1, 2)와 동일한 요령식 동검을 가공한 것으로 보이는 동축과 동착(도 3-3, 4)이 출토되었으며, 야요이시대 전기 초(이타즈케 I 식기)에 속한다. 또 후쿠오카현 오고리시(小郡市) 미쓰사와키타나가오(三沢北中尾) 제2지점 127호 저장혈(SK127)의 장방형 동부 과편(도 4-1)에서는 이타즈케 II A식 신단계~이타즈케 II B식 고단계의 토기(도 4-2)가 공반된다(山崎 頼人 2015). 이러한 장방형 동부는 현재로서 한반도 남부의 경우 3기 고단계 전반으로 아직 철기가 보이지 않는 부여 구봉리단계에서 보이며(도 4-3), 다음 단계인 장수 남양리 단계에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일본 열도 야요이시대의 경우에도 한반도와 보조를 맞추어 야요이시대 초기부터 전기 후반에 청동기가 먼저 공반되며, 전기 말이 되어서 철기가 출현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은 큰 성과이다.

2. 야요이시대 시기 구분

야요이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는 구분하는 목적에 따라 몇 개의 안을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그것들은 논의의 존립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타당성이 있고 동시에 병존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전기·전기·중기·만기의 4시기 구분은 기본적으로 토기의 양식 변화에 의한 구분이다. 규슈의 경우 용, 호의 구연부 단면형 등의 변화를 바탕으로 조기는 각목돌대문옹과 적색마연호 등의 조합, 전기는 완만하게 외반된 여의형(如意形)구연과 경부가 내경하는 호, 중기는 수평구연과 목 부근에서 구연부가 밖으로 펼쳐지는 호, 후기는 ‘<’자형 구연옹과 복합구연호 등으로 대별되며 각 시기는 다시 미세한 토기상의 변화로 세분된다(도 11, 12). 이 분기는 시기의 척도라는 의미가 강하여 고고자료의 전개와 관계성을 상세히 검토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 뿐만 아니라, 후기에는 석제나 청동제 이기는 거의 소멸하고 철기가 표면화되고, 중국 거울 부장의 경우 중기 후반의 전한경이 후기에는 후한경으로 바뀌고, 한반도계 청동 무기의 부장은 중기를 주체로 하는 등, 척도를 넘어서는 의미도 엿볼 수 있다. 전기 초의 이타즈케 I 식을 모체로 하는 소위 옹가가와식 토기는 본격적인 야요이문화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 정착시키고 있어 조기와 전기의 구분에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야요이시대 사회구조의 변용이나 역사적 평가를 응시했을 경우, 중기 전반의 스구(須玖) I 식과 중기 후반의 스구 II 식의 중간에 굽은 선을 그어 야요이시대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대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야요이시대 전반기에는 수전도작농업이 시작되고, 평야나 하천유역 등 단위 소지역별로 국(고대국가는 아니다)이라는 지역 정치조직이나 국의 중심인 국읍이 출현하며, 고조선의 권위를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한반도 남부와와의 관계가 강하고, 수장층이 출현하여 계층사회가 형성된다. 한편, 야요이시대 후반기는 한반도의 원삼국시대와 거의 병행하며 대외적인 권위의 바탕은 최상층을 중국 한(漢)제국이 점하며 한반도 남부뿐만 아니라, 낙랑군(이 후에는 대방군)과의 관계 비중이 높아지며 국들의 연합체인 초기지역 정권이 서일본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형성되고 왕이 표면화한다. 또 거점취락에서는 전원을 위한 원형환구 속에 일부 수장층을 위한 방형환구가 출현하고 수장층 거택으로 성장한다. 이처럼 전반기와 후반기의 사이에는 큰 획기가 존재한다. 또 야요이시대 전반기는 수도 농업사회의 정착시기로 한반도 남부와와의 유사 양상이 강해서 유력자는 있지만 표면화되지 않은 고단계(야요이시대 초기~전기 후반)과 한반도 남부와와의 관계는 강하지만 유사한 양상에서 벗어나 수장층이 나타나 독자적인 야요이문화와 계층사회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신단계(전기 말~중기 전반)로 세분할 수 있다.

한편, 전술한 것처럼 야요이시대 철기는 전기 말 이후에 출현·전개한다. 그 이전에는 청동기만 나타나며 그것도 무기나 공구로서 결코 일과성이 아니므로 세계사적인 삼시대법의 적용도 가능해졌다. 결국 야요이시대 초기~전기 후반은 일본 청동기시대 또는 청동기 야요이시대, 야요이시대 전기 말 이후는 일본 철기시대 또는 철기야요이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초기 청동기의 확실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야요이시대 조기에 병행하면서 큰 영향을 끼친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청동기가 일정 정도로 보편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출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 대하여 규슈의 청동기를 제외하고 많은 지역에서 석기밖에 보이지 않는 점에서 야요이시대 초기~전기 후반을 신석기 야요이시대라고 하는 설(森岡 秀人2018, 寺前 直人2020)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시대를 구분하는 경우, 야요이시대의 범위는 야요이문화가 전개하는 '중간 지역' 전체가 대상범위이며, 일부라도 그 시대에 지속되는 지표가 새롭게 출현한다면 전체를 그 시대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지표가 보이지 않는 지역은 이전 시대의 문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규슈에서만 청동기가 존재하며, 타 지역에서는 석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간 지역' 전체를 청동기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삼시대 구분법의 적용은 야요이시대와 한반도 청동기시대나 철기시대와의 비교검토를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야요이시대는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분할되고 소멸해버리는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야요이시대는 도구의 재질로 설정된 시대가 아닌 죠평시대 이전의 채집경제에 대

비되어 수전도작농업에 의한 생산경제가 시작된 시대로 설정되며, 쌀 본위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쌀을 저장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힘으로 변해 가면서 각 집단이 점점 커져가는 사회이다. 야요이시대가 시작되고 수전농업이 확산, 정비되어 전반기 신단계에는 단위 소지역별로 국이라는 정치조직이 생겨나고 후반기에는 국들의 연합체인 초기지역정권이 일본열도 각지에 출현해서 경합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전개는 일관된 역사적 맥락 속에 있다. 그리고 야요이시대 종말에는 각지의 초기지역 정권이 연합하여 '중간 지역'의 거의 전역에 걸쳐 통일적인 왜 정권이 등장하고 고훈시대가 시작된다. 따라서 죠평시대와 야요이시대의 사이 및 야요이시대와 고훈시대의 사이에는 야요이시대의 어떠한 시기 구분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획기가 존재하며, 사회구성사·정치사적인 시대 구분에서 야요이시대는 하나로 묶여진 시대라고 봐도 좋다고 생각한다.

IV. 맺음말

이상, 일본 야요이시대 분기에 대해 주최자의 요청에 얼마만큼 부응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필자의 생각을 언급하였다. 시대 구분이나 시기 구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 '언제부터 00시대인가'하는 시대 구분의 문제는 다양한 연구를 거듭한 후에 판단해야 하며, '언제부터인가'가 추가 되는 논의는 자칫하면 말장난이나 불모의 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오히려 우리는 시대관·시대상의 확립을 우선시하면서 '어떻게 있었는가'를 규명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졸고를 마무리한다.

【도면 및 참고문헌 일문 참조】

「사회경제적 변화로 본 청동기시대 전·중기 분기」에 대한 토론문

황재훈 충남대학교

「작물유체로 본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사회」에 대한 토론문

윤호필 상주박물관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분기」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김미경 국립중앙박물관

「‘초기철기시대’ 폐기 제안」에 대한 토론문

이창희 부산대학교

「사회경제적 변화로 본 청동기시대 전·중기 분기」에 대한 토론문

황재훈 충남대학교

김범철 선생님의 발표문에서는 고고학의 시간성과 사회경제적 변화 사이의 함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전·중기 전이과정에 대한 설명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분기’ 설정에 있어 어떠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답하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학회의 편년 연구의 궤적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발표자의 견해에 동감하며 이하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유형’은 반복적으로 공반관계를 이루며 발견되는 유구유물복합체를 개념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듯하다. 특히 청동기시대 연구에서 유형은 가장 자주 가장 널리 사용된다. 마치 만능열쇠처럼 말이다. 분석의 단위가 되었다가, 편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계통(기원) 자체가 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단순히 ‘고고학적 유물군의 조합’으로 한정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실체를 지닌 특정 (주민)집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청동기시대 방대한 고고 자료의 문화내용을 변별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의 ‘유형(론)’의 공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 각지의 지역문화들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유형론’ 덕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 ‘유형’을 바라보는 연구자 간 시각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데 있다. 그렇다보니 편년에 대한 불일치로 이어지기도 한다(예를 들어 공렬토기, 역삼동식토기, 역삼동유형에 대한 연구자 간 시공적 이해차를 생각해보자). 뚜렷한 기준 없이 전형과 변형으로 구분하고, 기원과 계통을 찾는 식의 본질론적 유형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 생각한다.

발표자 역시 유형 개념에서 촉발된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는 한편 ‘단위’로서의 ‘유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쉽게도 발표집의 지면 한계로 인해 글이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발표자께서 바라보고 있는 (형태나 공간 등 현상 파악을 위한 분석)단위로서의 ‘유형’의 역할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둘째, 전-중기 전환과 사회경제적 변화의 시점, 그리고 통합편년에 관한 부분이다. 발표자는 전이과정에서 발생하였을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를 논하기에 앞서, 분기(편년) 작업의 절차를 짚어주고 있다. 평소 토론자가 두서없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송국리유형을 비롯 과생유형 및 지역적 변이, 국지유형이 등장하는 시점에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는가?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남한 각지 중기 제유형이 등장하는가? 식의 막연한 자문도 해온 터 이번 기회에 발표자에게 물어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사심도 있다. 발표문을 보면 고고학의 원칙상 시간성 인지가 우선해야 하는바 전자가 맞는 해석으로 생각되어 진다.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라면서 김범철 선생님의 고견을 더 들었으면 한다.

「작물유체로 본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사회」에 대한 토론문

윤호필 상주박물관

김민구 교수님과 청동기학회 학술대회 관련해서 인연이 있는데, 2008년 제2회 한국청동기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제가 ‘청동기시대의 농경과 사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때, 토론을 맡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12년이 지난 오늘 비슷한 주제로 발표하시는데 제가 토론을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농경 관련 유적도 많이 조사되었고 농경 연구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여기에 증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김민구 교수님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토론자의 능력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아울러 발표자의 견해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문은 ‘수렵채집사회’와 ‘농경사회’의 개념을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작물유체 현황을 통해 살펴보고, 각 시대별 작물조성, 재배작물, 벼농사 등을 검토하여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본 것으로 최신 자료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렵채집사회와 농경사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에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토론자도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토론자 역시 수렵채집사회와 농경사회를 구분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즉, 당시 사회에서 농경의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농경사회’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석기시대에 작물을 재배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생존해 나아가는데, 농경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집단에서 농경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농경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회 전체로 볼 때 수렵채집민과 농경민이 공존하는 경우 단정적인 수치로 정의할 순 없겠지만,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가 농경활동을 할 때 그 사회를 농경사회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신석기시대의 재배 곡물 중 잡곡(조, 기장, 팥, 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벼’재배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자료의 부족으로 회의적인 의견과 함께 현재까지는 신석기시대의 벼

재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론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자도 중국 신석기시대의 여러 유적에서 확인된 재배 벼를 소개하면서, 인접한 한반도로 전파되었을 개연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중국대륙과 한반도는 구석기시대부터 지속적으로 문화가 전파되고 교류하는 관계로 중국의 신석기시대 벼재배 기술도 한반도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형적, 환경적 여건도 벼를 재배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론자는 향후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벼 재배에 대한 흔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벼재배 가능성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청동기시대의 재배작물은 쌀을 비롯한 잡곡류(보리, 밀, 콩, 팥, 조, 기장 등), 채소류(배추, 오이, 갓, 참외) 등이 확인되는데, 발표문 중에 '조와 기장을 제외한 일부 잡곡류의 재배는 일각에서 알려진 바와는 달리 그 증거가 빈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잡곡류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증거가 빈약하다'란 뜻이 재배가 안 되었다는 뜻인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채소류 재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동기시대의 벼농사와 밭농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에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벼농사의 시작과 더불어 사회분화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청동기시대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서 많은 연구자가 청동기시대의 사회적 양상을 벼농사와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론자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합니다. 다만, 농경으로 청동기시대의 사회양상을 설명할 때 벼농사(논벼)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벼농사(논벼)가 다른 재배작물에 비해 높은 재배기술이 필요하고, 주변에도 다양한 관개시설(수로, 보, 저수지 등)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당시의 사회적도를 단적으로 설명하기에 좋은 소재입니다. 하지만, 벼의 재배 면적이나 수확량, 전체 농경에서 벼농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벼농사만으로는 농경 전체를 설명하거나 이해하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농경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청동기시대 농경에서 재배면적이나 수확량으로 볼 때 벼농사보다 밭농사의 비중이 훨씬 높고, 작물의 종류도 잡곡 뿐만 아니라 쌀(밭벼)도 재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작물의 다양성 관점에서 보면 앞서 질의한 채소류의 재배도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벼농사 이외에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해서 청동기시대의 사회양상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분기」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김미경 국립중앙박물관

이번 학술대회는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 <한국의 청동기문화 2020>과 연계한 학술행사이다. 이번 전시가 28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전국 단위의 청동기문화 전시라는 점과 개인적으로 92년에 열린 <한국의 청동기문화>를 직접 관람하지 못한 토론자로서는 도록 속 청동기들은 언제나 가상의 전시 공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시로 직접 마주하고, 또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분기'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 토론을 담당하게 되어 매우 뜻 깊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소임을 다하고자 하나 지정토론이 아닌 관계로 저에게 맡겨진 3개의 주제발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문 중 제 연구분야와 관련된 조진선, 박진일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쟁점이 아닌 보충 및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적었던 식물고고학 분야의 김민구 선생님 발표에는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새롭게 공부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작물유체로 본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사회>에 대한 질의

발표문에는 신석기시대 작물의 재배 가능성 관련하여 지탑리 유적과 남한의 조사 및 연구 성과를 토대로 기장 또는 조일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통해 검출된 탄화 상태의 기장과 조, 피 등은 불에 타고 후퇴적 과정을 거치면서 변형되어 명확하게 동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형이 심한 탄화된 상태의 기장, 조 등의 곡물이 재배종인지? 혹은 야생종인지? 어느 정도까지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류의 경우 재배 과정을 거치면서 종자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기장 등도 그러한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간단하게 언급한 옥천 대천리 유적의 탄화된 밀과 보리의 경우도 재배종화(순화) 여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뒤의 김포지역 벼농사 실시 가능성과 관련하여 옥천 대천리 유적에서 출토된 탄화미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문화기 탄화미 출토 사례의 증가와 요령지역으로의 벼농사 확산을 언급하셨습니다. 한반도의 경우도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 다수에서 탄화미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정황상 재배벼일

가능성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육도 또는 수도 여부에 대해서는 경작 유구가 명확하지 않아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취락 사회의 성격을 추적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선생님의 개인적 견해가 있으신지요?

<금속유물로 본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시기 구분> 및 <초기철기시대 폐기 제안>에 대한 질의

먼저 조진전 선생님 발표문에는 비파형동검의 등장을 하나의 획기로 보고 비파형동검 성행기를 중기로 설정하였습니다. 가락동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전 비래동 1호 지식묘에서는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바 있는데, 취락과 토기 연구자의 경우 가락동유형은 청동기시대 전기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래동 1호 지식묘 출토 비파형동검의 시간적 위치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단경식석촉과 삼각만입석촉 등 청동기시대 전기로 비정되는 유물과 공반되고 있는 돌기부가 생략된 선암리식의 비파형동검의 시간적 위치와 형식학적인 기원과 계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진전 선생님, 박진일 선생님 모두 ‘고조선시대’라는 시대명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왕이 남하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韓의 고고학적 실체가 갈동 유형으로 비정 가능하다면, 준왕에 의해 남하한 고조선 문화는 세죽리-연화보 계통의 철기문화로 상징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세죽리-연화보 문화에 앞서면서 계보적으로 이어지는 기저문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준왕 이전의 고조선과 연관된 고고학적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탐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죽리-연화보 단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국가 단계의 위상을 보여주는 유적, 예를 들면 왕검성으로 불리는 도성 내지 궁성 유적과 왕릉급 위상을 갖춘 매장 유적의 존재가 선행해서 확인되어야 고조선 시대라는 시대명도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두 분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초기철기시대」 폐기 제안」에 대한 토론문

이창희 부산대학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한국청동기학회가 창립되고 처음으로 개최된 정기학술대회의 주제가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 구분’이었다. 당시 발표자는 한국식동검문화, 부장품이 월등한 적석목관묘, 전국계 철기라는 물질문화와 마한의 존재로 보아 이러한 문화는 청동기시대와는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독립된 시대로서 초기철기시대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양상을 5단계로 구분하였고, 유물조합의 발생순서에 입각한 당시의 편년안은 오늘에도 변함이 없다. 그 중 3~4단계가 초기철기시대에 속하는데, 한국식동검을 비롯한 각종 청동기가 등장하여 머지않아 남한 전역으로 파급되고(3단계), 전국계 철기문화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더해지는 시기(4단계)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당시의 3단계와 4단계를 확실히 분리하여, 분절점③(당시의 4단계)부터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대명으로서의 전제와 원칙 중 청동기시대에는 금속기로 청동기만 출토되어야 한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기가 출현한 이후를 청동기시대에 넣을 수 없다. 철기가 출현한 시점부터 철기시대로 해야 된다는지, 새로운 시대로 해야 된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말이다. 어쨌든 17년 사이에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에 3단계만을 청동기시대로 놓자고 하는 것일까? 토론자의 이해로는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철기가 등장하기 이전의 한국식동검문화는 韓의 문화여서 원사로 이해해야 되는데, 역연대관이 바뀌게 되면서 수정할 필요가 생겼고, 그 배경으로 철기의 출현을 연장진개의 활동에 同調시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韓의 상한은 철기의 출현 시점(갈동 3호묘)과 같기 때문에 그 이전인 괴정동유형은 선사, 갈동유형은 원사로 본다. **여기에서 말하는 韓의 상한을 왜 갈동 3호묘로 설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다. ‘철기의 출현=韓의 시작’이 아니지 않은가?**

토론자는 오늘의 발표에서 핵심이 초기철기시대라는 시대명 폐지 제안보다는 발표자의 분절점②와 ③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있다고 본다. 그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분기’에 있어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한국식동검문화를 청동기시대 후반부에 넣을지 뺄지, 혹은 일부분만 넣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분절

점②는 한국식동검문화의 등장이고, 분절점③은 전국계 주조철기의 등장이다. 이번 발표에서 사용하는 분절점이라는 용어 때문에 다소 모호한 감이 없지 않은데, 분절점②부터 분절점③ 직전까지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고고학에서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징적이고 중요한 고고자료의 출현을 획기로 해야 된다. 앞 시대에는 없는 것, 새로운 시대에 새로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 여기에 더해 생산경제(생업), 장송 의례를 포함한 의례, 환경 등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 좋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연 분절점③부터 무엇이 변화였는가?** 전국계 주조철기의 출현에 불과하다. 새로운 요소인 삼각형점토대토기에 대해 발표자는 원형점토대토기에서 자체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고, 토론자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발표자가 생각하는 시대를 구분하는 획기로써 군집목관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수도작에 요구되는 관개기술과 환호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 거점취락, 지식묘, 마제석기, 비파형동검 등으로 표현되는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의 사회는 그 복잡도가 심화되는 시기인데, 거점취락과 주변취락의 네트워크로 형성된 농경도시가 출현하고 발전하는 시기이다. 여기에는 농경제사가 수반된다. 비파형동검, 마제석검, 적색마연토기 등이 해당유물이 될 수 있으며, 세형동검문화가 전개되면서 청동기제사가 보편화된다.

그런데, **완주 갈동유적을 대표로 한 분절점③ 시작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토론자는 남한의 일반적인 청동기시대 농경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송국리 사람들의 후예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목관묘에 점토대토기와 한국식동검문화의 각종 청동의기류를 부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일찍이 한반도 남부로 이주해 온 점토대토기인들의 후예인가? 그것은 현재 송국리문화와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시간적 공존이 2~300년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진 이상 매우 중요하다.

청동기시대의利器는 석기이다. 비파형동검부터 세형동검까지 각종 청동기는 의기이다. 비슷한 의미로 적석목관묘 단계에 초현하는 전국계 주조철기 부장품은 이기로 볼 수 없으며, 생산과 보급이라는 단어와도 거리가 멀다. 즉, 이기의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석기시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철기시대는 발표자의 분절점④부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절점③ 이후로도 계속해서 한국식동검문화 주류의 장송의례와 청동기제사가 유행한다. 그들의 생업구조와 취락의 입지도 변하지 않았다. 앞에는 없던 것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새롭게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도 없다. 동시에 공존하고 있던 송국리문화를

비롯하여 중도문화 이전 중서부지역의 청동기시대, 동남해안지역의 검단리문화 등 청동기시대 농경 사회의 기층민과의 관계를 시대의 구분 속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고고학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삼시대법의 근간에서 탈피하지 않는 이상 해묵은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도구를 제작하는 재료를 기준으로 철기의 출현을 시대 구분의 획기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시대의 고고자료에도 초기적 현상은 존재한다. 그것은 고고학의 기본이다. 차라리 아우라지의 청동기가 출현하기까지 3~400년이나 청동기가 없는 청동기시대가 훨씬 더 문제가 아닌가? 초기철기시대보다는 철기시대가 바른 명칭이라 생각하며, 초기철기시대의 폐기를 당분간은 마음속으로 지지하겠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번 국립청주박물관의 특별전 '한국의 청동기문화 2020'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방대한 청동유물과 자료집성의 주류는 세형동검문화이다. 실제로 한국고고학에서 가장 화려한 청동기문화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특유의 청동기문화, 그래서 한국식청동기문화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것을 청동기시대에 넣지 않는다면 우리는 삼시대법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특별전 <한국의 청동기문화 2020> 연계 학술대회
청동기시대의 설정과 분기

발행일 2020년 5월 22일

주 최 **국립청주박물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TEL 043,229,6300
<https://cheongju.museum.go.kr>

한국청동기학회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내 한국청동기학회
TEL 033,640,2594~6
<https://www.bronzeculture.or.kr>

디자인 · 편집 (주)컴엔시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 45-28
TEL 053,252,6336

<비매품>

